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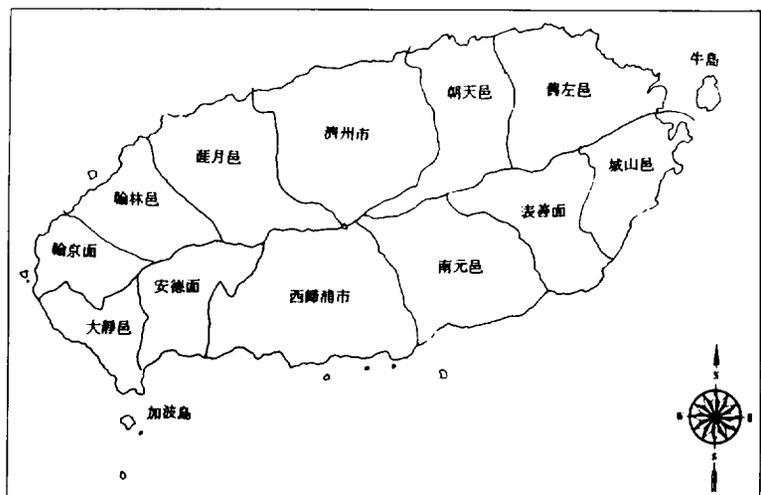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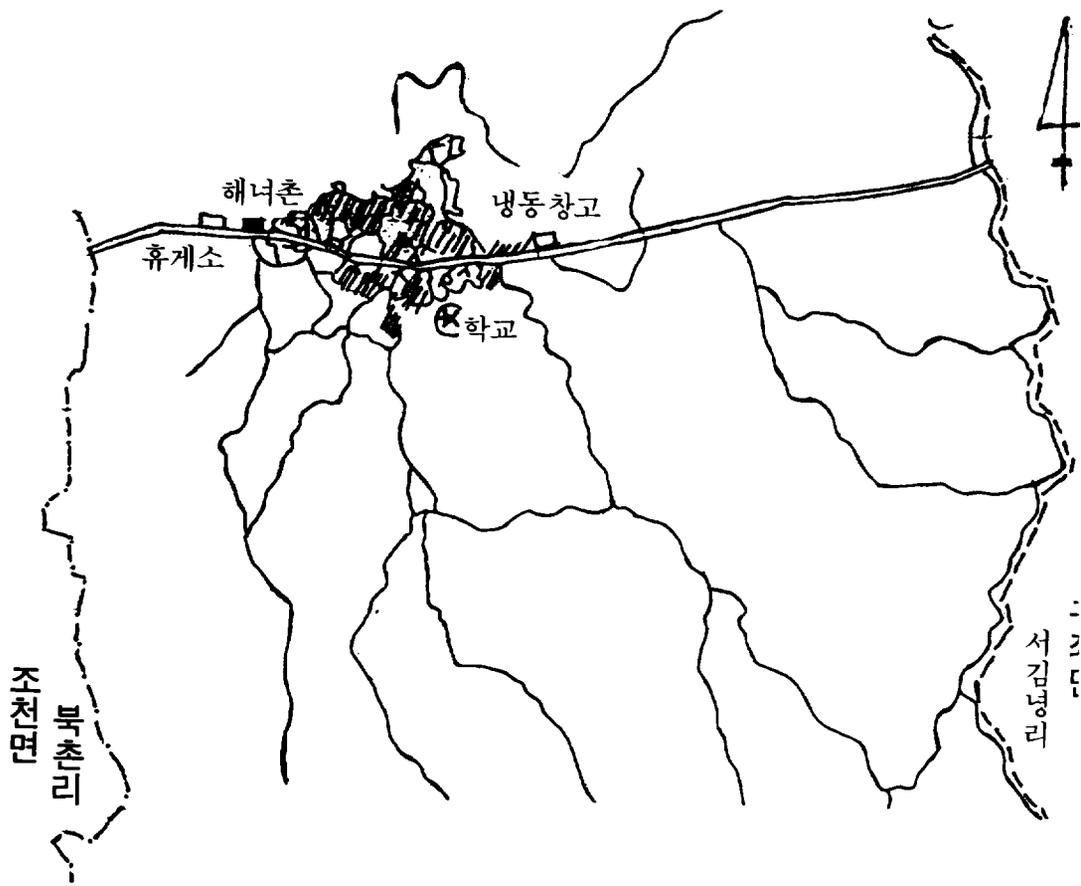
# 東福里學術調查

1989. 8. 1~8. 4

社會背景	145
方 言	153
民 謠	165
說 話	247
信 仰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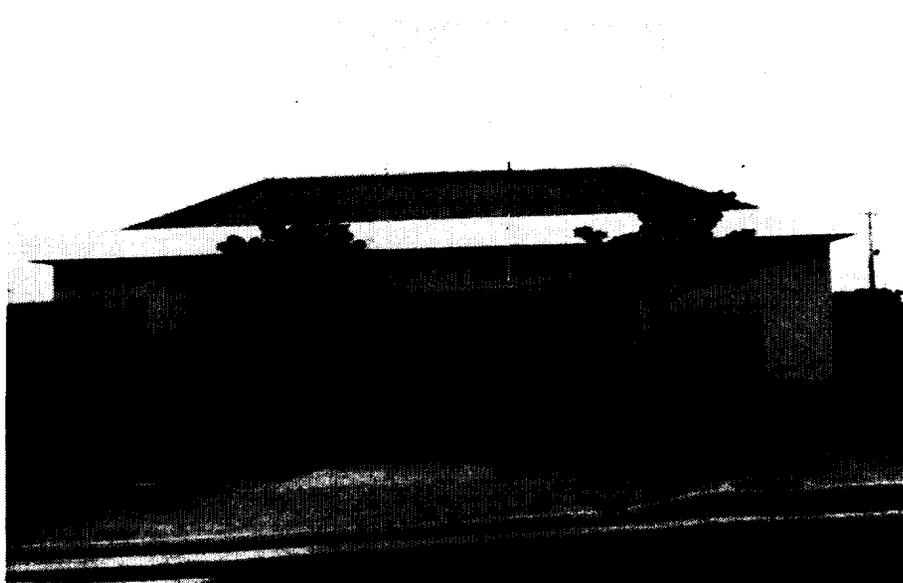


마을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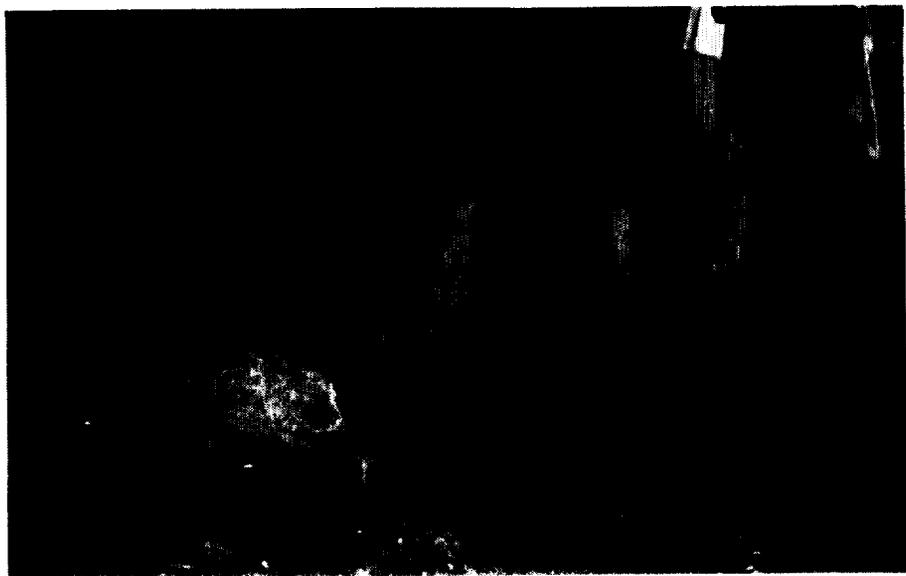
마을경계



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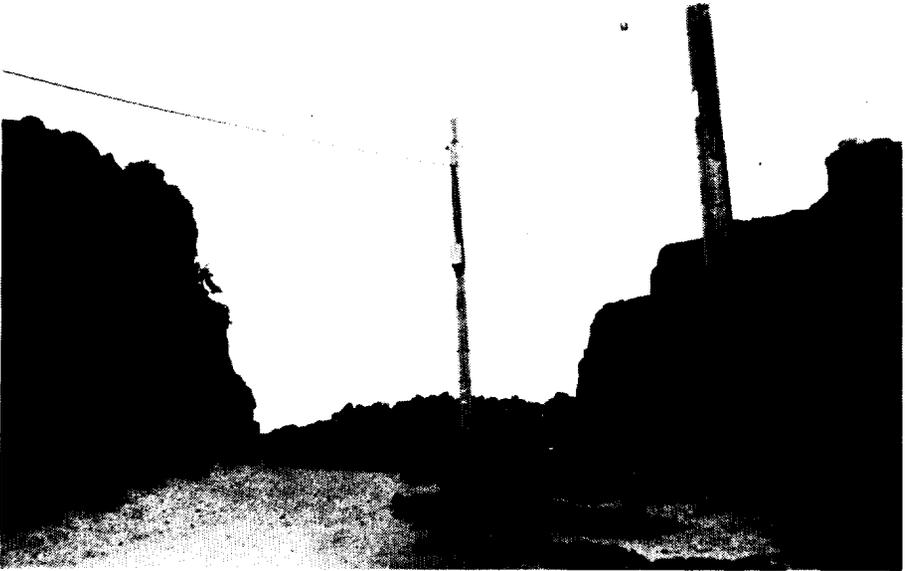
본향당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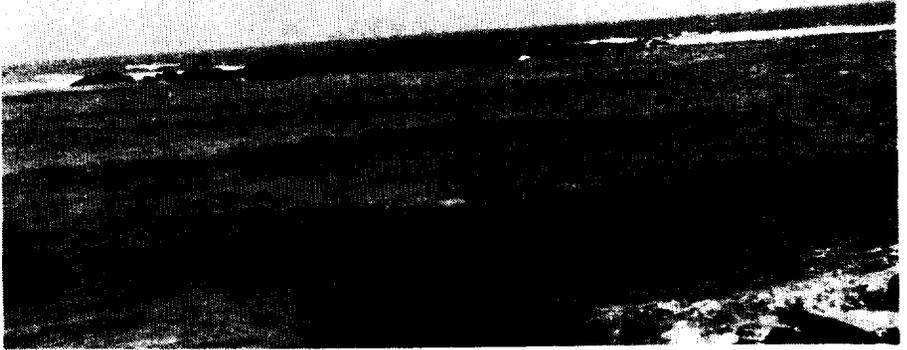
본향당 내부



팬나무



하망동산



소여도



4. 3사건당시 학살현장

# 杜 會 背 景

指導教授：金相助

班 員：吳彰進(4) 金京甫(4)

李美貞(3) 金玉順(3)

宋承姬(2) 李明珍(2)

康恩瀆(2)

## 目 次

I. 地理的 環境

II. 歷史的 環境

III. 人文概況

IV. 産業構造

마을은 나와 他人이 모여 사는 가장 기초이며 최소단위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社會的 意味의 모든 요소와 행위가 축약되어 있다.

본 학과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갖는 학술조사를 5個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사회배경팀은 東福里의 지리적 환경·사회적 배경·그 마을의 형성과 변천 과정 및 生活史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 I. 地理的 環境

제주시에서 우회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약 19.9km 떨어진 곳에 位置하고

있는 東福里는 구좌읍의 가장 서쪽에 있어 西金寧里와 조천읍 북촌리에 인접한 부락이다.

총 면적 54.3 ㎢인 이 마을은 행정구역상 4 個洞으로 나뉘었으며 일주도로변을 中心으로 해안가에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해안가 근처에는 봉수대의 역할을 했었던 하망(下望)동산이 있고 인접부락으로는 동쪽엔 西金寧, 서쪽엔 北村里, 남쪽에는 善屹, 북쪽에는 바다가 있다.

한편, 해안과 접해있는 까닭으로 <큰여>, <작은여> 등의 여가 있고, 해양자원으로는 패류·돛·우뭇가사리 등을 채집하고 있으며, 토양은 대부분 척박한 화산땅이어서 마늘과 같은 특용작물이 적합하다고 한다.

## Ⅱ. 歷史的 環境

곶막(邊幕) 또는 곶막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東福里의 設村由來는 지금으로부터 약 360여 년을 거슬러 올라 간다.

壬辰倭亂을 전후한 서기 1600년 경에 「곶막」이라는 해변가에 속칭 「하망(下望)동산」에 봉화대를 설치하고 김녕 현청에서 「망별장(望別掌)」을 파견하였는데 이 망별장 李氏의 딸과 朴秀東이라는 사람이 인연을 맺어 생활을 시작한 것이 이 마을 최초의 정착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마을은 設村 당시부터 260여 년 동안을 인근 金寧里의 부속 마을이었으나 1875年 乙亥年(고종 12년) 당시 초대 警民長이었던 愼永洙씨 등이 중심이 되어 김녕리에서 독립시키고, 里名을 東福里라 칭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東”은 “동쪽에 위치해 있다”는 뜻이고 “福”은 “해가 뜨면 먼저 동쪽에 빛을 비춰주어 영광과 복이 온다”는 뜻으로, 당시 里民들이 복된 마을을 추구하고, 새로운 마을로 발전시키자는 강한 의지와 희망을 갖고자 하는 의도에서 명명하였다고 한다.

7代에 걸친 警民長 제도가 한일합방과 더불어 폐지되고 일제하에서는 區長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초대 구장은 金達千氏가 맡아 무려 31년을 재직하면서 지금 마을 사람들 입에도 오르내릴 정도로 마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옛날에 이 마을은 〈안카름〉, 〈동카름〉, 〈서카름〉 이렇게 3個의 동네로 구분되어 동카름 내에서는 “장상물”을, 안카름에서는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설촌 당시부터 식수로 이용했던 “민물”을, 서카름에서는 서쪽에 있는 “도화치물”을 중심으로 동네를 번성시켰는데, 지금의 동카름은 東上洞, 서카름은 西上洞과, 西下洞, 안카름은 東下洞으로 개칭되었고 그 당시 식수로 이용되었던 물들도 상수도의 보급으로 인해 점차 사용되지 않아 모두 폐쇄되었다.

마을 앞바다에는 〈작은여〉가 솟아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人工으로 쌓은 돌무더기를 볼 수 있다. 주민들 말에 따르면 150여 년 전, 풍수지리설에 따라 마을 전체의 안녕과 큰 사람이 나기를 바라면서 테우를 동원하여 10여 일 간의 공사 끝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舊左邑誌〉나 정비석의 〈명기열전〉에 보면 1794년(정조 14년)에 5년 간의 잇따른 흉년으로 제주 전체가 굶주림에 허덕이던 시절에 6만 4천여 제주인을 구출한 金萬德(1739~1812) 할머니가 이 마을 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本 조사자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확인하여 본 바는 자신들도 최근에야 월간지를 보고 알았다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대로 그런 이야기가 내려왔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편, 제주도 현대사를 살펴볼 때 동북리는 4·3사건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던 지역이다. 本 조사자들은 집단 학살을 당했던 동북분교 뒷밭을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였는데, 이곳 주민들은 입을 모아 억울한 죽음에 대한 4·3의 신원을 바라고 있었다.



### Ⅲ. 人 文 概 況

동복리는 4개의 자연부락 즉, 동상동·동하동·서상동·서하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8년 10월 1일 현재 189가구 단독가구수: 27, 2세대 이상 가구수: 162에 男子가 376名, 女子가 424名이다.

〈표 1〉 연령별 인구현황

(1988년 10월 1일 기준)

구분 성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男	18	35	41	48	58	49	26	11	21
女	14	35	33	49	39	39	31	13	15
계	32	70	74	97	97	88	57	24	36

구분 성별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80	80
男	25	14	12	6	5	3	3	1
女	31	24	29	13	18	16	6	19
계	56	38	41	19	23	19	9	20

\* 자료 : 상주인구조사 김녕출장소 제공

\* 81세 이상은 80세란에 포함 작성

위의 표에 나타나듯이 50세 이상에 이르면 男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이 4·3사건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 IV. 産 業 構 造

동북리의 산업구조는 농업과 어업의 1차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半農 半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특이한 것은 3차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관광휴게소가 3개소나 있는데 이것은 일주도로가 해안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1) 農 業

농업에 있어서 우선 농기구 현황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농기구 현황

종류 갯수	동 력 절 단기	예 취기	동 력 탈곡기	농 용 원동기	동 력 분무기	곡 물 건조기	동 력 경운기	농 용 양수기
	16	25	6	1	20	1	40	20

\* 자료 : 구좌읍사무소, 1988.

농산물은 일반농업인 발농사가 주종을 이루는데, 이는 토질이 양호하지 못하고 경작지가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수원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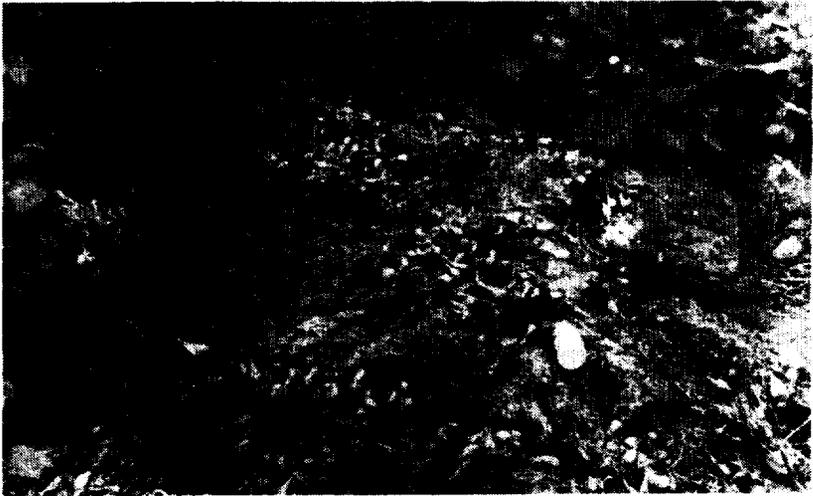
다음으로 생산량에 대해 알아보면,

〈 표 2 〉 작물별 생산량

(단위 : t)

구분 단위	육 도	맥 주맥	과 맥	대 두	소 두	녹 두	기 타 두	고 구 마	조	메 밀	양 과	마 늘	락 교	유 채	땅 콩	참 깨
	5	135	37	30	1.5	9	1	7	26	1	700	139	240	7	3	4

1988년도 작물별 생산량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특용작물인 락교(염교)이다. 즉, 토질이 비옥하지 않은 동북리는 성산읍 난산리와 더불어 이 지역의 주요 소득작물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1988년에는 락교를 재배해 많은 수입을 올렸으나, 1989년에는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미국산·중국산 락교가 대량으로 출하되어 전년보다 갑절이나 많은 500 t의 양이 밭에 버려졌다.



그러나 행정당국에서는 피해보상에 대해서 서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70년대 이후 농업정책의 실책이며 앞으로 정책 전환의 확대가 요구되어진다고 하겠다.

(2) 漁業

< 표 3 > 어장 현황

어 장 별	건 수	면 적(ha)	주 요 생 산 물
제 1 종공동어장	1	370	소라, 성게, 톳, 천초, 기타
정 치 망	1	3	방어, 기타 잡어

\* 자료 : 수협김녕출장소, 1988.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소라·성게·톳·천초 등을 생산해내는 근원인 제 1종 공동어장이 370 ha로 구좌읍 관내 타 어촌계보다 매우 좁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한 수입 역시 적다.

한편, 어선 보유상황을 보면 동력선 3척, 부동력선 3척이 있으나, 2t 미만이 4척이나 차지해서 영세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 전 지역 어업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나타나듯 연해어업에 머물러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어획 현황을 보면 < 표 4 >와 같다.

〈표 4〉 해산물 어획현황

년 도		'87 년		'88 년	
		수 량 (kg)	금액 (만원)	수 량 (kg)	금액 (천원)
양 식 어 업	소 라	3,000	1,600	3,600	20,219
	성 계	500	800	270	4,067
	툫	12,000	4,500	10,313	30,466
	천 초	6,000	1,300	18,102	41,991
어 획 을	돔 류			2,083	25,110
	잡 어 생 선			9,050	44,890

위의 〈표 4〉를 통해서 어획에 있어서는 돔류와 오징어·갈치 등 잡어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양식(1종 공동어장에서의 수입)에 있어서는 소라·성계·툫·천초 등이 주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의 통계자료에서는 분석이 힘들지만, 패류(소라, 전복)의 경우는 그간의 남획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수협 김녕출장소 소장의 증언 및 해녀들과의 면담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갯고동·성계 등의 대체어획으로 수입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며, 갯고동의 경우 좋은 가격으로 일본에 수출된다고 한다.

3박 4일의 조사기간이 부분적인 접근에 그쳐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것 이란 꽤 힘든 일이었다.

즉, 산업구조나 인문개황이 거의 행정당국에 의해 조사된 것에 의존한다거나 자료공개의 한계성 및 조사의 신뢰를 떨어뜨린 난점을 지녔다.

다음 조사부터는 설문지 작성이나 면담에 의한 성의있는 조사가 필요하리라 보고 본다.

# 方 言

指導教授：金洪植·姜榮峯

指導補助：玄桂哲

班 員：姜男勳(4)·金大元(4)

金在慶(3)·李宰淑(2)

金貞姬(2)·許辛子(2)

吳根善(2)·金順枝(2)

김연희(2)

## 目 次

I. 해산물명(海産物名)	IV. 지명(地名)
II. 농산물명(農産物名)	V. 기타
III. 농기구명(農機具名)	

### ○ 調査經緯 및 記述方法

이 보고서는 1989년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의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에서 물고기명, 농기구명, 농산물명, 지명 등을 내용으로 수북하고 있다.

동북리는 동상동, 서상동, 동하동, 서하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현 동북은 총 80여 호, 700여 명의 주민, 총 면적 150만 평, 경지는 100헥타, 호당 200만원 정도의 연수입을 올리는 반농반어의 생활형태를 지닌 부락으로 해녀들이 많이 있어 해산물명을 조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조사에 임하면서 신속하게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내용에 따른 '수산 일반향토 교육자료', '한국 방언조사 질문지'를 준비하였으

며, 그것들을 이용하여 면담·조사를 통해 어휘들을 채록하였고 조사결과를 신속·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그 과정을 녹음·기록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현지 조사 첫날에는 동북 이장과의 만남을 통해 마을 지리를 익히고 ‘당’이나 ‘해녀 탈의장’ 등을 둘러보았으며, 특히 조사에 필요한 제보자 선정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다음날부터는 본격적인 해산불명과 농기구, 지명 및 기타 작업을 채록해나갔다.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학술조사 경험의 미비로 힘들었으나, 선배 및 회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점차 실질적인 채록을 할 수 있었다. 한국 방언조사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어휘들은 비교적 쉽게 方名을 채록할 수 있었고 농기구에 있어서는 그 사진이 他지역의 사진이어서 제주도와는 부분적으로 달랐으나 보충설명을 곁들이다보니 복잡한 농기구의 부분적인 명칭 등을 채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리고 어류명의 경우에는 표준어 고기명과 방언 고기명을 제보자와 조사자가 확실한 지식이 없어 힘들었다. 이에 방법을 달리하여 제보자 선정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 단순히 고령의 노인 선택이 아닌 40대 이상의 현 생산적 제보자(예: 해녀, 어부 등)를 집중적으로 선정하여 채록하고, 조를 2개조로 편성, 시간의 절약과 활동공간을 넓혀나가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동북리 지역이 좁은 관계로 제보자 선정이 협소하였고, 채록과정에서의 미숙으로 정확한 이름을 채록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움이었다. 또한 채록이 주로 해산불명에 집중되어 식물류명의 채록은 거의 힘들었다. 지명에서는 마을의 경계, 이름의 유래 뿐만이 아니라 바다이름, 오름, 못, 식수로 사용되던 이름 등도 조사하였다.

이번 학술조사를 통해 막연히 느껴왔던 지역간 방언의 차이를 조금이나마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제주 방언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학술조사 전 각 조의 예비모임을 통한 예비답사 그리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준비, 제보자 선정문제, 끝으로 동북리 특수상황(4·3 피해지역으로 700여 명이 죽어, 약 100여 명 정도의 생존자가 있었으며 이들도 몇 년

동안 동북리를 떠나 생활하여 왔다. 그리고, 지금의 제보자들은 그 당시 20세 안팎으로 동북리의 지형과 특유의 방언을 유지하기 어려웠으리라 짐작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이었다.

\* 표준어는 확실치 않을 경우 방언만 기록함.

## I. 해산물명(海産物名)

### 가. 어류

번호	표준어	방언	동사류 및 참고어휘
1	랭이상어	① *도랭이	실어랭이송, 몰어랭이古
2	돌묵상어	② *모도리	
3	목탁가오리	밥죽, 밥자	
4	날메룽이	아 이 리	
5	달거리	통 두 건	
6	가다랭이	③ *	
7	점다랭이	멍텅구리	
8	빨돔	황돔	
9	자바리	다꿈바리	
10	능성어	구궁쟁이	
11	별우럭	북바리	
12	흑뱅어돔	구릿	
13	용치놀래기	④ *어랭이	
14	범돔	⑤ *독대기	
15	놀래기	코쟁이	
16	노래미	줄락	

번호	표 준 어	방 언	동 사 류 및 참 고 어 휘
17	술 치	쭈시기	
18	양 태	장 태	
19	가재미	납세미	
20	광 어	광 어	
21	멸 치	멜	
22	줄삼치	십이가스	
23	재방어	저 럽	
24	전쟁어	각재기	
25	부시리	히라수	
26	눈불대	볶조기	
27	벤자리	벤자리	
28	아홉동가리	논쟁이	
29	자리돔	자 리	
30	독가시치	따 치	
31	별방독	덤불랭이	
32	우럭불락	방장우럭	

#### 나. 패 류

번호	표 준 어	방 언	동 사 류 및 참 고 어 휘
1	소 라	구쟁기	
2	오분자기	오분작	
3	구멍뱀고봉	떡보말	
4	말전복	암전복	남작하다
5	등근전복	숫전복	등글다

번호	표준어	방언	동사류 및 참고어휘
6	시볼트전복	마드래	큰전복     쟁배름           물도새기
7	납작소라	수드리보말	
8	눈알고동	⑥ * 돌보말	
9	파달고동	소래고동	
10	아기사갓조개	쟁비름	
11	군부	군벗	
12	군소	갈맹이	
13	팔알고동	고매기	
14	대수리	메옹이	
15	나팔고동	소라고동	
16	두드럭고동		
17	줄군부	군벗	

#### 다. 해조류

번호	표준어	방언	동사류 및 참고어휘
1	파래	포래	넓은미역
2	가시파래	가시리	
3	정각	정각	
4	너패	넙패	
5	미역(쇠)	메역(새)	
6	구슬모자반	듬북	
7	쟁쟁이모자반	노랑쟁이	
8	뚝	뚝	

9	감 태	감 태	
10	김	해 우	
11	도 박	갯고도리	
12	우뭇가사리	우 미	

- (주) ①② 동북리에서는 ‘도랭이’ ‘모도리’를 상어라 하지 않음  
 ③ ‘멍텅구리’는 우도에서 사용하며 ‘멍치’를 오히려 ‘멍텅구리’라 한다.  
 ④⑤⑥은 ‘우도’에서도 사용

제보자 : 김갑생 (어부, ?) 강복순 (해녀, 67세)

박경중 (男 · 56세) 이명자 (해녀, ?) 김진숙 (해녀, ?)

## II. 농산물명 (農産物名)

번호	표준어	방언	동사류 및 참고어휘
1	보리	보리	쌀보리, 떡보리, 맥수보리, 주냉이보리  흐린조, 모인조, 붉은터럭조  정낭사리, 불갓사리  빛자류 원단  대축부랭이
2	감부기	검뱅이	
3	고구마	감저	
4	감자	지슬	
5	조	조	
6			
7	수수	느렁대축	
8		대낭대축	
9	옥수수	강냉이	
10	무	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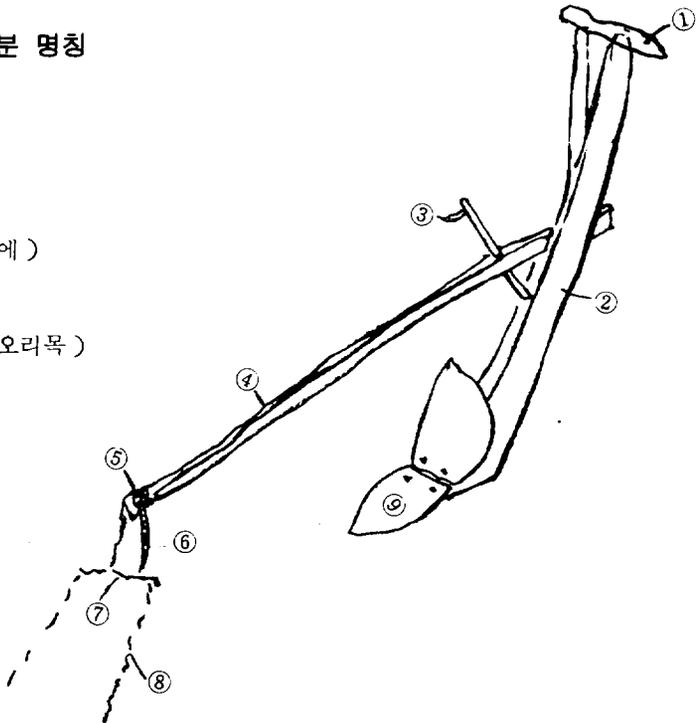
11	파	파	
12	가 지	가 지	
13	오 이	물 외	

제보자 : 박경중

### Ⅲ. 농기구명(農機具名)

#### 가. 쟁기부분 명칭

- ① 양젓머리
- ② 쟁기뿔
- ③ 설깃
- ④ 성애 (성애)
- ⑤ 달팽이뿔
- ⑥ 오림목 (오리목)
- ⑦ 고들개
- ⑧ 한줄
- ⑨ 보섭
- ⑩ 망울 \*
- ⑪ 좁개 \*
- ⑫ 멩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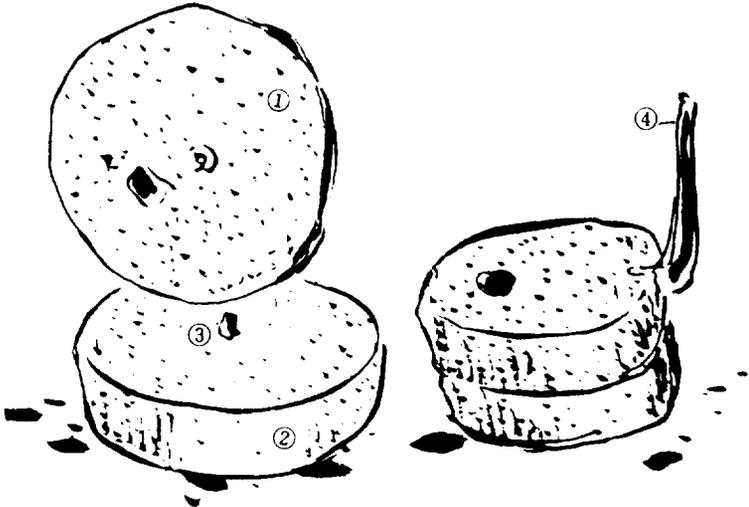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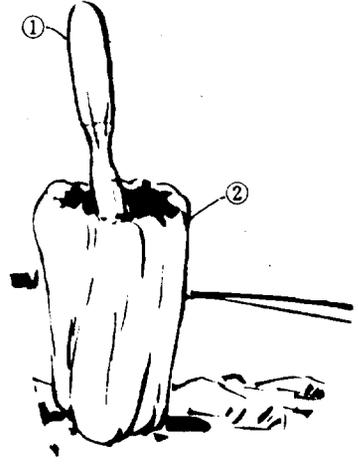
\*쟁기부분 명칭이 아니고 쟁기와 함께 쓰이는 기구임.

## 나. 방에 부분 명칭

- ① 방에
- ② 방엿돌 (방엿통)

## 다. 맺돌 부분 명칭

- 맺돌 (ㄴ래)
- ① 울착 (우착)
- ② 아래 착
- ③ ㄴ래 좃
- ④ ㄴ래트죽



## 라. 기타

번호	표준어	방언	동사류 및 참고어휘
1	써래	끄실래	
2	낫	호미	
3	호미	골갱이	
4		따비	
5		목괭이	
6		괭이	
7		쇠시랑	
8	부삽	갈래죽	
9		도리깨	도리깨아들
10			도리깨어시
11		꺾래방석	
12		소쿠리	
13		골채	쇠골채, 대골채
14		채	얼채이

제보자 : 박경종 (男, 56세)

## Ⅳ. 지명 (地名)

### 가. -밭(왓, 팻)型

① 장항피 (집 뒤에 있는 밭)

- ② 거머스리 (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 밭)
- ③ 당팓 (堂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 ④ 우영팓 (人家의 부근에 있는 밭)
- ⑤ 장구왓 (밭이 장구모양으로 생겨 붙여진 밭)
- ⑥ 지픈밭 (주위의 지대보다 낮기 때문에 붙여진 밭)
- ⑦ 빌레송
- ⑧ 동방귀
- ⑨ 드르뭇
- ⑩ 비캐왓
- ⑪ 추너니왓
- ⑫ 개죽은산전밭
- ⑬ 큰절산전밭
- ⑭ 곰망내가집터왓
- ⑮ 고냉이밭머리왓 (고양이가 많이 죽어 붙여진 이름)

#### 나. -물찜

‘물’은 통, 못과 함께 인위적, 자연적인 샘물 등을 말한다.

- ① 장상물 (지금의 동하동과 서하동에 있는 물)
- ② 킨 물 (지금의 동상동에 있어 붙여진 이름)
- ③ 도하치물 (지금의 서상동에 있는 물)
- ④ 앞킨물
- ⑤ 끌그미물
- ⑥ 옷산물
- ⑦ 장태물
- ⑧ 구신물
- ⑨ 우웨기물 (숫는물)

⑩ 벨망불 (별이 많이 뜬다하여 붙여진 이름)

⑪ 검은불

⑫ 황불

#### 다. -못型

① 섯대못

② 동대못

#### 라. -동산型

① 하막동산 (봉화대를 설치했었다고 함)

② 붉은보릿동산

#### 마. -여型

‘여’는 암초라고도 한다. 대부분이 밀물 때는 보이지 않으나 썰물 때는 보인다. 물 속에 있다 보이는 ‘여’는 ‘뜬여’라 한다.

① 셋가른여

② 측바른여

③ 막가른여

④ 소(쇠)여 (동북의 대표적인 ‘여’이다)

김상해씨의 말에 따르면 풍수지리설에 따라 마을을 지키기<sup>1)</sup> 위한 것으로 마을을 사람으로 생각하여 하나의 밥상과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 또한 다른 제보자들은 단순히 바다에 근접한 집을 보존키 위해 파도를 막을 생각으로 ‘여’ 위에 돌을 쌓았다고도 한다.

#### 바. -개型

‘개’는 작은 浦口, 배를 대는 곳이기도 하며 ‘멜’(멸치)이 들었을 때

‘땨(땨치)을 가두어 주는 역할도 한다.

- ① 엉굴개
- ② 새개
- ③ 장산개(지셋개)
- ④ 킨물개(사오넝개)
- ⑤ 도화치개

## V. 기 타

동북리는 4개 마을로 구분되어 있다.

- 동상동(웃골, 동카름)
- 서상동(셋골, 서카름)
- 동하동(안골, 안카름)
- 서하동(중골, 중카름)

그리고 ‘동북’이라는 이름은 ‘곰막’에서 유래된 것으로 ‘곰’은 김녕의 ‘2살미’에서 온 것이며 ‘막’은 ‘해막동산’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 ‘곰막’에서 ‘곰’은 작은 촌락, ‘막’은 경계를 의미한다고 한다. 지금 ‘곰막’을 ‘꼰막’이라고도 부른다. 또 어떤 분은 동쪽에서 북이 온다하여 ‘동북’이라 붙였다고도 하며 동네의 별칭으로 인심이 좋다는 뜻으로 ‘생이다리’라고 부른다 한다.

제보자: 김상해(男, ?)

# 民 謠

指導教授：金榮敦

指導補助：梁永子 韓基興

理 員：安姬貞(4) 安敏希(4)

金京宣(3) 金愛蘭(3)

金炫廷(2) 任智衍(2)

吳賢珠(2) 高能修(2)

李美順(1) 李榮心(1)

洪美鏡(1)

## 目 次

I. 조사경위 및 기술방법

II. 제보자

III. 노동요

IV. 의식요

V. 타령류

VI. - (1) 전승동요

(2) 놀이요

VII. 却 註

여기에 수록된 민요와 동요들은 1989년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4일 동안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에서 현지 조사한 자료들이다.

조사된 민요와 동요들은 가급적 다 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민요의 사실표기는 될 수 있는 한 제보자들의 발음에 충실했으며 <제주어 표기법시안>에 준하였다. 어린 아이들이 부른 동요는 대체로 표준어 표기법을 따랐으며, 의미 파악이 힘든 단어는 註를 달아 설명하였다.

# I.

## 제 1 일 ( 8 월 1 일 )

아침 10시에 학교에서 소집하여 학교버스로 출발, 오전 11시경 숙소인 구좌읍 동북리 동북국민학교에 도착하였다. 짐을 풀고 정리정돈을 하고 나서 동북마을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과 조사에 대한 설명이 있는 다음 각 조사반이 조사에 들어갔다. 첫날 민요조사반은 점심과 저녁식사를 담당했으므로 한 차례의 조사 밖에 가질 수 없었다.

이장님의 소개로 만난 김무생 할아버지의 주선으로 조사반은 저녁 9시 30분경에 김군오씨 댁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첫 조사여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양옥녀(女·51), 양영수(女·71), 이경봉(女·76), 김은옥(女·59), 김대선(女·61), 양일생(女·81)씨 등 여러분을 모시고 조사에 들어갔다. 여기서 〈ㄱ레ㄴ는 소리〉, 〈서우젓 소리〉, 〈밭블리는 소리〉 등 다수의 노동요와 타령류를 채록할 수 있었다.

## 제 2 일 ( 8 월 2 일 )

오전 10시 동북국민학교에서 김민정(女·11)을 비롯한 12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동요를 채록하였다. 오후 3차 조사때는 이장님의 소개로 양금녀(女·48)씨를 동북국민학교에 모시고 〈달구소리〉, 〈꽃염불〉, 〈회심곡〉, 〈머쉬모는 소리〉를 채록하였다. 저녁 7시쯤 시작한 4차 조사때는 해녀 회장님댁에서 해녀 다섯분을 모시고 조사를 했으나, 해녀노래가 거의 불려지지 않아 해녀의 생애력(life-story)을 조사하는데 그쳤다.

## 제 3 일 ( 8 월 3 일 )

오전 10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민요조사반은 두개의 조로 나누어서 제 보자를 분담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1조는 발일 갔다 오시던 김완문(女·

68), 이자생(女·78)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 이자생 할머니댁에서 노동요와 여러 종류의 전승 동요를 채록하였다. 또 할머니들이 직접 체험하신 4·3 사건에 대해서도 들었다.

2 조는 김창용(男·50)씨를 만나뵈었는데 이분은 처음으로 접한 남자 제보자이다. <창부타령>, <밭불리는 소리>, <따비질 소리>, <므쉬모는 소리>를 채록하였다. 오후 6차 조사때는 1차 조사때 만난 이경봉(女·76) 할머니를 다시 집으로 찾아 뵈었다. 이 할머니께서는 <맹긴뫓는 소리>, <므쉬모는 소리>, <밭불리는 소리> 등 7종류의 노동요와 농사관행에 대해 조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부는 남자 제보자인 김두일(男·78)씨를 찾아 <따비질 소리>, <밭불리는 소리> 등을 채록하였다. 저녁 7차 조사는 마지막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전체시간을 가졌으므로 4명의 조사자만 참석했다. 이때 제보자는 1차 조사때 만났던 양영수(女·71), 김은옥(女·59), 김대선(女·61)씨로 김은옥씨 댁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밤이 늦은 시간인데도 제보자들이 성의있게 조사에 임해주셔서 이 마을에서 불려지는 여성노동요 전반에 걸쳐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게 채록할 수 있었다.

#### 제 4 일 ( 8 월 4 일 )

오전 8차 조사에서는 녹음기 사정상 녹음이 안된 부분을 채록하기 위해 양금녀(女·48)씨를 학교에 모셨다. 이 조사에서는 타령류, <맹긴뫓는 소리>를 채록하였다. 타령류는 조사자들에게도 귀에 익은 것이어서 훗소리를 함께 부르는 어우러짐의 자리가 되기도 했다.

#### 제 5 일 ( 9 월 30 일 )

미진했던 점과 불확실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재조사를 했다. 이때 지난번 8차 조사까지 채록된 민요를 테이프에 선별 녹음해서 제보자들에게 선물로 드렸고 불확실했던 사설의 뜻을 다시 확인했다.

## II. 제 보 자

[ 제보자 1 ]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김무생 ( 男 . 72 )



동복리 이장님의 소개로 만나게 된 김무생 ( 男 · 72 )씨는 마을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분으로서 마을의 민요실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7~8세 때부터 허벅장단을 관심을 갖고 배웠고 7~8년간 국악협회의 걸궁패에서 활동했는데 팽과리와 북을 주로 다루었다고 한다. 14세 때 일본에 건너가 대동아 전쟁을 겪고 해방이 되자 귀국해서 배를 타고 부산, 해남, 강진 등지로 장사를 나가기도 했다 한다. 할아버지는 오늘 날에 우리 고유의 노래가 사라져감을 무척 안타까와하셨고 다른 제보자들이 노래할 때는 무릎을 치며 장단을 맞추거나 어깨춤을 추시는 등 분위기를 흥겹게 해주시기도 했다. 그러나 노래를 청하자 노래는 못한다시며 그저 어깨춤만 덩실덩실 추실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양금녀 ( 女 · 48 )씨를 소개해주시면서, 돌아가신 허행길씨가 <행상노래>를 그렇게 잘했다고 아쉬워 하셨다.

[ 제보자 2 ]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양영수 (女 · 71)



양영수 (女 · 71) 할머니는 김무생 할아버지가 주선하신 자리에서 처음으로 뵈 수 있었다. 1차 조사 때는 노래를 잘 앉으려고 했으나, 조사자들이 8차 조사 때 마련한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피곤하실까봐 걱정하는 조사자들에게 괜찮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분위기가 너무 좋아 밤을 새고 싶을 정도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할머니는 구좌읍 덕천리에서 출생하여 동복리에 시집오셨고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계시다. 물질은 못하시고 밭농사를 하신다. 자녀는 모두 출가해 타지에 나가 있어 현재는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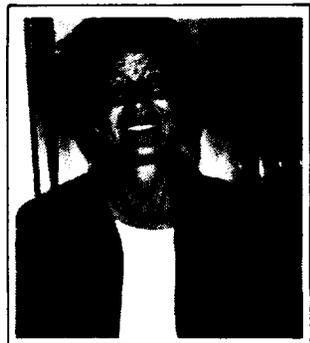
여성노동요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노래 하나를 불러도 끊임이 없이 완전하게 사설을 이으셨기 때문에 조사반이 많은 노래를 채록할 수 있었다.

제보자료 : Ⅲ 2 - 1, Ⅲ 2 - 4, Ⅲ 3 - 1,  
Ⅲ 3 - 3, Ⅲ 6 - 1, Ⅲ 7 - 1,  
Ⅲ 7 - 2, Ⅲ 9 - 1, Ⅲ 9 - 2.

[ 제보자 3 ]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1494

양옥녀 (女 · 51)



양옥녀(女·51)씨는 구좌읍 김녕리에서 출생, 동복으로 시집왔고 양금녀(女·48)씨와는 자매사이이다. 21세때 구룡포로 건너가서 물질을 하였고 결혼후 3년간 판포, 장길리, 울릉도, 부산 등지에서 몇 개월씩 물질을 했다. 현재 협신친목회에 가입해 있고 29세때 전라도 근방에서 한 달 동안 난바르<sup>1)</sup>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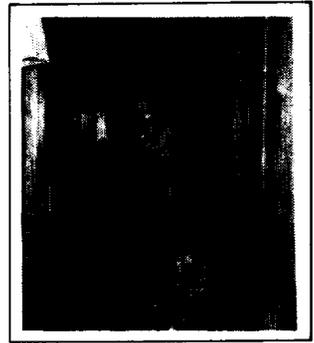
양옥녀씨는 김무생 할아버지가 주선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노동요보다는 타령류를 많이 알고 계셨다. 간혹 노래를 하다 끊길 때도 있었고 타령을 하실 때는 어깨춤을 추시면서 매우 흥겹게 부르셨다.

제보자료 : Ⅲ 8, V 3-2, V 4-1, V 4-2, V 5

[ 제보자 4 ]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양금녀(女·48)



양금녀(女·48)씨는 양옥녀(女·51)씨의 동생으로 구좌읍 김녕리에서 출생하여 동복으로 시집왔다. 술하에 2남2녀를 두고 있고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종달리 봉화사의 보살로 계시다.

국악협회에 가입하여 41세부터 외국공연을 위하여 3년 동안 노래를 배운 경험이 있다고 한다. 공연을 위해 배운것으로 제보하는 노래들이 대부분 타령류였다. 특히 〈회심곡〉은 직접 자신이 지었다고 한다. 〈회심곡〉을 부르실 때에는 두 손을 합장하고 정성을 다해 노래 부르셨고 그 모습은 다른 사

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또 조사자들이 녹음을 하려고 하면 녹음하기 전에 꼭 한 번 연습을 하는 등 성의를 보이셨다.

현재 신진친목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마을에 썰이 났을 때는 신일병 씨와 번갈아 가며 〈행상노래〉를 하신다고 한다.

제보자료 : Ⅲ 2-2, Ⅲ 10-2, Ⅳ 1, Ⅳ 2, Ⅳ 3, Ⅴ 1, Ⅴ 2, Ⅴ 3-1,  
Ⅴ 6-1.

[ 제보자 5 ]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

이경봉(女·76)



김무생 할아버지의 주선으로 만난 이경봉(女·76) 할머니는 〈맹진뫼는 소리〉를 자신있게 불러 주셨는데 수줍어하시면서도 조사에 잘 응해주셨다.

할머니는 구좌읍 동북리에서 출생하여 동북에 시집가셨다. 15세때 불질을 배워 30세까지 하셨다고 한다. 이경봉 할머니는 첫날의 2차 조사 때는 수줍어하시며 노래부르시길 꺼렸으나 6차 조사때는 친절하게 응해주셨다.

농사에 관한 질문에 답하시다가 조사자들이 〈밭벌리는 소리〉를 해 줄 것을 청하자 못하겠다고 잡아떼시다가 동네 할머니들과 조사자들의 적극적인 권유에 마지못해 하시며 불러주셨다.

제보자료 : Ⅲ 6-4, Ⅲ 10-1, Ⅲ 10-3, Ⅵ-[1]1, Ⅵ-[1]5

[ 제보자 6 ]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김창용 (男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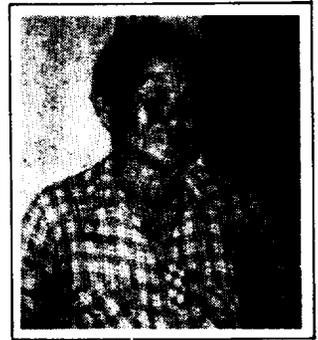
길에서 우연히 만난 마을주민의 소개로 김창용 (男 · 50) 씨를 찾았다. 이 분은 김두일 (男, 78) 씨와 더불어 마을에서는 찾기 힘든 남자 제보자 중의 한 분이다. 가장 자신있게 부르는 노래가 <창부타령>으로, 이 노래를 제일 먼저 부르시고 나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사양하셨다. 그러나 조사자들이 마련하고 간 술을 권하면서 해주실 것을 청하자 <뱃불리는 소리>, <므쉬모는 소리>, <따비질 소리> 등을 흥겹게 불러주셨다. 노래부르는 사이사이 마다 술을 한 잔씩 마시면서 “술 한잔에 시 한 수 떠나가는 김창용이” 하면서 여유를 보이기도 하셨다. 현재 동하동 조합장직을 맡고 계시다.

제보자료 : Ⅲ 1, Ⅲ 2 - 3, Ⅲ 5, V 7

[ 제보자 7 ]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이자생 (女 · 78)



이자생 (女 · 78) 할머니는 조사자들이 6차 조사를 위해 제보자를 찾던 중 우연히 만난 제보자이다.

할머니는 구좌읍 동북리에서 출생하셨고 17세때 같은 마을에 시집오셨다. 할머니께서 37세 되던 해에 4·3사건이 일어나 남편과 자식(1男1女)을 한꺼번에 잃으셨는데, 한 때는 남편이 죽은 것이 믿기지 않아 남편을 찾기 위해 일본까지 갔다 오셨다고 한다. 현재는 양녀로 키운 딸이 부산에 출가해 있다. 발일과 물질을 겪었었는데 이젠 발일만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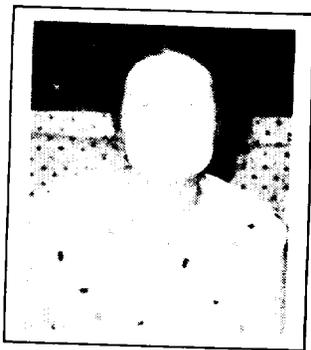
할머니께선 조사에 열심히 응해주셨고 직접 체험하신 4·3사건도 얘기해주셨다. 얘기하시는 중간중간, 벽에 걸려 있는 남편의 사진에 오랫동안 시선을 멈추곤 하셨고 조사가 끝났을 때는 조사원들에게 다시 한번 와 줄 것을 몇 번이나 부탁하셨다. 5차 조사는 그 어느 때의 조사보다도 진지하고 흥겨운 분위기였다.

제보자료 : Ⅲ 3-2, Ⅲ 4, Ⅲ 6-2, Ⅲ 9-3, Ⅲ 11-1, Ⅲ 11-2,  
V 8, VI-(1) 9.

[ 제보자 8 ]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

김완문(女·68)



김완문(女·68) 할머니는 이자생(女·78) 할머니와 함께 우연히 만난 제보자이다.

할머니는 구좌읍 송당리 출생이시고 조천면 눈막에 시집가셨다가 59세 때 다시 구좌읍 동북리에 재출가하셨다. 현재 구좌읍 동북리 이장님의 모친으로, 슬하에 1男2女를 두고 계신다.

할머니께선 몹시 쾌활한 성격을 지니고 계셨고 조사 중간중간 우스개 소리를 곧잘 하셨고 진승동요를 많이 알고 계셨다.

제보자료 : Ⅲ 12, V 9, VI-[1] 2, VI-[1] 3, VI-[1] 4,  
VI-[1] 6, VI-[1] 7, VI-[1] 8.

[ 제보자 9 ]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 1411

김은옥 (女 · 59)



김무생 할아버지의 주선에 의해 이루어진 2차 조사때 만난 김은옥 (女 · 59)씨는 몹시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구좌읍 동북리에서 출생해서 동북리에 출가했으며 슬하에 3男3女の 자녀를 두고 있다. 불질은 13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다. 33세에 거제도에서 1년간 작업한 일이 있다. 조사자들이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청할 때마다 흔쾌히 응해주셨다. 이분은 김대선 (女 · 61)씨와 함께 양영수 (女 · 71) 할머니의 선소리에 이어 주로 훗소리만을 담당했는데 특히 분위기를 흥겹게 이끌어 주셨다. 2차 조사 때는 제보자들이 노래할 때 일어나 춤을 추기도 하셨다. 또 구연과정에서 시작과 끝을 조절하면서 진행을 매끄럽게 이끌어 가셨다. 김은옥씨는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술잎 굵는 소리〉를 불러 주셨다.

제보자료 : Ⅲ 13.

### Ⅲ. 노 동 요

#### 1. 따비질소리

허공산에 남따비아 땅에나 들라 두저~

[ 예구, 더웁은 무사 영 더우니, 참. 무슨 팔자 나 낭 영 남따비질 허렌양,  
우리나 어멍은 어느 때 나 날매 메역국도 먹영 나실거라.]

허공산에 남따비아 땅에나 들라~

[에이, 그 나폴레미거 잘 넘어간다. 태역병탱이도.]

(김창용, 男 · 50)

## 2. 밧불리는 소리

2-1.

A. 어어~ 어러러~ 어어~얼월

월월 여려오오~ 월월하라

B. 월월 어러러~ 어러러~

A. 어라 어어~ 월월하라

B. 월어러러~ 월월

A. <sup>2)</sup>이수장먹던 요물덜아

월월소리에 모여들라

어러러~ 아아월월하라

B. 월월 워러러~

A. 오닐 흐를 걸어그네

일년열두들 삼백육십오일 먹고살을 군랑이여

월허얼

B. 월어러러~

A. 동녁전에 <sup>3)</sup>코알렁물 2튼

저물강 막아오라

어러러~어~ 월월하러

B. 월어러러~

A. 청산백호 여수항구내에

분광유수가 되었으니

어하이월하월

B. 월월 어려려~

A. 월월소리가	노피난다
어려~어	어려~오
어려려~	월월하려

B. 월월어려려~

A. 아니놀앙	무엇하랴
월허~얼	월월위얼

A : (양영수, 女 · 71)

2 - 2.

월월 월월월 이러러러~ 월러럴~러

요몰덜아           흔저흔저걸라

오뉴월더운데       흔저흔저걸엉

밧도나               흔저불리게

월월 월월월

월월 월월월 어러러러~ 월러럴~러

이수장에서       놀던몰덜아

저수장에나왕     볼도나먹곡

출도나먹곡       허는구나

월월 월월월월 월월랄랄

산천초목           짧아나지고

요내               서방님은

소복소복           늪어나간다.

월월월월 [ 히히히히히힝! ] 워러러러~

간다간다           되돌아간다.

월월 월월월 어러러러~월월 [ 허허허허형 ]

속님속님마다 꽃도나피고

올매도 열고

우리인생은흔번가면 다시뵈오는구나

월월 워러러러~ 월월 월월랄러

(양금녀, 女 · 48)

2-3.

어러어어~어러러~요물들아

제발자국 제자국에 풀풀블라 혼저 밧디랑 머리에 나가게 어어어

어러어~ 월월

동북산전에 먹든 요물덜아

어러러 월월 어어러러러러

[ 와~, 저놈의 몰 참 저거 흥나가 말안들엄서 매치젠 햅져이. ]

어러러 얼월월월

[ 이거 동넛님 몰 잘 봄서, 센역더래 ]

제발자국 제자국에 잘 돌아가는구나

어어~

어어어 월월

[ 에, 조두걸림 조 잘 여물키여, 팽팽 불라노난. ]

(김창용, 男 · 50)

2-4.

A. 월월~ 월러러~ 월월~ 월월~

월월~ 어러러 어허어어~ 에헤에야

B. 월월~ 월월~

- A. 월월~하민 돌아나온다.  
 월월 월랄랄 월월~ 월월하야  
 월월하민 돌아나온다.  
 에헤에에 헤에헤야  
 월월~ 월월~
- B. 월월~ 월월~  
 워러러 월월~
- A. 에리더나 허어이  
 어허이 월월
- B. 월월~ 월월~
- A. 이물덜아 혼저글라  
 오늘하를 걸으민  
 일년열두들 삼백육십오일  
 우워~ 먹고살거로다  
 어형어 월월
- B. 월월~ 월월~
- A. 청산백호 여수항구내에  
 물광유수가 되었으니
- B. 월월 월월워러월월  
 월월~ 월월~
- A. 아니노지는 못느리다.  
 어허~흥 월월허~
- B. 월월~ 월워러러월
- A. 이산저산 양산중에 에야흥  
 울고안자 곡상애로다  
 월월 월월하려

- B. 월월~            월러러월월  
A. 요 밧데           조랑볼리건 어허  
   나무랑            구리때되꼭  
   무췌으름          쫄으름어허홍  
B. 월월~            월월위러러월월  
A. 월월~ (와와) 위러러월월  
B. 월월~            월월~  
A. 월월소리에      노피나난다  
   어허야월월      어허월월  
   먼디사름        듣기나조케  
B. 월월~            월월~  
A. 월월            월허려려  
   에헤에야        어허월월  
   월월허민        돌아나난다  
B. 월월~            월월~  
A. 월월            월허려려  
   월월월~  
B. 저물막으라      저물막으라  
A. 월월~            월월~

A : ( 양영수 女 · 71 )

B : ( 김은옥 女 · 59 )

( 김대선 女 · 61 )

### 3. 검질매는 소리

3-1.

- |                       |                    |
|-----------------------|--------------------|
| A. 에앵어야               | 디아로다               |
| B. 앵헤에야               | 디아로다               |
| A. 앵명에랑               | 들어나오라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뒤명에랑               | 나고나가라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소리라근               | 느직느직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검질손은               | 즈직즈직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띄미꽃인 <sup>4)</sup> | 뽕남도좋아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니여내영               | 상대선지성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니여내영               | 중대선지성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이불에랑               | 이사공아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고불에는               | 고사공아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허릿대밑에              | 화정눔아 <sup>5)</sup>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망반부뜯               | 털벌림에               |

B. 에헤에야	디아로다
A. 잣만부뜯	현오장에
B. 에헤에야	디아로다
A. 깡만부뜯	현초신에
B. 에헤에야	디아로다
A. 잣만부뜯	남조대에 <sup>6)</sup>
B. 에헤에야	디아로다
A. 북만딩딩	치영깨라
B. 에헤에야	디아로다
A. 진도바당	골로간다
B. 에헤에야	디아로다
A. 우리배는	잼도재다
B. 에헤에야	디아로다
A. 춤매새끼	늑는듯이
B. 에헤에야	디아로다
A. 늑의배는	똥도뜨다
B. 에헤에야	디아로다
A. 서물아래	굴땡이기듯
B. 에헤에야	디아로다
A. 우리배가	가는되랑
B. 에헤에야	디아로다
A. 매역좋은	웅덩게로
B. 에헤에야	디아로다
A. 늑의배가	가는되랑
B. 에헤에야	디아로다
A. 관태좋은	관태골로

- B. 에헤에야      디야로다  
 A : (양영수 女 · 78)  
 B : (김은옥 女 · 59) 外 4명

3 - 2.

- A. 검질짓곡      굴너른बाट디  
 B. 아하아양      에헤양 어허요  
 A. 앞명에야      어서오라  
     뒷명에랑      물리나사라  
 B. 아하아양      에헤양 어허요  
 A. 흔저가민      앞명에가카  
     검질을매자  
 B. 아하아양      에헤양 어허요  
 A. 누가잘매고      누가못매면  
     어서앞명으로      빨리가자  
 B. 아하아양      에헤양 어허요  
 A. 우리인간      어서매영  
     앞명으로      가자흔다  
 B. 아하아양      에헤양 어허요  
 A. 흔소리두쭈반씩      매어나보자  
 B. 아하아양      에헤양 어허요  
 A. 즈직즈직      노래부르멍  
     요검질을      버칠소나  
 B. 아하아양      에헤양 어허요  
 A. 앞명에랑      뒤로나오라  
     뒷명에랑      나아가자

- |         |                    |
|---------|--------------------|
| B. 아하아양 | 에헤양 어허요            |
| A. 나놀래랑 | 놀고나가자              |
| 나놀래랑    | 자고나가자              |
| B. 아하아양 | 에헤양 어허요            |
| A. 놀아질땐 | 놀아보자               |
| 늪어나지면   | 못노리라               |
|         | A : ( 이자생 女 · 78 ) |
|         | B : ( 김완문 女 · 68 ) |

3 - 3.

- |         |        |
|---------|--------|
| A. 앵헤야  | 디아로다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검질갓곡 | 굴너른밭디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사테로는 | 우기명가자.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소리리근 | 느적느적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검질손은 | 즌적즌적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혼소리에 | 두춤반씩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혼소리에 | 석춤반씩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어서땡강 | 앞명에가자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           |         |
|-----------|---------|
| A. 요걸일이엔  | 허지를마라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허다남은   | 일이로구나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스무나몬   | 설나몬적엔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입산남도 ㄷ | 휘어돈내야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어제 청춘  | 오늘백발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청춘이    | 갈줄을알았다면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청사홍사로  | 절박허길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백발이    | 오실줄알았다면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십리밖에   | 성이나싸길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돌아와요   | 내청춘아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어기야디아  | 산이로구나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산이노파   | 못오시면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차를타고   | 돌아와요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                       |                     |
|-----------------------|---------------------|
| A. 물이지퍼               | 못 오시면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배를타고               | 돌아와요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품미불렁 <sup>8)</sup> | 흔시름쉬곡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사대불렁               | 흔시름세곡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시름이나               | 쉬영가자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어기야디여              | 산이로구나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한르산상상봉             | 외로난소남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누구를믿고              | 저리안자잇노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밤이나낮이나             | 임 ㄱ치안장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처 랑허게도             | 안저잇네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석상우에               | 나시던매화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일로다가               | 옥중에심건 <sup>9)</sup>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아침저녁               | 물주멍키완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A. 제뭉이성	이성당후난 <sup>10)</sup>
B. 앵혜야	디야로다
A. 날인줄을	모르는구나
B. 앵혜야	디야로다
A. 어기농창	방애로다
B. 앵혜야	디야로다
A. 요방에가	웬방에나
B. 앵혜야	디야로다
A. 강태공이	조자게방에
B. 앵혜야	디야로다
A. 요방에른	혹어신방에
B. 앵혜야	디야로다
A. 혹을돌랑	지어나보자
B. 앵혜야	디야로다
A. 가시오름	강당장침이
B. 앵혜야	디야로다
A. 세쿨방에	새글럼서라
B. 앵혜야	디야로다
A. 전생구진	이몸이가난
B. 앵혜야	디야로다
A. 다섯쿨도	새맞아온다
B. 앵혜야	디야로다
A. ㄱ랑줍숯	늑어시먹엉
B. 앵혜야	디야로다
A. 놈의어멍	말어시산다
B. 앵혜야	디야로다

A. 어기야디야 산이로구나

B. 앵헤야 디야로다

A. (양영수 女 · 71)

B. (김은옥 女 · 59)

(김대선 女 · 61)

#### 4. 마당질 소리

A. 어기야 흥

B. 어기야 흥

A. 에야도 하야

B. 어야도 하야

A. 어는제 랑

B. 어는제 랑

A. 요앞은 누게앗고

B. 요앞은 누게앗고

A. 설룬정네

B. 설룬정네

A. 앞이로구나

B. 앞이로구나

A. 에야도 하야

B. 어야도 하야

A. 믱를믹를

B. 믱를믹를

A. 음나 믱를

B. 음나 믱를

- A. 뭉록뭉록
- B. 뭉록뭉록
- A. 매여나노라
- B. 매여나노라
- A. 에야도하야
- B. 에야도하야
- A. 어기야 흥
- B. 어기야 흥
- A. 흥미를랑 쉬고가자
- B. 흥미를랑 쉬고가자
- A. 에야도 하야
- B. 에야 흥
- A. 어기야 흥
- B. 어기야 흥
- A. 흥아미를 뭉록뭉록
- B. 뭉록뭉록
- A. 흥미를랑
- B. 흥미를랑
- A. 놀고나가자
- B. 놀고나가자
- A. 흥미를랑
- B. 흥미를랑
- A. 쉬고나가자
- B. 쉬고나가자
- A. 매여노라
- B. 매여노라

- A. 두드려노라
- B. 두디려노라
- A. 에야도 하야
- B. 에야도 하야
- A. 조코고리 그차나지라
- B. 그차나지라
- A. 혼도막에
- B. 혼도막에
- A. 모사나지라
- B. 모사나지라
- A. 믱를믱를
- B. 믱를믱를
- A. 매여나놓자
- B. 매여나놓자
- A. 에야도 하야
- B. 에야도 하야
- A. 어가 흥
- B. 어가 흥
- A. 에야도 하야도
- B. 에야도 하야도
- A. 혼믱를랑
- B. 혼믱를랑
- A. 누게앗곡
- B. 누게앗곡
- A. 설문정네
- B. 설문정네

A. 앞이로고나

B. 앞이로고나

A. 내앞으로 두디령가자

B. 내앞으로 두디령가자

A. 어요 하야

B. 어요 하야

A. 어가 흥

B. 어가 흥

A : (이자생 女 · 78)

B : (김완분 女 · 68)

## 5 . ㅁ쉬모는 소리

어려려어어어 어려려어 어려려려려어어 어허어려어 어려려려

[ 어, 저 물 보라 만날 저놈의 물은 그자 배식배식, 저거 또 흘 대  
맞아야키여 요녀리 몽둥이로. 와, 와, 와! 저 물 또 어디레 감시 저거,  
와! ]

어려 어려려려어어어 어려려

[ 저 놈의 물 자꾸 보리밭 엠더레만 냄새맡청, 어! 매쳐! ]

어어어어 어려려려 어허허허 어려.

(김창용 男 · 50)

## 6 . ㄹ레ㄹ는 소리

6 - 1

A. 이어이여 이어도허라

B. 이어이여 이어도허라

- |                        |                      |
|------------------------|----------------------|
| A. 날이엇언                | 구월이라나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들이엇언                | 구월이라나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전생구즌                | 구월에나난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구엿곳이 <sup>11)</sup> | 벗이로구나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전생팔즈                | 긋어랜이몸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만종고절에               | 불싸레가난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심지엇인                | 옥동엿불이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동사방에                | 흰허엇고나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삼당총당                | 벨종당농안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짓언보난                | 우넘당이여 <sup>12)</sup>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늬이운덜                | 나울렌헌게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울언보난                | 선목이리라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씨누이야      씨가령말라  
 B.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A. 느도가민      씨넉의간다  
 B.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A. 나도가른      어멍광아방  
 B.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A. 백년동계<sup>13)</sup>      매맞아본다.  
 B.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양영수, 女·71)

6 - 2.

- A. ㄱ레ㄱ레 요ㄱ레야      지난허곡      좁좁헌      요ㄱ레야  
 어서나콜아브라      이여이여도허라  
 B. 이여이여      이여도ㄱ레  
 A. ㄱ레도 배연      언제민      다      콜아지코  
 이여도ㄱ레야 어~  
 B. 이여이여      이여도ㄱ레  
 A. 배연      언제나      요ㄱ레도      배영콜아지코      이여도ㄱ레야      어어~  
 지난허고      지난헌      ㄱ레로구나      이여  
 B. 이여이여      이여도ㄱ레  
 A. ㄱ레소리도      칭이서사      좋을건디      연연하구나  
 내칭이      어선      아니되켜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B. 이여이여      이여도ㄱ레  
 A. ㄱ레도      영도배민      어평      이기영      콜아지코  
 이여도ㄱ레  
 B. 이여이여      저녁이나      붉은때      허라

- 본디 어둡는집에            오닐이엥 붉은때허라
- A. 간들간들 꼴아도            버천에 다 못ㄴ는구나  
어어~ 이여도허라
- B. 이여이여            이여도ㄴ레
- A. ㄴ레도 버천에            지난허고 지난헌다  
이여도ㄴ레야

A : (이자생 女 · 78)

B : (김완문 女 · 68)

6 - 3.

- A.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 B.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 A.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 B.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 A. 길ㄴ집에            도실낭심건
- B.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 A. 씨냐드냐            맛볼인셔도
- B.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 A. 지녕살인            하나이어서
- B.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 A. 질ㄴ집의            정ㄴ레소리
- B. 남당췌기떡            훈착발앙
- 종달리 갔다오는            발뱅이 나고
- 나 죽어진들            이여도허라
- A. 산에가민            설장끼소리
- B.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 A. 집인들민            씨어멍소리  
 B.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A. 귀에쟁쟁            열리어서라  
 B.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B.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어기야디아        ㄹ레로구나  
                           A : (양일생 女 · 81)  
                           B : (이경봉 女 · 76)

6 - 4.

- A. 이여어어 이여어어~ 이여도하라  
 B. 이여어어~ 이여 이여어어~도하라  
       이여어어~도하라  
 A. 이여어어~ 이여어 이여어어~도  
       ㄹ레가 돌아나오라  
       이여어어~도하라 이여어어~도하라  
 B. 이여어어~ 이여어어~ 이여어도하라  
 A. 흐를밤인            밀닷밭꼴안  
       품삘을            주는건보난  
       남당췌기떡<sup>14)</sup>    식개받아다가  
       시아버님            흐나드리고  
       시어머님            흐나드리고  
       훈착하나는        또끼벌렁  
       님훈착내훈착    먹으니  
       맛도나 좋드라    이여도하라  
                           A : (이경봉 女 · 76)  
                           B : (양일생 女 · 81)

## 7. 방에짙는 소리

7 - 1.

이연이여	이여도방애
이연이여	이여도허라
꺾랑좁쌀	늑어시먹영
늑의어멍	말어시산다
이연이여	이여도허라
지서명광	오름엿들은
등글다도	살을메난다
늑의첩광	소낭엿브름
소린나도	살을메엇나
가시오름	강당장침의
쇠콜방애	새글럼서라
전생구진	이몸이가난
대여키도	새맛아온다
이연이여	이여도허라
설룬정네	들어나보라
상사감도	다살앗구나
하사감도	다살앗구나
이연이여	이여도허라
이여방애	고들배지영
저녁인들	붉은제허라
조반도사	늦어란집의
저녁인들	붉은제허라
이연이여	이여도허라

요방애가  
강태공의  
요방애는  
혹을돌라  
이연이여  
어린애기  
어린낭군  
흔저저녁  
이연이여

웬방애나  
조자기방애  
혹어신방애  
짚어나보자  
이여도하라  
젓주어두고  
좀깨와두엿  
해여사허컬  
이여도하라

( 양영수, 女 · 71 )

7 - 2.

A.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가시오름  
강당장칩이  
세 쫄방애  
새글러서라  
전성구진  
이몸은가난  
대여키도

B.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가시오름  
강당장칩이  
세 쫄방애  
새글러서라  
전성구진  
이몸은가난  
대여키도

A. 새맞아온다

상사감도  
 다살앗구나  
 하사감도  
 다살앗구나  
 이여이여  
 이여도 허라  
 ㄱ랑줍썰  
 녀어시떡멍  
 놉의어멍  
 말어시산다  
 다심어멍  
 개년의뜰년  
 검은공지<sup>15)</sup>  
 개주어두멍  
 흰공즈로  
 날바래더라  
 이여도 허라  
 이여이여  
 이여도 허라  
 성님성님  
 스춘성님  
 시집살이  
 어평헛데강  
 아고야야  
 말도말라

B. 새맞아온다

상사감도  
 다살앗구나  
 하사감도  
 다살앗구나  
 이여이여  
 이여도 허라  
 ㄱ랑줍썰  
 녀어시떡멍  
 놉의어멍  
 말어시산다  
 다심어멍  
 개년의뜰년  
 검은공지  
 개주어두멍  
 흰공즈로  
 날바래더라  
 이여도 허라  
 이여이여  
 이여도 허라  
 성님성님  
 스춘성님  
 시집살이  
 어평헛데강  
 아고야야  
 말도말라

A. 암 특 2 뜯  
 씨어멍에  
 장독 2 뜯  
 씨아방에  
 뭉게 발 2 뜯  
 서방님에  
 모질이닭은  
 씨누이에  
 시집살이  
 살젠형계  
 행기치매  
 다젓어저도  
 대한질이  
 눈물이러라  
 고초당초가  
 매웁다흔들  
 시집오랑  
 더매와서라  
 흐룻밤인  
 밀닷말꼴앙  
 주억상웨  
 다섯이러라  
 시아바님  
 둘디려두곡  
 시어멍네  
 둘디려두곡

B. 암 특 2 뜯  
 씨어멍에  
 장독 2 뜯  
 씨아방에  
 뭉게 발 2 뜯  
 서방님에  
 모질이닭은  
 씨누이에  
 시집살이  
 살젠형계  
 행기치매  
 다젓어저도  
 대한질이  
 눈물이러라  
 고초당초가  
 매웁다흔들  
 시집오랑  
 더매와서라  
 흐룻밤인  
 밀닷말꼴앙  
 주억상웨  
 다섯이러라  
 시아바님  
 둘디려두곡  
 시어멍네  
 둘디려두곡

- |                                   |                                   |
|-----------------------------------|-----------------------------------|
| A. 임광나는<br>흔착이더라<br>이여이여<br>이여도흐라 | B. 임광나는<br>흔착이더라<br>이여이여<br>이여도흐라 |
|-----------------------------------|-----------------------------------|

A. (양영수 女 · 71)

B. (김은옥 女 · 59)

(김대선 女 · 61)

## 8. 물질 소리

- |   |  |
|---|--|
| A. 이여싸<br>이여라차나<br>저바당에<br>은과금을<br>걸렸건만<br>높은남에<br>올매나같이<br>보아도<br>못먹는<br>네로구나<br>쳐라쳐라<br>어서나가자<br>동세에가자<br>섯세에가자<br>쌀물에는<br>동해바당 | B. 이여싸<br>이여라차나<br>이여차<br>이여차<br>이여차<br>이여차<br>이여라차라<br>이여차<br>이여도싸<br>이여나차라<br>쳐라쳐라<br>이여도싸<br>이여도사나<br>이여싸<br>이여도싸<br>이여도싸 |
|---|--|

A. 들물에는  
 서해 바당  
 어서속히  
 차고가자  
 이여라차나  
 요돈을  
 언제 나면  
 많이나벌영  
 남과같이  
 살아나보심  
 이여라차라  
 처라처라  
 어기야처라  
 메역조물레  
 가젠 흥민  
 동세 훈물  
 셋세 두물  
 어서속히  
 가나보세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우리나라어멍  
 날날적에  
 무슨날에  
 나를놓고  
 바다중사

B. 이여도싸  
 이여차  
 어기야디아  
 이여라차라  
 이여라차나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  
 어여싸  
 이여싸  
 이여라차나  
 처라처라  
 어여라차나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  
 어야디아  
 이여도싸  
 이여도싸  
 어여디아  
 이여도차  
 이여도싸  
 이여도싸  
 이여싸  
 이여도싸

- |        |         |
|--------|---------|
| A. 허게나 | B. 이어도싸 |
| 낱는고    | 이어도싸    |
| 이여라차나  | 이어도차나   |
| 이여라차나  | 이어도싸    |
| 이십스물   | 이어싸     |
| 설라쿤에   | 잘돌아간다   |
| 요내착을   | 이어차     |
| 남을주라   | 남을주라    |
| 이어도싸나  | 이어나차라   |
| 쳐라쳐라   | 쳐라쳐라    |

[ 아이고 메역 조물게 / ]

A : ( 양옥녀 女 · 51 )

B : ( 김은옥 女 · 59 ) 外 4 명

## 9 . 흥애기 소리

9 - 1 .

- A. 예야디아 어~ 흥애로다어어~  
    흥애산이      불이로구나
- B. 예야아아~ 예야어  
    어이오오   어기여어어영   어야어어야디아
- A. 어조리비조리에   한탈남밖  
    서천은           징게 드리여
- B. 어기야어어~   어어~어기도오야  
    어기농창어      흥애로다어어~

- 홍애 산이            불이로구나
- A. 어여어어~어기야어어    홍애로구나  
       이 산저산            양산중에  
       울고앉아            곡산이로다
- B. 이여어어~    어어~기야    어어~구나
- A. 어젯 날은            청춘이요  
       오늘 날은            백발이 된다.
- B. 구신의            차사소리도  
       곡이거꺼            가는구나  
       어어~어어~어기야아아구나
- A. 청춘이갈줄을    알았다면  
       청사홍사로            절박착성허여두킬
- B. 이야홍소리가    넘어가구나  
       아아에에            어어~홍애야
- A. 백발이오실줄을    알았다면  
       십리밖에            가시성을쌓아두킬
- B. 어느동안        백발이 된다.  
       백발이            되는구나
- A. 일월 ㄹ든        성공님네  
       어서땡강            놀고가세
- A : ( 양영수 女 · 71 )  
 B : ( 양일생 女 · 81 )

9 - 2 .

어기여디여허            홍애로당어어~  
 홍애 산이                불이로구나

광주월산	줄불낫네어이허어
계명산천	다북어진다
어조리	비조리에어
한탈남밧서친은	징게도리여
아즌백이	신들리가
들어탕천	느려진다
일월 ㄹ ㄷ	성공님네
어서댕강	놀고나가세
칠팔월	하늬 ㅂ름은
어디갓당	돌아나오려
어기여디여어	홍애로당어어
홍애산애	불이로구나
날만못논	정네도살고
날만못논	시네도산데
어떤즈빈	만복을재경
어멍아방	훈반에논다 <sup>16)</sup>
어강칭청어허	관원장은
훈곡내곡	놀고나가네
훈 ㅂ를랑	놀고가고
훈 ㅂ를랑	쉬고나가자
해다지고	점근날애
꿀목꿀목	연기가난다
어기야디여어	산이로다어어어어
어기영	허어어랑
산의조종은어	한 ㄹ영산
물의조종은	황해수라

어기야디여어	홍애로다어어~
홍애산에	불이로구나
요런날에	요런일허게
성도언만 <sup>17)</sup>	가시영가렌
에기농창어	사테로다어어~
사대소릴	두고가자

(양영수, 女 · 71)

9 - 3.

홍애기야 언제민 / 이출을 다베코  
 선소리로 홍애기로 / 넘어가자  
 홍애기야 홍애기야  
 언제민 사랑에 버친  
 우리 하늬브롬이 돌아오코  
 한서방이 하늬브롬이로구나  
 홍애기야 홍애기야 / 하늬브롬 한서방아  
 어서나 사랑사랑 / 불어온다  
 어기야차차  
 소리로나 요늬의 출을  
 이기영가카 어어~  
 어기여차 하늬브롬아  
 어딴을 요청춘을 다보내던고  
 어기야차차 잘논다  
 홍애기야 하늬브롬 홍애기야  
 어디나가고 철철이 돌아온다  
 어기야차나

하늬하늬 사랑사랑  
하늬브롬이 돌아온다

(이자생 女 · 78)

## 10. 멍긴못는 소리

10-1.

이년이년	이년맹긴
훈코두코	삼백예순코
어서못앙	어서육장보자
이년이년	이녀도후라
요녀리	시집을
살젠허니	이년이년
고치보단도	더매웁다이년이년
아이고시누이는	촉새 ㄱ치
이레착	저레착
어찌요렇게	요시집을 살코이년이년
몽게발닭은	서방에
우럭닭은	씨아방에
덕우이야자도	씨어멍타령에
어서	말을몰라
삼년을	살고보니

[ 친정더레 서방이 도라가부는 거우다. 말 몰르는 거메 도라가불  
켄. ]

핑은	파트등이늑난
아이고 이핑저핑	조진핑

가심썩는	가심술랑
서방님	주고
우르륵우르륵허는	머리뺨이랑
시아버님	주곡
박박끓는	발랑
시어머님	주곡
성님성님	스춘성님
시집살이가	어떻헛데강
아이고서룬동생아	말도말라
고치보다도	더매웁고
못살키여	

(이경봉, 女 · 78)

10-2.

A. 혼들육장	시백인망근
둘막둘막	못아나지라
B. 이년이년	이녀도허라
이년망근	못아나지라
A. 성님성님	스춘성님
시집살이	어뻘데가
B. 이년이년	이녀도허라
이년망근	못아나지라
A. 궂도말곡	이르도말라
시아는딸은	못살커라라
B. 이년이년	이녀도허라
이년망근	못아나지라

- |           |         |
|-----------|---------|
| A. 고추당추   | 매 읊덴 혼덜 |
| 시집살이보다    | 더매울소나   |
| B. 이년이년   | 이녀도 허라  |
| 이년망긴      | 못아나지라   |
| A. 양지박박   | 얼근놈아    |
| 밥상받앙      | 앗지말라    |
| B. 이년이년   | 이녀도 허라  |
| 이년망긴      | 못아나지라   |
| A. 느네각시   | 애기업엉    |
| 한질더례      | 들암서라    |
| B. 이년이년   | 이녀도 허라  |
| 이년망긴      | 못아나지라   |
| A. 어느만큼   | 들암십데가   |
| 감태동산      | 들암서라    |
| B. 이년이년   | 이녀도 허라  |
| 이년망긴      | 못아나지라   |
| A. 장독 ㄱ뜬  | 씨아바님에   |
| 암푹 ㄱ뜬     | 씨어멍에    |
| B. 이년이년   | 이녀도 허라  |
| 이년망근      | 못아나지라   |
| A. 코생이 ㄱ뜬 | 씨누이에    |
| 우럭 ㄱ뜬     | 씨아지방에   |
| B. 이년이년   | 이녀도 허라  |
| 이년망근      | 못아나지라   |
| A. 물꾸럭 ㄱ뜬 | 서방님에    |
| 나뭇살키여     | 나뭇살키여   |

B. 이년이년	이녀도호라
이년망근	못아나지라
A. 한산모시	열두뾰치마
시집갈때	해어나준거
B. 이년이년	이녀도호라
이년망근	못아나지라
A. 살렛발에	걸어듬서
오명가명	눈물떨어
B. 이년이년	이녀도호라
이년망긴	못아나지라
A. 오명가명	눈물떨어
다~	씩어감서라
B. 이년이년	이녀도호라
이년망긴	못아나지라

A : (양금녀 女 · 48)

B : (양옥녀 女 · 51)

10-3.

이년이녀	이녀이녀
흐코두코	9맹긴코시정을
삼백예순두코	언제미장
흐달육장불것고	이녀이녀
이맹긴미장	풀아야
좁쌀흐말에	닷냥씩허는거
반앙먹을거로구나	

(이경봉 女 · 78)

## 11 . 시집살이 노래

### 11 - 1.

성님성님	스춘성님
성님은	시집살이가 어쩔데가
암퇘기	시어멍에
장독기	시아방에
뭉게기	서방님에
모질이기	시누이에
살젠허난	낭패가되고
눈물이	흠물되고
흠물눈물	쌀당보난
서방은	보난
뭉게기	영급젠 만허고
시누이	테는
벼룩이	닷되고
이가	닷되허엿겨

(이자생 女 · 78)

### 11 - 2.

성님성님	시집살이가 어쩔데가
스춘성님은	살기가불행해연
고생을	해여도
난	아무리라도
암퇘기	시어멍에

장독 두드	시아방에
살젠허난	고생이되언
지서명광	오름엿들은
둥글당도	살을메나고
늪의첩은	소낭윗 빚름으로
부림만해영	빚름맞추네

(이자생 女 · 78)

## 12. 불미소리

푸닥딱	푸닥딱
푸르락	푹딱
울지말라	이불미해영강
떡사주마	
고운떡을	먹을티야
진떡을	먹을티야

(김완문 女 · 68)

## 13. 술입긋으는 소리

술입아 재기재기 긋어나지라  
 혼자 보달청 집의 가그네 점심먹영  
 오늘 열 보달<sup>8)</sup> 견영가사  
 내일 다른 일 헐 거 아니가  
 물에 들곡 검질매곡 헐 거 아니가

(김은옥, 女 · 59)

## Ⅳ. 의 식 요

### 1. 꽃염불

A.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A.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못오는            인생이로다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A. 인생살이                허무하구나  
    우리인생이            허무하구나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A. 한번가면                못오는세상  
    인생살이가            허무하다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A. 오늘살다                별가시던날  
    깨던밥도              다놓아두고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A. 존입성도                필요가없고  
    좋은집도야            허스가되고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 A. 열령가자      열려나주자  
 영신영가를      열려나주자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 A. 어머님아      아버님아  
 불쌍하신      어머님아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 A. 이세상을      하직을허고  
 저세상으로      가는길에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 A. 고생하신      원한을풀고  
 살아실적에      못다쓰고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 A. 영혼영신      영가께서  
 팔만스천      두간지옥을열려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 A. 열려열려      열려나가자  
 저승사자님에      열려나주자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 A. 저성황천                   가시드래도  
아픈가슴을                   다열립서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 A. 어머니가                   저를낳아줄적  
고생도나                   많이하시교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 A. 불쌍하신                   영혼영신  
가련하신                   영신영가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 A. 영혼영신                   고생한예를  
저가저가                   잘압니다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 A. 가슴에다                   피묻은것을  
설설설설                   헤청감서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양금녀, 女·48)

## 2. 늦은 염불

- A. 어허야                   어허~어야  
니나노난실로               내가돌아간다

- |                    |                 |
|--------------------|-----------------|
| B. 에헤~헤야<br>니나노난실로 | 어허~어야<br>내가돌아간다 |
| A. 청춘이라<br>늙지덜이나   | 가 지나말고<br>말어나주소 |
| B. 에헤~헤야<br>니나노난실로 | 어허~어야<br>내가돌아간다 |
| A. 인생살이<br>오늘살면    | 허무하구나<br>내일가시고  |
| B. 에헤~헤야<br>니나노난실로 | 어허~어야<br>염불이로다  |
| A. 염불로나<br>염불소리에   | 극락을가서<br>승천하고   |
| B. 에헤~헤야<br>니나노난실로 | 어허~어야<br>염불로놀자  |
| A. 간다간다<br>죽어지면    | 내돌아간다<br>허스가되고  |
| B. 에헤~헤야<br>니나노난실로 | 어허~어야<br>염불로가자. |

A : ( 양금녀 女 · 48 )

B : ( 양옥녀 女 · 51 )

### 3. 달구 소리

- |         |       |
|---------|-------|
| A. 어허~야 | 달구    |
| B. 어허야  | 달구    |
| A. 인생살이 | 허무하구나 |

- |          |         |
|----------|---------|
| B. 어허~야  | 달구      |
| A. 죽어지면  | 허소가 되고  |
| B. 어허~야  | 달구      |
| A. 인생살이  | 허무하다    |
| B. 어허~야  | 달구      |
| A. 오닐가면  | 하직이로다   |
| B. 어허~야  | 달구      |
| A. 인생일장이 | 요렇게허무하다 |
| B. 어허~야  | 달구      |

A : (양금녀 女 · 48)

B : (양옥녀 女 · 51)

## V. 타 령 류

### 1. 오돌또기

- |            |          |
|------------|----------|
| A. 오돌또기    | 저기춘향나온다  |
| 달도밝고       | 내가머리로갈꺼나 |
| B. 둥그테당실   | 둥그테당실    |
| 여도당실       | 연자머리로    |
| 달도밝고       | 내가머리로갈꺼나 |
| A. 한라산중허리에 | 시르미익은승만승 |
| 서귀포해녀가     | 바당에든성만성  |
| B. 둥그테당실   | 둥그테당실    |
| 여도당실       | 연자머리로    |

- |            |            |
|------------|------------|
| 달도 밝고      | 내가머리로갈꺼나   |
| A. 가면은가고요  | 말면은말았지     |
| 초신을신영      | 시집을가렌말이파   |
| B. 둥그데당실   | 둥그데당실      |
| 여도당실       | 연자머리로      |
| 달도 밝고      | 내가머리로갈꺼나   |
| A. 제주야한라산  | 고사리맛도좋고종고  |
| 산지야축항끝에    | 뱃고동소리만조타조타 |
| B. 둥그데당실   | 둥그데당실      |
| 여도당실       | 연자머리로      |
| 달도 밝고      | 내가머리로갈꺼나   |
| A. 성산포양어장에 | 승어가편승만승    |
| 청출밭디       | 몽아지뛰고야논다   |
| B. 둥그데당실   | 둥그데당실      |
| 여도당실       | 연자머리로      |
| 달도 밝고      | 내가머리로갈꺼나   |
| A. 청사초롱    | 불밝혀들고      |
| 춘향이        | 방으로        |
| 감돌아        | 드는구나       |
| B. 둥그데당실   | 둥그데당실      |
| 여도당실       | 연자머리로      |
| 달도 밝고      | 내가머리로갈꺼나   |
| A. 가면가고    | 말면은말지      |
| 내홀로        | 살다가선       |
| 인생을        | 바렸는구나      |
| B. 둥그데당실   | 둥그데당실      |

여도당실	연자머리로
달도밝고	내가머리로갈꺼나
A. 산에가면	목동의노래요
바당에가면은	줄수의노래로다
B. 둥그데당실	둥그데당실
여도당실	연자머리로
달도밝고	내가머리로갈꺼나

A : (양금녀 女 · 48)

B : (양옥녀 女 · 51)

## 2. 이 야 흥

A. 이야흥 소리에	정떨어졌구나
B. 이야흥 야~흥	그렇구말구요
이야흥 야~흥	다꼴을말이나
A. 한라산 상상봉	노프고노픈봉
이야흥	백록담이라
B. 이야흥	그렇구말구요
A. 천지연들밤에	은어노는구경이
이야흥	좋기도좋구나
B. 이야흥 야~흥	그렇구말구요
이야흥 야~흥	다꼴을말이나
A. 성산일출봉	야경주로다
B. 이야흥 야~흥	그렇구말구요
이야흥 야~흥	다꼴을말이나
A. 고랑부삼성에	나오신그곳은

- |    |          |         |
|----|----------|---------|
|    | 이아흥      | 삼성혈이라   |
| B. | 이아흥 야~흥  | 그렇구말구요  |
|    | 이아흥 야~흥  | 다꼴을말이나  |
| A. | 사미봉안고도는  | 웨둘깨전경이  |
|    | 이아흥      | 좋기도좋구나  |
| B. | 이아흥 야~흥  | 그렇구말구요  |
|    | 이아흥 야~흥  | 다꼴을말이나  |
| A. | 산굼부리사냥터에 | 노루가뛰고놀고 |
|    | 이아흥      | 좋기도좋구나  |
| B. | 이아흥 야~흥  | 그렇구말구요  |
|    | 이아흥 야~흥  | 다꼴을말이나  |
| A. | 절부암절경에   | 부서지는절소리 |
|    | 이아흥      | 처량도하구나  |
| B. | 이아흥 야~흥  | 그렇구말구요  |
|    | 이아흥 야~흥  | 다꼴을말이나  |
| A. | 고내봉연화뭇이  | 시름뜯는강태공 |
|    | 이아흥      | 썩쓸도하구나  |
| B. | 이아흥 야~흥  | 그렇구말구요  |
|    | 이아흥 야~흥  | 다꼴을말이나  |
| A. | 용연야밤에    | 노젓는뱃사공  |
|    | 이아흥      | 처량도하구나  |
| B. | 이아흥 야~흥  | 그렇구말구요  |
|    | 이아흥 야~흥  | 다꼴을말이나  |
| A. | 월대에노송아래  | 선유하는노루가 |
|    | 이아흥      | 처량도하구나  |
| B. | 이아흥 야~흥  | 그렇구말구요  |

이야흥 야~흥 다꼴을말이나

A : (양금녀 女 · 48)

B : (양옥녀 女 · 51)

### 3. 영주십경가

3-1.

- A. 여기여기는 제주나돈데 옛날옛적과거지사애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 A. 탐라국으로 이름높아 삼신산도 안개나속에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 A. 사시절 명승지로다 한라산이나 명승지로다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 A. 성산포 일출봉에는 해뜨는구경도 마냥좋다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 A. 사라봉 뒷산에는 해지는구경도 마냥좋다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 A. 사시절 명승지로다 한라산이나 명승지로다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 A. 고수에 저말들은 사랑만도 짜고  
야논다  
B. 아하~아양 어허~어요 어허야
- A. 2울달 굴림속에는 원님사또만도 노시는구나  
B. 아하~아양 어허~어요 어허야
- A. 사시절 명승지로다 한라산이나 명승지로다  
B. 아하~아양 어허~어요 어허야

- |              |         |
|--------------|---------|
| A. 우리도살다     | 죽어나지면   |
| 허멍이문세가       | 웬말이더나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동쪽으로      | 가신님아    |
| 서쪽으로         | 오실른가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동지선들      | 기나긴밤에   |
| 잠을자도         | 안오는구나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한라산에      | 명승지로다   |
| 한라산에나        | 명승지로다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대한민국      | 우리아제 주도 |
| 한라산이         | 명승지로다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우리조상님덜    | 우리조상님덜  |
| 우리동복         | 잘되게 흡서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일본대판      | 가시어도    |
| 내동복만이        | 좋은되가없드라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어머니네 아버지네 | 살적에는    |
| 지갯짐 만지어      | 고생을헛건마는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우리딸덜      | 우리덴 나난  |
| 남아니해와도       | 밥해영먹고   |

A. 산지포 저뚫대위에                      갈매기만도 놀고야난다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A. 방선문 저곳들에는                      선녀만도 놀건도마는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A. 사시절 명승지로다                      한라산이나 명승지로다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A. 정방성 저폭포에는                      장단만도 치건도마는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A. 영실에 저기암은                      찬비만 부르는구나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A. 사시절 명승지로다                      한라산이나 명승지로다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A. 산방산 저앞바다에                      땅땅망도 흐건도마는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A. 한라산이나              이언덕저언덕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A : ( 양금녀 女 · 48 )

B : ( 양옥녀 女 · 51 )

3 - 2 .

A. 어야디아                      어야디아

          어기야                      어여라놀자

B. 아아양 어양                      어어요

A. 놀기 좋을땐                      이십스물

          살기 나 좋을땐                      삼십서른

B. 아아양 어양                      어어요

- |                   |                |
|-------------------|----------------|
| B. 아이양 어양         | 어어요            |
| A. 대한민국에<br>자랑스럽게 | 어디를가도<br>되었구나  |
| B. 아이양 어양         | 어어요            |
| A. 산엔가난<br>바당엔가난  | 설장귀소리<br>잠수의소리 |
| B. 아이양 어양         | 어어요            |
| A. 옛날옛적<br>모두다잊어라 | 과거지스를<br>꿈이로다  |
| B. 아이양 어양         | 어어요            |
| A. 성산포<br>해뜨는구경도  | 일출봉에는<br>마냥좋다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사라봉<br>해지는구경도  | 꼭대기는<br>마냥좋다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한라산에<br>한라산    | 명승지로다<br>명승지로다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들물에는<br>썰물에는   | 동해바당<br>서해바당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어서속히<br>마냥 좋게나 | 놀고가자<br>놀고나가자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A : ( 양금녀 女 · 51 )

B : ( 김은옥 女 · 59 ) 外 4 명

#### 4 . 서우젯 소리

4 - 1 .

A. 아아~야아앙 어어~야앙 어어~요

B. 아아~야아앙 어어~야앙 어어~요

A. 놀고가자                      자고나가자

저달이지도록                  놀고가세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A. 썰물에는                      동해 바당

들물에는                      서해 바당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A.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A. 어서속히나                      놀고가자

어서속히나                      놀고 나가세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A. 이팔청춘의                      소년덜아

백발을보고                      희롱을말어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A. 인물이늙어                      백발이되면

오던님도                      돌아나간다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A. 쫄았을적                      먹고쓰고

거들거리고나                      놀아보세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 A. 요내청춘                    늙어지면  
       놀자허여도                못노는구나
-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 A. 놀기 좋을땐                이십스물  
       살기 좋을땐                삼십서른
-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 A. 놀고가자                    자고가자  
       청춘이지나도록            놀고가세
-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 A. 우리도살다                죽어지면  
       허멍이문세가                웬말이드냐
-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 A. 돈많은                      백만자도  
       죽어지면은                허스로구나
-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 A. 돈없는                      요내사람들도  
       죽어진다면                허스로다
-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A : ( 양옥녀 女 · 51 )

B : ( 양영수 女 · 71 ) 外 4명

4 - 2.

- A. 어야디아                    방애로구나  
       어야디아                    방애로구나
- B. 아아 아하~양 어~허양 어허요
- A. 어기여차소리에            배놓아가멍

- 어기여차소리에      닷댕겨간다
- B. 아아 아하~양 어~허양 어허요
- A. 들물에는              서해바당  
     썰물에는              동해바당
- B. 아아 아하~양 어~허양 어허요
- A.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 B. 아아 아하~양 어~허양 어허요
- A. 어기여차소리에      배놓아가고  
     이여차소리에        닷댕겨놓자
- B. 아아 아하~양 어~허양 어허요
- A. 우리야인생            한번가도  
     한번가기는            분명흐스실
- B. 아아 아하~양 어~허양 어허요
- A. 어른도가고          아이도가고  
     북망산천이            웬말이더냐
- B. 아아 아하~양 어~허양 어허요
- A. 이세상에              태어날적에  
     백년을살려고        하엿건마는
- B. 아아 아하~양 어~허양 어허요
- A. 단팔십을              못살아도  
     저승황천으로        가는구나
- B. 아아 아하~양 어~허양 어허요
- A. 허기야허망흐        세상에  
     우리도살다            이별헛걸
- B. 아아 아하~양 어~허양 어허요

A. 빈손에 왔다            빈손에가는것은  
       나도건넘이            아니건마는

B. 아아 아하~양 어~허양 어허요

A : (양옥녀 女 · 48)

B : (김은옥 女 · 59) 外 4명

## 5 . 한강수 타령

한강수야	깊고야얄은불에다
두둥실찾아서	내가간다고왔는데
어허야 에헤야	
얼싸엄마등게	지어라내사랑아
아아	개야개야
내가울면은	내가울지
두둥실찾아서	모두다내사랑이로다
어허야 에헤야	
얼싸엄마등게	지어라내사랑아
너는처녀	나는총각
백년해로나	맺어볼까
두둥실찾아서	네가간다고왔는데
어허야 에헤야	
얼싸엄마등게	지어라내사랑아
청천하늘에는	잔벨도많구요
자그만나의심정	희망도나 많더라
어허야 에헤야	
얼싸엄마등게	지어라내사랑아

한번가면	못을세상
악헌마음을	다버리고
천대전손	만대유전
좋은맘으로	살아가자
두둥실찾아서	네가간다고왔는데
어허야 에헤야	
얼싸엄마등게	지어라내사랑아
나가기세상에	탄생혈땀
빈손에다	놓고요
저세상을	가실적엔
내혼자만이	가노라
어허야 에헤야	
얼싸엄마등게	지어라내사랑아
다늬으신	우리어머님
곤얼굴에	주름잡히고
검은머리가	백발되고
요런억울이	어데있나
두둥실찾아오소	네가간다고왔는데
어허야 에헤야	
얼싸엄마등게	지어라내사랑아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을보고	회룡을마라
소년들	백발되면
오던입도	되돌아사니니
어허야 에헤야	
얼싸엄마등게	지어라내사랑아

(양옥녀 女 · 51)

## 6. 양 산도

### 6-1.

에헤~이요

놀자놀자	저꺼아놀자
늘어나지면은	못노리로다
아서라말어라	네가그리말어
잡앗단홀목이 <sup>19)</sup>	수그러지도록
나는못노리라	

에헤~이요

술집에갈적에	친구도 많고
공동묘지갈적엔	내혼자로다
아서라말어라	네가그리말어
잡앗단홀목이	수크러지도록
나는못노리라	

에헤~이요

산재바당	배 띄와놓고
간장타는건	에루나고나
아서라말어라	네가그리말어
응기롱기를	하야도
나는못노리라	

에헤~이요

만경창파에	좋다 좋다
간장타는건	배 띄와놓고
세월세월아	내로구나
오고가지를말자	봄아봄철아

잡았던 홀목이	수크러지도록
나는못노리로다	
에헤~이요	
날드려가거라	날모사가라
병년의친구야	날드려가라
아서라말어라	네가그리말어
응기렁기를	하야도
나는못노리로다	
에헤~이요	좋다좋다
청천하늘에	잔벨도많고
자그만이가슴엔	희망도많다
세월세월아	봄아봄철아
오고가를말라	
잡았던 홀목이	수크러져도
나는못노리라	
에헤~이요	있는정없는정이다
모두락비치락으로	씩씩떨어다
한강수에	던져버리고나
없는정을있는듯이	살아나보세
아서라말어라	네가그리말어
영기렁기를하여도	못노리로다
에헤~이요	좋다좋다
술집에갈적에	친구도많고
북망산천가실적엔	내혼자간다
세월세월아	봄아봄철아
오고가지를말자	

아까운내청춘	다늬어간다
명스항에	병이나빌고
곡스항에	운이나빌자
세월세월아	봄아봄철아
오고가지를말자	
아까운내청춘	다늬어간다
명스항에	병이나빌고
곡스항에	운이나빌자
세월세월아	봄아봄철아
오고가지를말자	
아까운내청춘	다늬어간다

(양남녀, 女 · 48)

6 - 2.

- A. 에헤에에이여 양도명천 흐르는 발은 감돌아  
 든다고 구경 도화로다  
 아서라 말어라 네 그리 말어라  
 사람의 팔세를 네가 그리 말아
- B. 에헤에에이여 어실어실 춤거든 나의 품에 자고  
 배개가 높거든 나의 팔에 자라  
 아서라 말어라 네가 그리 말아  
 아까운 청춘이 다 늬어진다
- A. 에헤에에이여 가는 낭군 오는 낭군 정들여 놓고  
 이별이 좇아서 나는 못사리라  
 아서라 말아라 아니 못노리라  
 잡았던 홀목이 수크러지도록 나는 못노리라

에헤에이요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추동경이 달 솟아온다  
 B. 에헤헤에이여 우리나라 임은 어디나 가고  
 날 생각 아니허는 나의 임이로구나  
 세월세월아 네월네월아 오고가지를 말아라  
 아까운 청춘이 다 늙어간다

A : (김대선 女 · 61)

B : (김은옥 女 · 59)

## 7 창부타령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 릴리리아
리리리리 날리리	날리리아
놀로나가자	놀로나가자
동복리가 좋더니	놀로가자
얼씨구절씨구	기화자절씨구
아니까라놀지는	못허리라
아니아니놀지는	못허리라
칠년대한	가문날에
빛발갈이도	반긴사랑
사랑사랑	내사랑아
어화둥둥	내사랑아
사랑이 라한게	무엇인지
천리를가도	내가따라가고요
만리를가더라	내가따라간다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띠리리아

아니까라놀지는	못허리라
너는너의집의	기둥자여
나는우리집의	단뿔래기
너와나와	살게만되면
없는금전을	한탄을 말고
깊이나든정을	변치말자
리리리리 날리리	리떠리리리 떠리리리
닐리리 날릴리아	
신고나명산	난자헌봉에
바람이나분다고	쓰러지라
송죽같이도	굳은마음
천만금준다면	허락허리
몸은비로써야	기생일망정
절개나조차	변할쏘냐

(김창용, 男 · 50)

## 8 . 장귀타령

새 배리 양복	입단몸에
갈증이찌꺼가	웬일이냐
지끼지름 <sup>20)</sup>	브르단머리에
낙지 발뿔줄을	누가안냐
공공단이불	뿤으단몸에
담요와래기가	웬일이냐
새 배리 양복	입단몸에
갈증이찌꺼가	웬일이냐

아리랑고개에	다넘어간다
우리가살민	뭇해나살코
와래기짹째길	신고야
어느제나	어느꺼지갈경고
에라둥둥	장귀소리에
잘도	넘어가는구나
에라만수	에라대신이여
성주로다	성주로다
이집의성주가	어디더나
경상도	안동땅에
개비현이가	받았더니
솔씨한장을	탤더니
아덜은나난	효재고
뭇은나난	열네충신으로만나간다
에라대신이여	

(이자생, 女 · 78)

## 9 . 자장가

< 자장가 >

자랑자랑	우리아기
자랑자랑	어서자라
왕이자랑	자랑자랑
누엥자라	물질허곡밥허곡
야야	흔저웠자라
느네아방	밧되서

더디왕젠	욕살히고
<b>웁이자랑</b>	<b>웁이자랑</b>
누웁자라	우리애기
자장허져	어는제랑자코
자장자장자장	
저딴가는	검둥개야
우리애기	재와도라
흔저자라	자라
지픈지픈	소에
드리칭	내척헌다
헌저	누웁자라
자랑자랑자랑	

(김완분, 女 · 68)

## Ⅵ-[1] 전 승 동 요

### 1. 꿩꿩장서방

꿩꿩	장서방
어찌어찌	살았나
그럭저럭	살았지
무얼먹고	사나
어염어염	들암시난
뒷밭에	강
콩 한방울	풀 한방울

먹었	살았다
콩하나	붕가다가
청사옥조	저고리에
자주고름	달아놓고
백해명주	동전달고
예엄예엄	돌다보니

(이경봉, 女 · 76)

## 2. 매 · 술개를 노래하며

매천이광	똥소래기들아
느네국이	느레기여더라
매천이여	똥소래기야
매천이광	똥소래기야
느네 국이나	요래기여

## 3. 뱀을 보았을때

너저의집	노픈집으로들어가
뉘헤렌	나뎡겨

(김완문, 女 · 68)

## 4. 노래제목

빙빙	돌아라
시계바늘	돌아라

어멍아방	얌찌
국허라	밥허라
어멍아방	얌찌
국허라	밥허라

(김완문, 女 · 68)

### 5. 비올때 부르는 노래

비야비야	오지말라
장통밧디	물골람찌
말축새끼	시집갈때
맹지장옷	다젖는다

(이경봉, 女 · 76)

### 6. 다리를 포개서 놀때

흔다리인다리	거친개
신나노자	버든개
어르릉떠르릉	돌깍

(김완문, 女 · 68)

### 7. 머리깎은 아이 놀릴때

중중까까중	시러리방아중
중블래기	폴블래기

모진년의                   x대가리  
하늘끝의                   덩덩  
(김완문, 女 · 68)

## 8. 이빠진 아이 놀릴 때

### 8-1.

새니랑	돌아오곡
목은니랑	돌아가라
앞담	어뤄졌저
뒷담	어뤄졌저
앞장물애기야	새니돌아온다
목은니랑	던저블라

(김완문, 女 · 68)

### 8-2.

까치야	까치야
헌이줄께	새이다오
헌이는	돌아가고
새이는	돌아오라

(이자생, 女 · 78)

## Ⅵ-[2]. 놀 이 요

### 1. 고무줄놀이 할때 부르는 노래

〈대중가요 ‘내가’의 개사곡〉

포니의 집은 캔디의 고향  
수녀님의 사랑을 받고  
캔디는 자랐지 꿈을 꾸었지  
아름다운 천사의 꿈을  
첫사랑은 나의 안소니  
○○○의 사랑을 받고  
캔디는 밤하늘의 별이 되었고  
내 앞에서 웃고만 있네  
인정받고 사랑받고 파들락거리면  
캔디와 결혼하겠소  
내가 만약에 안소니라면  
캔디와 결혼하겠소

(김민정, 女·11外 12명)

무찌르자 공산당 삼천만이 하나로  
배달이 가는 길은 승리로구나  
나가자 나가자 승리의 길로  
나가자 나가 자유의 길로

(김민정, 女·11外 12명)

- 월계 화계 수수 목단 금단 초단이  
공주마마 납신다 또 납신다
- 우리회사 사장님은 검은 고양이
- 사랑하는 언니야 뒷동산에 올라가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맞았더래요  
샤빠샤빠 하이샤빠 얼마나 울었을까요  
샤빠샤빠 하이샤빠 천구백 팔십구년도

(김민정, 女·11外 12명)

## 2. 줄넘기 할때 부르는 노래

2-1.

똑똑  
누구십니까  
손님입니다  
들어오세요  
신발벗고 양말벗고  
들어오세요

(김민정, 女·11外 12명)

2 - 2.

엄마

왜

학교갈래

가라

선생님

왜

몇점

빵점

엄마

왜

빵점

공부해라

엄마

왜

학교갈래

가라

선생님

몇점

백점

(김민정, 女·11 外 12명)

### 3. 손놀이 하면서 부르는 노래

3 - 1.

육상

어디가요

쉐 잡으레	가요
몇마리	잡았소
두마리	잡았소
볶아먹고	지저먹고
산에	올라가고
복을	쳐오너라

(김민정, 女·11 外 12 명)

3 - 2.

감자에	씩이나서
이파리가	나고
도라이	도라이샤

(김민정, 女·11 外 12 명)

3 - 3.

니뻘고니	삼사나고
롯데햇데	향세나고

(김민정, 女·11 外 12 명)

4 . 말놀이 ( 말이어가기 )

4 - 1.

원숭이 똑고망은 시빨강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것은 하늘  
 하늘은 푸르다  
 푸른 것은 바다  
 바다는 짜다  
 짠 것은 소금  
 소금은 희다  
 흰 것은 강물  
 강물은 찢기다  
 찢긴 것은 고무줄  
 고무줄은 검다  
 검은 것은 까마귀  
 까마귀는 난다  
 나는것은 나비  
 나비는 춤춘다  
 춤추는 건 부당.

(김민정, 女·11外 12명)

\* 동그렇게 모여 다리를 걸고 손뼉을 치며 빙빙도는 놀이.  
 뛰는 놀이에서 불림

4 - 2. '숫자풀이'

하나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들고서 잘잘잘

두울하면 두부장수가 종을 울리며 잘잘잘  
 세엣하면 새색시가 거울을 본다고 잘잘잘  
 네엣하면 넷가에서 빨래를 한다고 잘잘잘  
 다섯하면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는다고 잘잘잘  
 여섯하면 여객선이 손님을 태운다고 잘잘잘  
 일곱하면 칠득이가 장가를 간다고 잘잘잘  
 여덟하면 여동생이 공부를 한다고 잘잘잘  
 아홉하면 아버지가 신문을 본다고 잘잘잘

(김민정, 女·11外 12명)

‘요일놀이’

월요일은 월급타고  
 화요일은 화장하고  
 수요일은 수박먹고  
 목요일은 목욕하고  
 금요일은 금반지 끼고  
 토요일은 토끼사냥  
 일요일은 일기쓰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김민정, 女·11外 12명)

5. 개사곡

5-1. ‘서울찬가’를 개사  
 종이울리네                      문이열리네

담임선생님	들어오시네
지겨워라	시험시간
내속을	씩히는구나
연필들고	시험을봐도
보나마나	빵점이겠지
종아리아	좀참아라
다음부터	잘보겠다.

(김민정, 女 · 11外 12명)

5 - 2.

고무신	고무신	우리	고무신
삼천리	강산에	우리	고무신
막걸리	막걸리	우리	막걸리
삼천리	강산에	우리	막걸리

(김민정, 女 · 11外 12명)

5 - 3.

아랫바지	나팔바지
우에는	티셔츠
저관장에	여자선
내 맘에	꼭들어
야임마	일루와바
나하고	싸워보자
이래뵈도	여이지만
태권도	3단이다

(김민정, 女 · 11外 12명)

5-4. '개구리 왕눈이' 개사

왕눈이팬티      쌍방울  
 아로미팬티      유이나  
 투투팬티는      찢어진 팬티  
 가재팬티는      구멍 댄 팬티  
 무지개 연못에      팬티 패션쇼

(김민정, 女 · 11 外 12 명)

5-5.

아버지는 나귀타고 장에가시고  
 할머니는 몽당이들고 쫓아다니네  
 돈데      까루까루 돈데요  
 돈데요      돈데요      돈데요

(김민정, 女 · 11 外 12 명)



제보자

- 강미순(女 · 11)
- 김민정(女 · 11)
- 강재경(女 · 11)
- 김병수(男 · 13)
- 김소형(女 · 11)
- 김승현(男 · 12)
- 김은실(女 · 11)
- 김재연(女 · 12)
- 정미경(女 · 11)
- 양미선(女 · 8)

## Ⅶ. 却註

- 1) 난바르 : 船上生活. 배 위에서 장기간 숙식을 하면서 물질을 했던 것을 말한다.
- 2) 이수장 : 말이 풀을 먹던 넓은 땅으로 각 마을별로 장소를 정해놓고 있다.
- 3) 코알링물 : 얼룩말
- 4) 띠미곶 : 마을이름을 나타내는데 정의곶을 일컫는다고 한다.
- 5) 화정 : 배의 심부름꾼
- 6) 남조대 : 담배대
- 7) 입산남도 휘어든내야 : 생목(生木)도 꺾는데
- 8) 풍미 : 소리
- 9) 옥중에 : 좋은땅
- 10) 이성당호난 : 살아나난
- 11) 구엣꽃 : 9월에 피는 꽃, 들국화
- 12) 우넴당 : 울음우는 집
- 13) 백년동계~본다 : 백년가약을 맺는다.
- 14) 남당췌기떡 : 밀기울따위로 주먹같이 둥글게 만든 떡. 굶은떡
- 15) 검은공지 : 검은 눈동자
- 16) 혼반에논다 : 함께논다. 즉,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산다.
- 17) 성도언만 : 날씨가 좋으니 일을 해도 힘들지 않다.
- 18) 열 보달 : 열집  
여기서 '보달'은 한 사람이 어깨에 질 수 있는 분량을 뜻한다.
- 19) 홀목 : 손목
- 20) 지끼지름 : 밀기름. 옛날 머리에 발랐던 기름의 일종

# 說 話

指導教授：金炳澤

指導補助：玄承桓 李成俊

所 員：梁柄哲(3) 尹淑伊(3)

高秀賢(3) 金明淑(3)

金廷恩(1) 金德仁(1)

宋聖嬪(1) 朴英蘭(1)

金沃蘭(1)

## 目 次

1. 호종단(고종달) 이야기
2. 박효자 이야기
3. 힘센 이씨 며슴 하르방 이야기
4. 목련존자 이야기
5. 저승길 알려준 친구
6. 삼형제 이야기

\*조사자들이 제보자를 찾았을 때는 점심식사가 끝난 오후 한 시쯤이어서 일  
부러 노인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폭낭 밀으로 찾아갔다. 모여있는 할아버지들 중  
한 분을 택하여 이야기를 요청하니 쉽게 말문을 여셨다. 그러나 연세가 지극  
히 드신지라 말하면서도 문맥상의 엇갈림은 조사자들이 정리하기에 애로점이  
없지 않았다.\*

[ 제보자 1 ]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

김두일 (男 · 78)



### < 호종단 이야기 >

호종단은 육지 사람이다 제주도에서 그저 영산이라고 해서 어디 산자리나 구해볼까해서 들어와서.<sup>1)</sup> 종달리에 내려가지고 “여기 어디요” 허니까 “종다리요” 허는거라. ‘아 이거 벌써 내 이름을 알았구나’ 해서 그 사람이 야코가 죽어서.<sup>2)</sup> 호종단이 산에 올라가서 돌아보다가 옛날 할아버지들이 산터를 보러 땡기는<sup>3)</sup> 짓을 보아서. 호종단이 산에 가서 맥을 짚어서 내려오다가 맥에다가 침을 콧았거든. 그런데 호종단이 침을 콧아서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침을 고쳐부러서.<sup>4)</sup> 호종단이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침이 없는거라. 아! 어째서 침이 없는가해서 궁금해 허니까 산터 구경허레 2치<sup>5)</sup> 올라간 사람이 “아! 이거 침을 도둑 맞았으니 여기에 당신이 자리를 구하려면 산을 써라.” 허니까 그래서 거기에 산을 써서 그 호종단이 잘 살았던 해나서.<sup>6)</sup>

### < 박효자 이야기 >

\*제보자가 호종단 이야기를 끝마치고 일어서려다가 제보자가 미리 조사되어진 효자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1) 들어왔어 2) 기가 죽어서 3) 보러 다니는 4) 고쳐 버렸다. 5) 같이 6) 살았다고 했었다.

옛날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둘이 같이 사는 박효자가 있었다 어머니가 홀로인지라, 자꾸 몰래 남자를 찾아다니는거라.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가 냇물 때문에 멀리 돌아다니는거라. 그래서 박효자가 어머니가 가깝게 다니게 돌다리를 놓아 드려서.

어머니는 모르고, 동네 사람들이 어찌 알아서 ‘아! 이거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허는 것이 효자라’ 해서 박효자라 이야기 해서.

### < 힘 센 이씨 머슴 하르방 이야기 >

옛날에 요 <sup>1)</sup> 이씨 집에 머슴살이 하는 힘이 좋은 하르방이 있었는데 하르방은 성심 성의껏 일을 잘 하는데, 머슴살이시키는 주인 어른은 품삯을 잘 안주거든.

하루는 석 <sup>2)</sup> 몰아서 밭 갈래 <sup>3)</sup> 갔거든. 밭 갈래 가니까 혼 이틀에 갈 걸 <sup>4)</sup> 혼 낮 전에 다 간거라. “힘이 좋아났주게” [ 조사자 : 그 머슴 하르방이 마썸 ? ] [ 제보자 : 그렇지 ]

주인이 이제 점심해 가서 보니까 밭을 다 갈았거든. “아! 이거 어떤 일 이썸 <sup>5)</sup> ? 아! 혼 이틀에 갈 걸 어떻게 영· 낮 전에 다 갈았구나 ” 허니까 그 하르방이 하는 말이 “배고픈 짐에(김에) 있는 힘을 다행 <sup>6)</sup> 다 갈았져” 허는 거라.

아! 그때 머슴 하르방이 밥 먹는 시간에 석는 거기서 그냥 죽어버린거라. [ 조사자 : 무사 죽어신고 마썸 ? <sup>7)</sup> ] [ 제보자 : 아! 그야 하도 몰아댕기니까 지쳐서 죽은거지 ].

---

1) 여기 2) 소

3) 밭을 갈러 4) 약 이틀에 갈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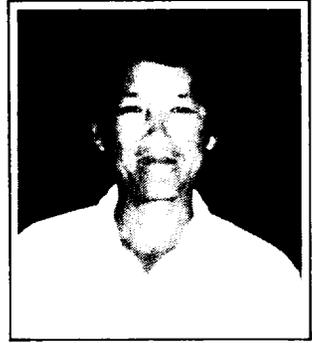
5) 일입니까 6) 다하여

7) 왜 죽었습니까.

[ 제보자 2 ]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

양금녀 (女 · 48)



\* 조사자가 제보자택을 찾았을 때 제보자는 가사일로 바쁜 와중이었다. 그래서 다음에 찾아뵙겠다고 하여 몇 시간 뒤에 찾아갔더니 흔쾌히 맞아주어 조사자와 제보자 간에 담소를 나누다가 제보자가 흥이 났던지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 < 목련존자 이야기 > - 모논존자

목련존자(왕자)가 있었는데 외국에 유학을 가신디,<sup>1)</sup> 아들이 없는 사이에 어머니가 돈을 방탕하게 쓰는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그 사실을 부하들을 시켜서 아들이 모르게 해달라고 해부린.<sup>2)</sup>

아들이 집에 돌아와 사는디 임금의 아들로서 걱정하는 것이 없을 것 같아도 마음이 막 심란한.<sup>3)</sup> 집에 이시난<sup>4)</sup> 마음이 괴롭고 외롭고 또 심란허곡(하고), 어디론가 나가고싶고 해서 산천에 가서 좋은 뜨근새<sup>5)</sup> 우는 데서 마흔아흐레를 살아서.

나무와 새들이 막 있는 곳에 가서 자기 혼자서 마흔아흐레를 살면서 거기서 불경 공부를 3년 해서 그 분이 석가의 부처님되어서. 바닷<sup>6)</sup>에 가면 유

---

1) 갔는데 2) 하였다. 3) 심란하였다.

4) 있으니 5) 두견새 6) 바다

황할망이나, 어디에 가면 당할망이나, 조왕할망이나 다 여잔디 이 분은 남자이기 때문에 모논존자가 3년간 불경 공부를 해서 죽은 귀신도 보게 되어 서게.” 하루는 부처님에게 말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안보옵수다<sup>8)</sup>”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부처님은 “너네 어머니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팔만산천 무관지역에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하니 목련존자는 아무리 나빠도 자기 어머니니까 아까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극락세계로 끌어들입니까?” 하고 얘기를 하여서.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오는 칠월 보름날, 일년에 한 번 극락세계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은 저승에서 왔다갔다하는 날인디 너의 어머니는 그날도 나올 수가 없다.” 하니 “어떻게 합니까?” 하니 먹는 음식 백 가지 해가지고 부처님에게 올릴 때에 몇 백 명의 신도들이 함께 불러주는 염불 때문에 무관지역의 문이 열린다<sup>9)</sup> 그때에 목련존자가 자기의 어머니를 끌어내랴.<sup>10)</sup> 그 말대로 하면<sup>11)</sup>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극락세계로 가서. (백중의 역사기원이 여기서 비롯된다는 말을 함)

### < 저승길 알려준 친구 >

옛날 옛적에 세 동무가 이신디<sup>1)</sup> 한 번은 그들이 모여 앉아 가지고 “우리 약속허자, 우리 세 사람 중 저승<sup>2)</sup>을 먼저 가는 사람은 저승이 있나 없나를 왕 왕 물어주기로<sup>3)</sup>” 해신디 (했는데) 한 사람이 먼저 죽어서. 죽어서 저승가니까 염라대왕안티<sup>4)</sup> 막<sup>5)</sup> 세상에 환생만 해줍센 소청한<sup>6)</sup> 하도 소청하니 염라대왕이 큰 배엄<sup>7)</sup>으로 환생해 주었는데 그 큰 배엄이 항상 그

7) 보게 되었다. 8) 안 보입니다. 9) 열린다

10) 끌어내라고 하였다. 11) 하여

1) 있었는데 2) 저승 3) 보고 와서 말해 주기로 4) 염라대왕에게

5) 계속 6) 해 주시라고 간청하였다. 7) 배

동네에 있는거라. 근데 배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을 못허는거라. 말을 못  
 허니까 잘도 답답할거 아니. 한번은 그 동네에 잔치집이 있었는데 배엄이 잔  
 치집 구들<sup>8)</sup>에 가서 그 동무들이영 ㄱ치<sup>9)</sup> 앉아서. 동무들이 “아이구 이  
 짓 나쁜놈으거” 허면서 확 과련 들렁 대경 내부런.<sup>10)</sup> [조사자 : 과련 마썸?] [제보자 : 응 매장시키는 것]

경허난<sup>11)</sup> 그 배엄이 죽영<sup>12)</sup> 또 제승갈거 아니. 제승가서 염라대왕께 또  
 세상에 환생만 시켜주랜 (주라고) 막 청을 드니까 염라대왕이 소로 환생시  
 켜랜.<sup>13)</sup> 사람 영혼이 소에 들어가난<sup>14)</sup> 소가 막 놀시란,<sup>15)</sup> 소가 친구안테  
 강<sup>16)</sup> 빨이로<sup>17)</sup> 막 찌르면서 말을 허젠<sup>18)</sup> 해도 못허는거라. 소가 막 빨이로  
 찢러 부니까 소를 잡아 먹어버려서게.<sup>19)</sup> 경허니까. 또 제승갈거 아니? [조  
 사자 : 세번째 가는거다 예?] [제보자 : 그렇지] 제승가서 또 환생만 해 줌  
 션<sup>20)</sup> 몇 십년을 그렇게 청을 하니까 이번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준거라.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다섯살 되니까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다 알아  
 부는거라. 일곱살 되어서 이 아이가 옛날 친구를 찾아가서 “야, 아무재 있  
 느냐.” 허니까 종놈이 그집 대감한테 강(가서) “저기 쟤끌락한<sup>21)</sup> 아이  
 가 와서 대감이 있느냐 허는디 사람은 죽지만<sup>22)</sup> 목소리가 씩니다.” 허니까  
 대감이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해라.” 해서 들어온 아이를 보니까 정말 쟤끌  
 락한거 아니? 그 아이가 말을 허는디 “내가 동무들과 아무날 모여 앉아서  
 제승을 먼저 가는 사람은 제승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가지고 왕<sup>23)</sup> 이야기  
 해주기로 해부난 염라대왕한테 줄란<sup>24)</sup> 황구랭이(구렁이)로 환생랜 잔치집  
 에 가서 너네 ㄱㄱ티<sup>25)</sup> 앉으난 나들 확 과련<sup>26)</sup> 던져 죽게허고. 또 제승가

8) 방 9) 같이 10) 나뭇가지 등으로 집어서 던져버렸다. 11) 그렇게하니

12) 죽어서 13) 시켜주었다. 14) 들어가니 15) 사나워 16) 친구에게 가서

17) 빨로 18) 하려고 19) 먹어버렸다. 20) 해 주시라고 21) 작은 22) 작지만

23) 와서 24) 부탁하여 25) 옆에 26) 집어서

서 이번엔 소로 환생했는데 내가 뿔이로 찢러부니까(찢러 버리니까) 잡아 먹어불고<sup>27)</sup> 경허난 염라대왕께 막 청을 드려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너네 신디<sup>28)</sup> 저승길을 돌아주레 왔쨌<sup>29)</sup> ” 하면서 이 아이가 대감안티 그런 이야기를 해줬젠.<sup>30)</sup>

### <삼형제 이야기>

옛날에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7트면<sup>1)</sup> 지나가던 법사나 심방무당이나 다 다녀가도 이 아들 삼형제는 기르지 못허켄.<sup>2)</sup> 경허니까 이제 부모들이, 옛날엔 그렇게 옷이 없어가지고 한 사람이 비단 세동씩 저가지고 아홉동 지왕으네<sup>3)</sup> 절에 삼년을 살렌.<sup>4)</sup> 큰 절에서 삼년을 살면(살면) 그 멍<sup>5)</sup>을 이제 낫은 행년<sup>6)</sup>을 다 던져 버리고 이 아이들이 멍 장수할 수 있다. 그추룩 해주게.<sup>7)</sup> 그걸 다 지왕 그 절에 가서 삼년을 사는데 일주일만 있으면 삼년을 채와서(채워서) 자기네 삼년동안 공부하라 한 것을 다 해서 나오는데, 딱 일주일을 앞두고 브리니까<sup>8)</sup> 그냥 집에만 가그중<sup>9)</sup> 그 아이들이 환장을 하여 법사들에게 집에만 가켄<sup>10)</sup> 허니까 법사는 벌써 알아가지고 ‘집에 가면 안된다’ 안되니까 가지말라해도 막 가켄만 허니까 그 법사가 비단 세동씩 아홉동 령(주어서) 보낸 것 그냥 저 보내버려서. 저오다가 막 배고팡<sup>11)</sup> 걸어오지 못허영(못하여), 어떤 집에 들어가서 “우리 물이나 혼직 줘쨌<sup>12)</sup>”, “식은 밥이라도 혼직 줘쨌 막 배고팡 죽어지쿠다.<sup>13)</sup>” 그추룩 말허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집에 재수가 없첸허니까<sup>14)</sup> 중놈이 와서 이제 재수없게 한다고 당장 내쫓으라고 허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너무 우리 그렇게 보지맙서(마십시오), 우린 비단도 세동씩 아홉동 지어수다.”

27) 먹어버리고 28) 너희에게 29) 가르쳐 주려고 왔다. 30) 해 주었다고 함.

1) 지금 같으면 2) 못 하겠다고 3) 저가지고 4) 살라고 함 5) 명(命) 6) 액년

7) 그렇게 했다. 8) 바라니까 9) 가고 싶어 10) 가겠다고 11) 배가 고파서

12) 한사발 주십시오 13) 죽을 것 같습니다. 14) 없으려 하니까

그러니까 그 광영생의 부인이 그것에다가 탐내가지고 “아휴 개민(그러면) 이레오라 15)” 고 하여서 불러다가 탁주를 복씩 16) 맥여버려서. 7) 맥이니까 막 취헌. 배고픈데 밥 먹고 따시고 18) 허니까 스랑스랑 19) 서이가 20) 다 누어버려서. 누우니까 광영생의 부인이 춤지름 21) 꺾와당 컷고망에다 22) 슝스슝 23) 지러버려서. 24) 지러부니까 그 사람들 다 죽을 거 아니? 죽으니까 이제 수청강 연못에 그 시체를 던져부려서. 던져부러신디 혼번은 물을 물 먹이젠 광영생이가 가시난 25) 곱딱한 26) 꽃이 그 수청강 연못에 물을 일로왕 27) 물 먹이젠허민 28) 못먹게 허고 저절로 강 물 먹이젠허민 못먹게 허고 막 허난 꽃은 암만 29) 고와도 몽니머리가 30) 나쁘다고 물을 불 못먹게 햄젠(한다고) 그 꽃을 따완. 31) 그리하여 광영생이가 그 꽃을 중문더레 32) 딱 거난 그 꽃은 뒤에 장 거르레 33) 가젠 허민 광영생의 부인 머리를 딱 트더불고 34) 허난 “아이고, 이 꽃은 곱긴 고와도 몽니가 나쁘다” 허영 이젠 고팡공장 35) 에다 걸민 36) 이젠 고팡에 쏘 거르레 가젠허민 그 꽃이 딱 건주와 불고허여 37) 이 꽃은 너무나 곱긴 고와도 몽니가 나쁘다고 불더레 샷다당 38) 딱 지더부려서게. 39) 지딩 불을 쏘라부려서게. 40)

동네 할머니가 불 담으레 왕 보난 41) 곱딱한 구슬이 세개가 있거든. “아이고, 여기 고운 구슬 세개가 있져” 42) 허니까 광영생의 부인이 허는 말이 “아이고 나 구슬이 거기 떨어져수다” 허영 동네 할망 손에 있는거 심영 44) 먹어버려서. 먹어버리니까 혼꺼번에 45) 아들 세형제를 낳는거라. 아들 셋을

15) 이리 오라 16) 듬뿍 17) 먹어 버렸다. 18) 따뜻하고 19) 편안하게 차츰차츰

20) 셋이 21) 참기름 22) 끓여와서 컷구멍에다 23) 조금씩 조금씩

24) 부어 버렸다 25) 가니까 26) 고운 27) 데리고 와서 28) 먹이려고 하면

29) 아무리 30) 마음씨가 31) 따고 왔다. 32) 중문에다 33) 간장 뜨러

34) 뽑아 버리고 35) 창고 벽걸이 36) 걸면 37) 귀찮게하여 38) 가져다가

39) 불에 넣어버렸다. 40) 불에 넣어 태워버렸다. 41) 불 담으러 와서 보니

42) 있구나 43) 거기 떨어졌습니다. 44) 빼앗아 45) 한꺼번에

놓아가지고 그 아들들이 명필이거든. 아들들이 공부를 막 잘해서 과거에 급  
 제했주게. <sup>46)</sup> 큰아들이 어머니 앞에 와 절해신디 <sup>47)</sup> 허각 죽어붙었주게. <sup>48)</sup>  
 셴 <sup>49)</sup> 아들도 소문나게 공부 잘행 <sup>50)</sup> 어머니 앞에서 절 받으서 <sup>51)</sup> 인사허니까  
 죽어부러. 죽은 <sup>52)</sup> 아들까지 그렇게 막 공부 잘해신디 아들 셋이 그렇게 죽  
 어버리니까 임금에게 광영생이와 그 부인이 거기 가서 막 울며 우리 애기들  
 살려내라고 난리를 쳐서.

하루 <sup>53)</sup> 는 강림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역불 상에 <sup>54)</sup> 를 아니나온 걸로  
 해서 임금이 죄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부락 사람이 다 모인디서 <sup>55)</sup> 임금이  
 “너는 상에 만나와서 벌을 받아야 될 것이니까 염라대왕한테 갔다오라” 허  
 는거라. 광영생이 아이 셋이 죽은 것을 알아오렌. <sup>56)</sup> 너는 염라대왕을 모셔  
 오라 경허는거라. 그 강림이는 첩만 아흠을 해가지고 <sup>57)</sup> 큰어머 <sup>58)</sup> 네 집에  
 들어오질 안허주게. <sup>59)</sup> 들어오질 안허는디 이제는 죽게 되어서. 염라대왕이  
 어디 있는 줄 알양 <sup>60)</sup> 강림이가 가느니 <sup>61)</sup> ? 모르니까 죽게되어 첩을 아흠  
 사람을 해도 하루는 큰각시헌테 강 <sup>62)</sup> 나가 죽게되었다고 날 살려달렌 막 스  
 정허난 <sup>63)</sup> 어떻게 <sup>64)</sup> 죽게 되시난 <sup>65)</sup> 허난 상에 만나온 걸로 행. 나가 염라  
 대왕 강 모셔오렌험젠 <sup>66)</sup> 큰각시헌테 얘기허난 <sup>67)</sup> 큰각시가 쌀 <sup>68)</sup> 을 해영 막  
 일곱벌에 쳐가지고 막 상쌀 <sup>69)</sup> 로만 해서 떡을 해영 <sup>70)</sup> 집에서 불공을 드러  
 서게. 조왕할망헌테 막 불공을 드령 <sup>71)</sup> 떡 일곱개를 도포 속에 담아들어서. 강  
 림이가 떡을 담아가지고 제승을 가느디, 가느라고 허면 할망이 또각또각 <sup>72)</sup>  
 앞에 걸고, <sup>73)</sup> 가느라고 허면 또각또각 또 걸고 강림이가 그 할망을 미쳐

46) 급제했어 47) 절하였는데 48) 갑자기 죽어 버렸다. 49) 둘째 50) 잘해서  
 51) 절 받으십시오 52) 작은 53) 하루 54) 불교적 용어 55) 모인 곳에서  
 56) 알아 오라고 57) 두어서 58) 큰부인 59) 안 하였어 60) 알아서  
 61) 가겠느냐? 62) 가서 63) 사정하니 64) 어떻게 하여 65) 되었으니  
 66) 가서 모시고 오라고 한다. 67) 이야기 하니 68) 쌀 69) 햅쌀 70) 만들어  
 71) 드러서 72) 의태어 73) 걸고

짐직 헌디 미쳐지질 못허는거라. <sup>74)</sup> 점심을 먹젠 <sup>75)</sup> 앉으니까 할망도 점심을  
 먹젠 앉으는거라. 떡을 먹젠 시루떡반을 딱 보난 그 할망도 자기 떡과 똑같  
 은거, 2튼 빛이 딱 들어맞는거라 그것이 강림이 부인의 공덕이라. 경해가  
 지고 <sup>77)</sup> 그 할머니가 일로일로 <sup>78)</sup> 나오면 백강생이가 나온젠 길을 가르쳐줘  
 서. 가르쳐주난 점심 먹고 가당보니깐 <sup>79)</sup> 백강생이가 딱 나완, <sup>80)</sup> 그 백강생  
 이 조름에 <sup>81)</sup> 강을 딱 건너가난 염라대왕이 딱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너는 왔느냐”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허난 그때는 안가  
 켜 <sup>82)</sup> 했지만 너의 부인의 정성이 지극하여 아무날 아무시로 가겠다 허난 아  
 무날 아무시로 상예를 맨덴. <sup>83)</sup> 강림이가 왕 2난 <sup>84)</sup> 그날을 딱 매영 이시  
 난 <sup>85)</sup> 염라대왕이 오난 벼락천둥이 딱 치는거라. 염라대왕이 말을 허는디 “광  
 영생의 부인이 사람 셋의 컷2망에다 춤지름을 피왕 죽여버리니까 경 <sup>86)</sup> 됐  
 다” 허난 염라대왕이 강림이를 데려가켜. <sup>87)</sup> 임금이 우리가 가지겠다고 둘  
 이 드트니까 <sup>88)</sup> 염라대왕이 경허민 <sup>89)</sup> 너희들이 육체를 가질라 <sup>90)</sup> 영혼을 가  
 질라? 허난 임금이 우리는 육체를 가지겠다고 허니까 염라대왕이 경허민 나  
 는 영혼을 가져간다 허영 <sup>91)</sup> 강림이 혼을 확 빼가져 가버리니까 그 강림이  
 는 딱 죽어부러서. <sup>92)</sup> 그때부터 죽은 사람은 혼을 불르고 했젠. <sup>93)</sup>

수청강 연못에 강물을 다 평 <sup>94)</sup> 옛날엔 영영 <sup>95)</sup> 허민 사람을 살렸젠 헛게. <sup>96)</sup>  
 그래서 아들 셋을 살려완 <sup>97)</sup> 잘 살았젠 <sup>98)</sup>

---

74) 앞질러 갈 수 있을 것 같으나 앞지르지 못했다. 75) 먹으려고  
 76) 같은 색깔 77) 그렇게 해서 78) 여기 여기로 79) 가다 보니까 80) 나와서  
 81) 뒤따라서 82) 안 가려고 83) 맨다고 함. 84) 와서 말하니 85) 매고있으나  
 86) 그렇게 87) 데리고 가겠다고 함. 88) 다루니까 89) 그렇다면 90) 가지겠느냐  
 91) 하여 92) 죽어 버렸다. 93) 부르고 했다고 한다. 94) 퍼서 95) 손모양(말로  
 표현 못함) 96) 살렸다고 한다. 97) 살려와서 98) 살았다고 한다.

# 信 仰

指導教授：許 椿

指導補助：高光敏

班 員：吳芝蓮(4) 李盈周(4)  
洪希慈(4) 姜成暉(3)  
高敬林(3) 金晟喜(3)  
南和林(3) 吳銀政(3)  
夫恩實(2) 高恩眞(1)  
金有慶(1) 朴仙一(1)  
辛惠仙(1) 吳修仁(1)

## 目 次

I. 概 觀

II. 公認宗教

III. 部落信仰

IV. 個人信仰

## I . 概 觀

이 보고는 1989년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나흘간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에서 이 마을의 신앙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동북리는 총면적이 54.3 *km*<sup>2</sup>로, 비교적 작은 마을이었으나 마을사람들 간의 단결심은 대단하여

마을의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우리 조사팀은 공인종교와 무속신앙,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를 했는데 각기 난점이 있었다. 공인종교 부분은 행정구역상으로 볼 때 주변적 경향이 강하고 부락민이 적은 이유로 마을 내에 위치한 절이나 교회가 없어서 인근마을로 조사를 나가야 했다. 무속신앙 부분은 이 마을의 거의 모든 곳을 주관하는 심방이 돌아오는 날까지 만나지 못해서 곳이나 비נם을 들을 수 없었다. 또한 축문을 기록하지 못했었는데, 그 이유는 4·3사건 때 마을이 불타 축문을 보유하고 있는 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은 많으나, 4일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인종교, 부락신앙, 개인신앙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 Ⅱ . 公 認 宗 教

東福里의 공인종교에는 佛敎, 基督教이 있으나 대개는 불교를 믿고 있다. 행정구역상 주변 영향이 많고 부락민이 적어서 절이나 교회는 없으며 불교 신도들은 서김녕과 동김녕에 위치한 절에 많이 다니고 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토속적 민간신앙을 깊게 믿고 있고 기독교인은 1명에 불과하다. 절과 교회가 마을 내에 없어서, 이 마을 신도들이 많이 찾아 가는 주변의 절에 대해 알아 보았다.

### <佛 敎>

#### (1) 서김녕

① 명칭 : 백련사

② 종파 : 조계종

③ 위치 : 북계주군 구좌읍 서김녕리 1118번지

④ 연혁 및 현황 : 관음사를 불당으로 한 포교소로써 이화선 스님의 포교 활동으로 점차 확장되어 왔다. 1942년에 처음 설립됐고 1981년에 재건된 백련사에는 현재 6명의 스님이 있다. 대웅전 상단의 장식은 관음상을 앞세운 석가와 제자백가, 사천왕을 은행나무에 조각하여 금도금을 한 부조로 매우 특이하다. 바다 염기에 의한 부식으로 대웅전 밖에 위치하는 큰 종각은 없고, 대웅전 내부에 작은 범종이 있다.

⑤ 신도 : 함덕, 월정, 제주시, 김녕, 동북, 재일교포 등에 이르며 여신도는 노년층이 많고 남자는 젊은층이 다수이다. 동북리민 중 60여 명이 이 절의 신도이다.

⑥ 행사 : 매달 최소 한 번씩의 행사를 주관하는데, 농번기인 6·8·10월은 원다. 주된 행사로는 매 절기마다 정월보름, 초파일, 칠월칠석, 동짓달에 포교를 위한 설법강의 등이 있다. 2월과 9월에 故魂을 위한 영각제가 있어 대체로 6·25사변, 4·3사건, 남양호사건, KAL機 사건 등 집단적인 민중수난을 기리고 각 가정을 위한 위령제가 있다. 3월에 산신기일과 용왕제를 지낸다.

## (2) 동김녕

① 명칭 : 금룡사

② 종파 : 조계종

③ 위치 :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

④ 현황 : 1939년에 설립된 금룡사는 현재 비구니인 3명의 스님이 있다. 포교당의 형식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재생절간으로 기복불교적인 성격이 짙다.

⑤ 신도 : 월정, 덕천, 김녕, 동북, 제주시, 재일교포 등에 이르며 동북리 주민으로 20여 명의 신도가 있다.

⑥ 행사 : 2월 6일 ~ 8일, 3일간 용왕기도가 있는데 이는 마을제의 형식을 띤다. 4월 14일 ~ 16일은 산신기일을 지내고 7월 7일에 칠성제가 있다.

## 〈基督教〉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동북리에는 교회가 없으며, 교인 또한 한 명에 불과하다. 조사팀은 이처럼 공인종교의 포교 상태가 부진함에 대해 참고가 될까하여 몇몇 사람들을 만나 보았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 Ⅲ. 部 落 信 仰

### 1) 醮 祭

愛鄉之心으로 행해졌던 醮祭는 4·3 事件 이후부터 祭의 지속성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새마을 운동과 미신타파 등의 국가 정책으로 인해 행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포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한 세보자의 기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 제보자 ]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

김순직 (男 · 58)



- ① 名稱 : 醮祭, 마을제, 部落祭
- ② 祭神 : 天神
- ③ 祭日 : 음력 정월 초순 중에 丁日 또는 亥日을 골라 행한다.
- ④ 祭場 : 「보훈담」에서 행해졌으나 현재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풀이 무성하다.
- ⑤ 祭官 : 初獻官 · 亞獻官 · 終獻官 3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평소 청결한 사람을 택해 나이순으로 정하게 된다.

⑥ 祭儀管理 : 경비는 리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예산을 세워 里에서 거출하게 된다.

⑦ 入祭 : 전 리민이 일주일간 지성드리며 제관들은 청결한 집을 골라 합숙하고 謹身齊戒한다. 제물 정리자와 메 짓는 사람은 1~2명의 남자가 하게 되며 그외 다른 사람들의 출입은 禁止된다.

⑧ 禁忌 : 더러운 것을 보거나 만지지 말아야 한다.

⑨ 祭服 : 도복(상주들이 입는 것과 같은 마복), 행경, 두건을 갖춘다.

⑩ 祭物 : 메(현지에서 지음), 五果, 돼지고기 등이 올려지며, 그외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돼지고기의 경우 내장을 씻어 다시 담고서 뜨거운 불에 한 번 담갔다가 꺼낸 채로 올린다.

⑪ 豫兆 : 예조는 그리 중시하지 않는다.

⑫ 飲福 :祭가 끝나면, 고기를 삶아 나누어 먹는다.

⑬ 참고 : 예전에는 제관들이 모두 祭場에서 전날 밤을 새고 祭를 지냈으나, 후에는 전날 각자의 집에 돌아가서 향물로 목욕하고 의관정제하여 아침에 祭場에 가기도 했다. 祭를 필하기 전에는 제관·집사 외에 다른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된다.

## 2) 당굿 (제보자 : 황숙자 女·48, 한호생 女·60)

당굿은 오래된 민간신앙으로 포제가 행해지기 이전에도 있었으며 포제가 소멸된 후에는 포제의 祭儀기능까지도 흡수하여 다른 마을보다 크게 행해지고 있다.

① 堂의 名稱 : 동복 본향당, 일렛당.

② 所在地 : 동복마을 입구 남쪽, 동복리 산 56번지(군유지).

③ 神名 또는 본초 : 굴묵밭 할마님, 송씨 하르바님.

④ 祭日 : 포제가 행해졌던 당시에는 포제를 지낸 다음 정월 중에 치뤘으나, 대체로 음력 1월 7일에 행한다.

⑤ 參加範圍 : 부락민의 대부분이 참여한다.

⑥ 禁忌 : 돼지고기를 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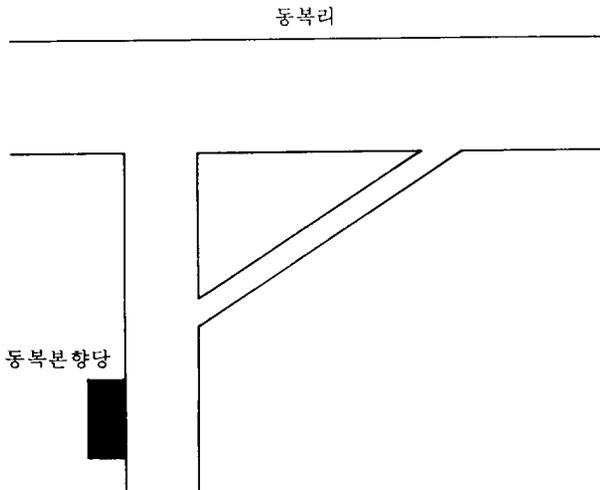
⑦ 祭物 : 메, 五果, 海魚, 돌레떡, 폐백 등을 올리며 祭酒는 옛날에는 감주를 썼으나 근래에는 소주·음료수를 쓴다. 폐백은 베·명주·무명·시라묵 등에서 1필을 쓴다.

⑧ 豫兆 : 굿을 끝낸 다음 심방이 마을 전체의 일년 운수와 각 집안별의 운수를 점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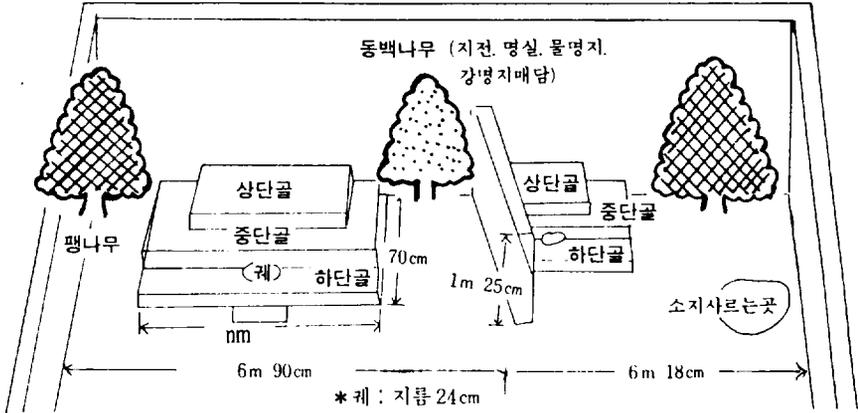
당굿의 모든 절차는 심방에 의해 이루어지며 포제가 소멸한 후 마을의 큰 행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시계획으로 현재 당의 위치가 도로화한다는 점에 대해 많은 제보자들이 공통적으로 다른 곳에 당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그림 1〉 당의 위치도



<그림 2> 본향당 내부 도식



#### IV. 個人信仰

1) 조왕제 (제보자; 김무생 男·72, 한호생 女·60, 황숙자 女·48)

① 시기: 정월에서 3월 사이에 집안 식구들의 生氣를 고려하여 有識者로부터 택일을 받아 행한다.

② 금기: 제를 행하기 2~3일 전부터 대문에 금줄을 쳐서 외부인·부정인의 出入을 禁止한다. 상을 당한다거나 해산하는 일 등, 마을 전체적으로 비린 일이 생기면 새로 택일하여 지낸다.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며, 이 제에는 남자가 관여하지 않는다.

③ 제물: 보통 약간의 떡을 준비한다. 메, 명태(또는 동태), 과일, 지전 한 권, 시라목을 올리고 祭酒로 소주나 음료수를 쓴다.

부엌을 맡은 神인 조왕을 위하여 이 제는 조왕신에게 기원하는 한편, 가내의 여러 신(문전, 안칠성, 밧칠성)에게 집안의 안녕을 빈다.

제사를 지낼 때 함께 조왕제를 행하는 경우는 문전의 음식을 걸어 부엌으로 가져가서 지낸다.

## 2) 산신제

산신은 생산을 상징하며 집안이 산에 태웠을 경우 1~2년 1회 정도 지낸다. 무덤이 없고 깨끗한 곳을 택해 제를 행하기 일주일 이전부터 祭場에 금줄을 치고 祭日 전날은 향 삶은 물로 부정을 친다. 祭日은吉日을 택일하여 행하고 제물에는 메, 시루떡, 명태, 과일, 폐백을 올린다. 이 제는 여자들이 스님이나 심방을 빌어서 지내고,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면 길한 징조로 본다. 이때에도 돼지고기를 금기시한다.

## 3) 토신제

3년에 한번 정도 정시의 택일을 받아 주로 남자가 주관하여 집안의 평안무사를 비는 제이다. 제물에는 시루떡, 편, 메, 채소, 폐백이 있다. 메는 큰 양푼으로 준비하며 상가지를 가운데 쬐는다. 채소에는 고사리, 콩나물, 미나리가 있고, 미나리는 생것으로 준비한다.

## 4) 돛제

돛제는 3~4년 1회 정도 지내는 제로 송당에서 내려온 초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초상은 손톱으로 소 두 마리를 잡아먹었다고 한다.吉日을 택일하여 집안에서 저녁에 지낸다. 3일 정도 금줄을 쳐서 외부인의 출입을 경계하고 동네에 부정한 일이 있더라도 제를 행하는 사람이 비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지낸다. 제물은 당굿과 거의 같고 제를 지내지 않을 경우 자식 혼인시 가마꾼이나 말의 발이 잘리게 된다면, 시중꾼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받게 된다고 한다. 이 초상은 일정한 곳에 좌정하지는 않으나 대를 불러가며 받아들여야 한다.

## 5) 칠성제

칠성은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3년에 한 번 지낸다. 집에 우환이 있

을 때는 祭를 지내지 못하고 祭를 지내기 전 7일간 매일 향 삶은 물로 그릇을 씻고 목욕을 해야 한다. 祭物에는 밥 두 그릇, 과일 3종, 술(감주), 해어, 계란을 올린다. 이 祭는 심방을 빌어서 하거나 절에서 지내기도 한다.

## 6) 안할망 모심

농사 풍년기원제로 ‘안할망 모신다’고 하는 제가 있다. 이 祭는 6월과 동짓달 첫 소날에, 즉 새 곡식이 나오는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지낸다. 우영에 노랍지 놀을 만들고 그 안에 팥·콩·보리·조 등의 곡식을 집어 넣고서 풍년을 빈다.

## 마당극 “쭈어나라 핵”

'89마당극 출연진

### 目 次

- |                  |               |
|------------------|---------------|
| I. 들어가면서         | IV. 마당극 공연 연보 |
| II. 마당극의 대두와 발전  | V. 공연 과정 및 평가 |
| III. 제주도의 마당극 운동 |               |

### I

우리 학과의 1년 동안의 연구와 학생활동의 성과들을 결산하는 장으로서 「아라어문학」이 태동한 지 어언 7년이 지났다. 이와함께 「아라어문학」의 꽃이라 불려지는 마당극은 올해의 <쭈어나라 핵!> 공연으로 6회의 연륜을 가진다.

그러나 매해 행사를 갖게 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어느 분야보다 많은 과원(科員)이 동원되고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이 마당극이고 또 그러한 마당극이 올해까지 6년이란 역사를 갖게 되는데, 학과사무실의 모든 자료철을 뒤져보아도 마당극행사에 대해 기록되어지거나 정리되어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마당극을 준비하는 사람들 자체가 하나의

상설조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1회 공연을 위해 모여지는 1회기적(回期的)인 모임의 형태를 갖는 데에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정리해 기록할만한 장이 없었던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그러던 것이 이번 학보에 마당극즐거리를 신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기쁘기 그지없다.

이 자리를 빌어서 1회부터 5회까지의 공연연보는 부족하나마 간단히 정리하고 제 6회 공연〈쑤어나라 핵!〉의 창작과정과 연습과정, 공연과정 등을 중심으로 이 글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마당극〈쑤어나라 핵!〉 대본을 요약하여 즐거리를 신기로 한다. 극의 구성이나 내용에 있어서 극적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산만한 작품을 그대로 드러내 놓는데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여기에 보고서를 정리하여 내놓는 것은 비록 미숙한 글이나마 학보에 게재가 됨으로써 뒤를 잇는 후배들로 하여금 이번 공연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내용과 형식을 가진 마당극으로 성장시키며 앞으로 계속 그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면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우들의 마당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마당극의 대두와 마당극의 개념, 그 발전과정 등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다.

## Ⅱ

마당극은 사회 전반의 추세와 함께 필연적으로 탄생한 시대적 산물이다. 마당극의 대두와 그 발전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4·19와 5·16 그리고 굴욕적인 한·일수교를 겪으면서 초보적인 민주

주주의 의식과 민족의식을 획득한 대학생들에 의해 당시 예술문화에 대한 반성의 하나로 이루어진 1960년대 전통예술부흥의 움직임은 일차적으로 전통 탈춤이나 판소리 등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의 작업은 대부분히 대학 연극반 내의 개인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7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부산대와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대학에 탈춤반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조직력과 집단체력을 갖고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다. 특히 유신체제라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대학가의 탈춤반은 그 열기를 더해 감으로써 ‘탈춤의 르네상스’를 이루었다.

원래 탈춤은 민중 가운데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놀이로서 민중적 역사 의식(반제 반봉건의식)과 민중적 미의식(‘노는 것’과 ‘일하는 것’을 통합시켜 봄)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고, 그런 만큼 대학생들이 탈춤에 대한 관심은 곧 민중에 대한 관심으로 직결되었다. 따라서 대학 탈춤운동은 현장과의 만남을 통해 총체적인 민중운동의 하나로서 자리매김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거듭되는 연행과 연극현장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은 전통사회의 탈춤반이 오늘의 복잡한 사회현상을 담기에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 극복방안으로 그들은 고전탈춤의 질적변화를 통한 창작탈춤을 시도하는 한편, 전혀 새로운 양식적 틀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마당극이 극적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거의 같은 시기에 리얼리즘 연극운동을 통해 기존 연극의 폐쇄성·정태성·이식성을 극복한 민족연극을 수립하고자 했던 대학 극회와의 만남에 있다.

이와같이 연극·전통탈춤에서의 두 가닥의 관심이 구체적인 현실적 실천 속에서 만남으로써 이루어진 마당극은 74년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며 이로부터 5·6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매우 다양한 실험을 거쳐서 형성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 적은 인원들이 해낸 작업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풍부하고 다양한 성과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아일보의 자유인론투쟁을 담은 ‘진동아곳’과 함평 고구마사건

을 소재로 한 ‘고구마’는 훌륭한 성과로서 기록된다.

또한 그 형성기에서부터 기층 민중운동과의 연대작업 속에서 노동현장·농민현장에서의 공연이 추진되었고, 창작에 있어서도 연희마당과 관중석이 서로 통하며 관중이 주인되는 방향으로 추구되면서 점차로 마당극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갔던 것이다.

오늘날 마당극이 우리 연극의 주도적 양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됨으로써 현실적인 힘을 획득한 양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마당극이란 무엇인가.

마당극은 풍자와 해학이란 표현수법을 가지고 마당이란 열린 공간에서 행해지는 연극의 일종으로 마당 개념을 중시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이 때의 ‘마당’이란 공간적이며 동시에 시간적인 상황개념으로서 삶의 토대이자 그 삶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문화생성의 토대이며, 아울러 공동집회의 장소이다. 그리고 그것은 놀이판이면서 동시에 삶을 억압하는 모든 외부조건에 대한 싸움이다. 연행 공간은 어둡고 닫힌 공간인 극장이 아니라 탁 트인 마당이라는 점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 판의 형성에 있어서도 ‘폐쇄·단합’이 아니라, ‘개방·열림’을 원리로 한다. 이는 단순히 놀이판과 구경꾼이 열린 판에서 만남으로써 공감대의식이 형성된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판의 열림’이 ‘의식의 열림’, ‘세계의 열림’으로 나아가는 해방의 세계관을 뜻하는 것이다. 즉 ‘열린세계’를 지향하는 이념이다.

따라서, 마당극의 의미는 마당, 햇불, 무명옷, 집단 군무, 거친 대사, 민요 등의 단순한 형식상의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념체계를 확보하고 있는 가치개념으로서, 오늘의 연극이 어떻게 존재해야 마땅한가를 되새겨보는 자세에서 비롯되어 진정한 연극정신은 과연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철저히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예술이념인 것이다.

이렇듯 치열하고 다양한 모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70년대의 마당극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양적 확산을 이룩하게 된다. 80년 5월의 광주를 겪으면서 대중의 운동적인 정서적 일체감을 확보하고, 대중을 자

발화·집단화시키는데 뛰어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상업무대 공간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70년대의 성과물들을 정리한 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당극이란 용어가 연극 용어로서 공식성을 획득한 것도 바로 이 때인 것이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확산이 이루어진 것은 대학가였는데, 이 시기에 급격히 증가한 대학의 마당극들은 70년대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유형화되어 있는 작품들으로써 당시의 전반적인 사회구조를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식이었다. 이는 80년대 들어 강화된 사회과학적 인식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파악없이 맹목적으로 대입된 데서 근거하는 것이다.

그나마 제 5공화국의 무자비한 탄압이 있었던 80년대 초에는 마당극이 일종의 대리집회와 같은 역할로서 유형화된 모습이나마 지탱될 수 있었으나, 유화국면을 맞은 85년경에 이르러서는 그 효용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학생 대중으로부터 조차 외면받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마당극도 한 걸음 더 발전할 것을 요구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관념성으로 인한 도식성과 유형성을 극복하고, 보다 사실 자체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전형적인 형상을 창조해내야 했다. 이에 대한 시도로써 채희완·임진택에 의해서 체계화된 마당극 논의가 있고, 이에서 놀이개념을 더 확대한 대동놀이·대동극론이 있으며, 1987년에 들어서는 진보적 연극도 포함시킨 개념으로서 민족극론 등이 대두된 바 있다. 이들 논의에서 공통되는 것은 기존 지식인 중심의 민중지향적 문화활동에서 탈피하여 생활문화 운동으로 즉, 민중이 창조 향유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논의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 III

1970년대부터 시작된 마당극운동의 발전 과정 속에서 ‘예로부터 소외된

변방' 제주도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1980년 8월의 수놓음문화선언으로 시작된 마당극 운동이 그것이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중앙집권적 종속문화인 제도권 문화의 반문화적 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부정하면서 수놓음은, 가장 제주도적인 것이 가장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문화의 큰 흐름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는 인식하에 그 구체적인 마당극의 모양새를 순수한 제주도의 극 형식에다 오늘날 제주도 지역사회의 당면문제를 내용으로 담아 다져나갔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들이 당국의 묘한 주목을 받게 되면서 해체되기에 이르고, 그 후신으로 '한올래', '놀이' 두 극단을 출범시켰으나, 역시 한번의 공연도 해보지 못한 채 해체되고 만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1987년에 [제주문화운동협의회]를 발족하게 되면서 그 산하에 '한라산'이라는 놀이패를 조직하기에 이른다.

## IV

전국적인 문화운동의 확산과 제주지역 문화운동의 태동 속에서 그러한 움직임들을 가까이서 접하고, 분위기를 익힐 수 있었던 우리 학과에서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자 84년에 그 첫발을 내디뎠다.

83년 5월부터 치러졌던 「아라어문학」의 84년 행사를 앞두고 그 일환으로서 마당극을 준비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고, 그 첫 공연이 계기가 되어 정기행사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올해까지 올려진 6회 공연의 발자취는 다음과 같다.

① 1984년 '세경놀이'

법정대중강당에서 공연

② 1985년 '영감놀이'

공간을 열린마당으로 옮겨 야외박물관에서 공연, 마당극 “땅풀이” 중 영감놀이 부분  
을 개작. 토지문제를 내용으로 함.

③ 1986년 ‘똥풀이’

서귀포 법환리의 분노처리장 문제를 다룸. 민주광장에서 공연

④ 1987년 ‘춘향전(春向傳)’

고대소설 “춘향전”과의 접맥을 시도하여 학생운동가의 갈등을 그림. 민주광장

⑤ 1988년 ‘먹돌풀이’

공동창작 시도. 탐동매립반대 및 피해보상투쟁을 그 내용으로 함. 민주광장.

⑥ 1989년 ‘쑤어나라 핵!’

송악산 군사기지설치 철회투쟁을 내용으로 함. 민주광장

위의 공연 연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학과에서 공연된 마당극은 한편을 제외한 전편이 지역문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제주 지역사회의 당면문제해결로부터 사회민주화의 초석을 삼고자 하는 제주지역 문화운동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1980년 제3회 공연에서부터는 현재의 제주도의 문제를 그 내용으로 다룸으로써 우리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장기화 되어가는 투쟁에 부족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하였다.

## V

그러면 앞의 다섯 차례 공연에 대한 평가 및 정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하기로 하고 올해 올려졌던 제6회 마당극 <쑤어나라 핵!> 공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정리를 통하여 우리학과 마당극 공연의 중간 점검과 그 전망을 모색해보는 계기로서 삼고 부족한 점은 차후 보완해 나

가도록 했으면 한다.

## 1. 공동창작에 대해서

넓은 의미에서 공동창작은 단지 창작탈춤이나 마당극의 작업과정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민요, 설화, 판소리, 탈춤 등의 확산과 함께 발전해 온 것이다.

마당극에서 공동창작이라는 작업방식이 시도된 것은 약 70년대 초반부터였는데, 그 기본목표를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대중문화의 일방적 압력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집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따라서 공동창작은 작품 자체의 예술성에 관심을 두기보다 작품 창작과정에서의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작업에 있어서도 하나의 공연보다는 그 성과의 축적과, 상호교류, 그리고 창작집단의 보존과 확산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 2. 경 과

본격적인 창작 준비는 4월 27일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상 4월초부터 6명 정도의 대본창작진이 느슨한 연대감을 가지고 조직되어 있었다. 공유되는 시간의 부족으로 결국, 2명만이 창작을 도맡아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내용에 있어서 빈약함이 많이 노출되었고 주관적 표현양식들이 생경하게 드러났으리라 여겨진다.

초기에 마당극의 소재로 상정되었던 것은 다음의 네 가지였다. ① 성산읍 오조리의 개발문제 ② 제동목장, 한진그룹의 비리 ③ 송악산군사기지 저지투쟁 ④ 중문관광단지 개발문제, 그러나 네 가지 중 표면상 뚜렷이 드러난 것이 송악산군사기지 문제였다. 문제제기의 단계를 떠나 조직된 싸움의 위치로까지 발전된 단계였으므로 극화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었고 미래의 전망까지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소재를 송악산군사기지건으로 결정하고나서 송악산군사기지 저지투쟁 자료 및 군사기지에 관련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나갔고 그러는 가운데 미 공군훈련장이 있는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의 실태들을 접하게 되었다. 소음피해는 물론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매향리의 실태와 죽음까지도 불사한 매향리 주민들의 싸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해냄으로써, 송악산 싸움의 정당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해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극중의 현장을 송악산-매향리-송악산의 순으로 이전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큰 틀을 거의 구성했을 즈음에 송악산 군사비행장 설치건을 재조정하겠다는 내용을 신문지상에서 접했다. 이에 대정읍민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승리에의 무조건적 도취를 경계해야 한다는 상황의 자연적인 요구에 따라 첫째 마당과 다섯째마당의 송악산주민 마당을 구성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5월 7일에 1차대본이 완성되었고, 5월 8일에는 배역진과 창작진의 첫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대본을 한 차례 읽어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주민들의 피해부분이 나열에 그친 것 같다. 압축 또는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과 ‘너무 긴 대사들은 쉽게 풀거나 지루하지 않게 동작을 곁들였으면 좋겠다’는 지적, ‘싸움 결의 부분이 즉흥적인 것보다 진전된 상태로 표현됐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세 가지의 지적이 대본 수정에 도움이 되었다.

이후 만남에서 공연까지의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짙막하게 정리하기로 한다.

- 5월 9일~12일 대본읽기 연습 및 암기
- 5월 13일~16일 마당구성 연습
- 5월 17일~28일 작은선 익히기
- 5월 20일~21일 인간관계 훈련

여기에서 마당극의 제목을 설정하고 미군재판마당 공동창작. 그외에 군사기지 실태자료를 갖고 토론. 극중에 삽입되는 노래·춤 익히기.

—평가: 자료를 마당극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을 통해 공유했다라면 연습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지적과 함께 인식한 만큼 적극적인 태도로 연습에 임하자는 결의를 내음

- 5월 24일 팸플렛 및 노래유인물 제작, 소품설정
- 5월 25일 소품제작 및 구입
- 5월 26일 싸움마당 재구성
- 5월 31일 총연습
- 5월 1일 공연
- 5월 13일 평가 및 뒷풀이

### 3. 평 가

6월 13일의 전체평가를 통해 지적되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대본창작에 있어서

— 창작진의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공동창작에 있어서는 거의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토론을 통해 공통의 요소를 뽑아내지 못하고 개인적 표현형식에 그친 것이 아쉽다. 창작진의 구성은 좀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루어져서 각 구성원 간의 창작에 대한 공통된 목표를 세우는 것은 물론, 1차로 완성된 대본을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1차대본이 나온 후의 수정·보완작업에 대해 너무 단일한 태도로 임했음도 지적이 된다. 이와 함께 창작진과 배역진의 분리에서 나타나는 문제 또한 크다. 창작진과 배역진은 따로 구성되는 것보다, 통일된 하나의 구성체로서 창작과 배역을 연결선상에서 담당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함께 모여 창작을 해 보면서 극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익히고 구성원 간의 연대감은 물론 연습과정에서의 책임감도 강해질 수 있는 바람직한 형태라고 본다. 더 욕심을 부린다면 국문학과와 마당극 공연을 담당하는 놀이패가 1회적인 모임이 아닌 하나의 상설 기구로서 자리잡고 계

속적으로 활동 해나갈 수 있고 더 나은 성과를 축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대정 지역 현지 답사나 매향리의 실태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사를 거치지 못한 채 작업에 임한 데서 드러나는 관념성의 문제 또한 빠뜨릴 수 없다.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식의 대사 전달과 이야기 전개가 상황극이 줄 수 있는 효과를 반감시킨 것 같다. 그리고 사실상 액자극의 형태를 사용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강렬하게 나타내 주기 위해 주 무대인 경기도 화성군 매양리를 충청도로 가설정 하였으나 의도와는 달리 그 특성이 두드러지거나 전형적이지 못하여 관객에게 오히려 혼돈을 가져다 준 면도 있다.

— 대본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 전달하고자 하는 욕심은 많았으나 대사위주의 무미건조한 진행이나 주제를 산만하게 드러내는 등 표현면에서 미숙함을 많이 보였다. 그리고 지역문제와 정세 파악이 자연스럽게 맞물리지 못함으로 해서 전체운동과는 동떨어진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로 축소시켜 버린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한편, 구성에 있어서는 극 중 극의 중첩이 극의 내용을 난해하게 하여 관객의 이해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있다.

## ② 연습과정에서

—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학습의 기회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성원들 간에 유대감이 부족했다. 이런 점들이 연습과정에서는 종종 불성실하고 개인주의적인 태도로 나타나기도 했다.

— 전문적 연출자의 부재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공동연출 의식의 부재.

## ③ 공연과정에서

— 공연장에서는 대부분의 배역진들이 공연에 대한 부담감으로 과도한 행동이나 지나친 추임새 등을 평소 연습때보다 많이 하게 되는데 이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적절한 추임새의 경우는 길고 밋밋한 이야기 전개를 지루하지 않게 하는 잇점도 있으나, 너무 지나칠 때에는 대사전달이 잘 안

되고 원래의 분위기를 흐려놓음으로써 역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번 공연의 경우는 그런 예가 특히 많았다. 비디오 장면을 예로 들면 가장 비장해야 할 시위 장면이 관객들의 웃음바다로 변해 버렸던 경우가 그것이다.

— 이번 마당극을 대하는 관객들의 호응도는 대체로 낮았던 것 같다. 폭 소외에 연기자의 대사에 응수하거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관객은 극히 소수였다. 그러나 관객수가 많았던 것으로 보아서 주 원인은 우리가 관객의 생리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던 데 있었던 것 같다. 관객을 그저 바라보는 입장으로만 극을 진행했고 관객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마당판에서 관객을 휘어잡을 수 있는 여유와 진지함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보아진다. 많은 관객들이 소극적인 응수로나마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배역진들의 진지함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고 긍정적인 평가도 해본다.

배역진들의 연기력 부족이라는 측면은 비전문 비상설집단이라는 우리의 위치에선 그 한계성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끝으로 마당극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앞풀이와 뒷풀이에 대해서는 세밀한 계획이 부족했음이 지적된다. 공연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연대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개방·열림의 판이기 위해서는 그 하나됨을 확인하는 뒷풀이의 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런데 이번 공연의 뒷풀이 부분은 가장 허술한 부분이 되어버렸음을 깊이 통감한다.

짧은 준비기간과 허술한 대본, 모든 부분에 서투른 마당극 초년생들이 모여 때로는 개인적인 이해와 공동의 이해가 엇갈린 가운데 갈등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다독거리면서 이루어낸 역시 서투른 한편의 성과물 <썩어나라 핵!/>,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얻었던 경험들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무척 소중한하다.

#### 4. 극의 줄거리

##### <첫째마당>

•첫째거리 : 대정 주민들이 싸움이 끝난 뒤 비디오 장면을 통해 싸움 과정을 되돌아보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그러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토로.

•둘째거리 : 작전지휘관과 람보가 등장하여 한미관계와 팀스피리트훈련의 실상을 보여줌.

##### <둘째마당>

•첫째거리 : 미공군훈련장의 폭격연습으로 인해 소음피해와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는 매향리 주민들의 모습.

•둘째거리 : 매향리에 미공군훈련장이 들어서는 과정을 아낙 1을 통해 듣는다. 극 중 극의 형태.

•셋째거리 : 소극적인 싸움의 형태인 진정서로는 해결이 되지 않음을 인식한 마을사람들이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싸움 결의.

•넷째거리 : 원폭피해 영령들이 우리나라 핵폭발의 위험 경고.

•다섯째거리 : 서서히 시작되는 싸움에 불을 당긴 하나의 사건·팀스피리트 훈련 중의 미군이 만삭의 마을 아낙을 겁탈.

##### <셋째마당>

재판마당, 재판장과 미군, 변호사가 작당하여 오히려 피해자인 아낙과 마을사람들에게 유죄판결. 마을사람들 미공군훈련장 점거 결의.

##### <넷째마당>

싸움마당 결의대회를 갖고 미공군훈련장을 점거한 마을사람들과 완전무장으로 맞서는 전경들 사이의 한판 싸움을 예고하는 가운데 우리 땅은 죽어도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는 마을사람들의 결의.

##### <다섯째마당>

매향리의 실태를 접한 대정주민들. 어떤 일이 있어도 군사기지가 다시 발붙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재다짐.

# 學會發表要旨

(글풀이연구회)

## 민중적 민족문학에 대하여

### I. 서 언

민족문학이란 무엇이며, 그 이념적 지표는 어떠한 것인가? 민족문학의 본질적인 요인은 어떻게 범주화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 문학의 정신사적인 의미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 논쟁적인 성격의 글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 온 과제이다. 민족문학에 대한 논의가 제도적인 문학의 관습을 뛰어넘는 문제성을 지니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문학의 개념은 민족 전체의 삶의 의미와 그 역사적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민족문학론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족문학이 지니는 논리와 함께 그 한계, 개념, 실천적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 론

'70년대 초부터 그 싹을 보이기 시작한 민중문학론은 주로 백낙청에 의해 민족문학론의 일환으로 전개되면서 민중과의 거리를 꾸준히 좁혀가는 과

정을 견게되며, '80년대 역사에서의 민중의 대두와 역사적 상황으로 민중자신에 의한 문학의 이론으로 발전되어 간다. 그러면 우선, 민족문학의 개념을 알아보고 민중문학론이 나오게 된 배경, '70년대 민중문학론과 80년대 그것과의 연결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백낙청 교수에 의하면 민족문학의 개념을 민족문학의 주체인 민족이 그 민족으로서 가능한 온갖 문학활동 가운데에 그 민족의 주체적 생존과 인간적 발전이 요구하는 문학을 민족문학이라 하였다. 그리고 민족문학의 사명을 민중에게 주어진 시민혁명의 과제 위에 놓음으로써 그 개념을 더욱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켰다. 민족문학이라는 것은 민족 구성원들의 정녕 인간다운 삶의 실현, 곧 인간 해방에의 복무를 지향하며, 자주·자립적이고, 민주적인 통일민족국가의 건설이라는 8·15해방 이래의 민족적 과제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자기해방(인간해방)은 자립적 민족경제, 진정한 민주주의, 생산적 노동가치와 공동체적 삶이 존중되는 사회풍토, 자주적 창발력에 입각한 민족문학의 확립을 통한 민족통일의 구현 과정에서 주어지는 것이기에 민족문학은 민중문학의 하위 범주으로써 민족해방에의 문화적 접근속의 문학적 형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민중문학론은 '70년대 우리문학이 재확립하고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이론적 틀이었다. 민족문학론은 그 간의 논의의 진전을 바탕으로 리얼리즘을 그 방법론적 기초로 삼고, 제3세계론으로 세계사적 차원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민족의 분단문제 또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운동과 민족문학운동의 주도세력으로서 민중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 인식이 부족했고 작품생산에 있어서 민중의 주도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민중문학은 민중에 기초한 민중문학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다. 민족적존재라는 맥락에서 민중이야말로 민족해방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민족문학은 주어진 사회적 틀 속에서 비인간적 삶을 강요당하는 민중들의 삶의 현실을 토대로 그러한 삶의 한복판에 응어리진 고통과 요구를 형상화 해내는

문학으로 구체화될 때 참민족문학으로 설 수 있다. 또한 민중문학은 첫째 생활하는 민중 쪽에 서서 민중을 대상으로 하여, 둘째 역사적 진실을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서 발현되는 삶의 고뇌와 인간적 요구의 감성적이고 일상적인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셋째 나아가 민중적 요구의 실현을 위한 길을 제시함으로써 민중의 사회 실천적 요구에 답하는 문학으로 규정된다. 곧 민중문학은 리얼리즘에 의해 구체화되게 된다.

'70년대 민중 및 민중문학론의 대두는 '60년대부터 진행된 근대화로 인해 노동자 계급이 급격히 증대되고, 10월유신에 의한 독재체제가 성립되면서 유신독재 타도로써의 민중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기점으로 분단극복과 제국주의적 지배관계의 해소를 위한 민족해방 주체로서 민중의 인식이 대두되는 사회·경제적 민족사적 배경에 의해 등장하였다.

문학이란 측면에서 민중을 파악하려고 하는 경우, 민중개념에서 중요한 것으로 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민중이 직접적 생산자적인 범주이고, 역사적으로 자기 회복에 의해 다시 역사의 주인으로 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것은 문학이 인간의 해방과 자유의 실현을 의도하는 것이라는 데에서 비롯된다. 곧 문학은 관념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해방을 성취할 뿐 아니라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필연을, 우연을 매개로 표현·설명하고, 소외로부터 인간해방을 시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민중은 현재의 정치·경제 구조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노동자·농민·도시빈민 등과, 이들에 이념적으로 동조하는 진보적 지식인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민중이 대두되면서 발전한 민중문학은 민중적 열망과 요구가 역사의 표면으로 거대한 힘을 가지고 분출한 '80년대에 와서 더욱 뚜렷해진다.

민중문학은 결코 문학을 이념과 조직의 규율성에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다. 민중문학은 역사 발전의 주체인 민중 쪽에서 민중현실의 전체상을 민중의

구체적 삶을 토대로 민중해방의 바람직한 미래전망 아래 형상화한다는 확고한 기본적인 방향성 위에서, 민중적 필요와 요구에 따라 다양한 자기전개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외세·반매판의 민중적 민족주의, 민중적 민주주의를 굳건한 자기이념으로 하면서, 이를 주어진 측면마다 민중해방의 구체적 필요와 요구에 맞춰 다양하고 창조적으로 구체화한다.

그러한 다양성과 창조성을 일부 전문 문학인들의 독점 아래 두지 않고, 창조와 수용 모든 측면에 걸쳐 범민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형식, 매체, 문체를 형성하는데 문학 지식인들이 매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민중의 일원으로 전환될 것을 오늘의 우리 현실은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의 사회적 상황은, 그와 같은 노력이 기층민중이나 지식인 가릴 것 없이 한데 어우러져 통일성 속의 역할분담 체계에 기초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고립분산상에 따른 문학주의적 허위에 함몰될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의 실현 과정은 곧 삶과 일의 소외를 극복하고 문학행위자 자신들이 자기해방을 이룩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 주어지는 인간소외의 틀을 뚫고 자기해방과 민중해방을 동시에 일궈가는 민중문학에의 정착이야말로 개인주의와 자기목적성에의 함몰에 따른 소외된 문학을 인간해방의 문학으로 일으켜 세우는 창조적인 노력인 것이다.

‘민중문학’이란 무엇인가. ‘70년대 초부터 ’80년대에 접어든 지금까지 여러 첨예한 문학 논의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심적 용어가 ‘민중문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 규정에 있어서 거의 합의불 이루지 못하고 있다. ’80년대 들어 민중문학론의 새로운 지평이 점차 뚜렷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70년대의 민중문학론과의 연속성을 지니면서도 중요한 곳에서의 단절을 내보인다.

### 〈'80년대 후반 노동문학의 발생〉

1985년 이 시기의 민중문학에 관한 논의들에서 가장 열띤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노동자문학인데, 여기에는 노동자문학을 중심으로 문학의 급진적 변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노동(자) 문학에 대해서 급진성, 계급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다음 관점에서 작품의 평가가 이루어지면 해소되리라 본다.

노동자문학이 지닌 적극적 의미는 하나의 문학작품으로써의 자기완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동문제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족·민중적 모순의 실상을 구체적인 현장성을 통해 표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 그리고 민중의 기본구성에 제후적으로 포함되는 중간계층에게 그 현장성의 생생한 전달을 통해 이 계층의 자기쇄신과 민중해방운동에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민중내부의 보다 튼튼한 결속을 가져오는 매개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자문학 작품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자문학도 민중·민족 성원들의 인간해방에 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기에 민중문학이란 큰 범주에서 보고, 우리나라처럼 민족문제가 절실한 곳에서는 민족문학이 민중문학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조정환이 “철저한 노동자 계급의 입장만이 보편 민중을 대변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라고 했듯이 지금의 시점은, 문학은 철저하게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에 기초해서 민족문학을 이해해야 한다.

## Ⅲ. 결 언

이상 민족문학에 관해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일단 민중 각 부분의 문학적

요구를 촉발시키고 조직하는 현장문학운동 차원에서의 문제제기는 접어두고,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관철시키면 민중문학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문학에 대한 물질적 파악이 타파되어야 한다. 재능이나 영감이 문학생산의 기본조건이라는 의식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주의적 문학관이 타파되어야 한다. 셋째, 민중 각 부분의 문학적 산물들이 독자 매체를 통해 기록되고 정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기초 위에서 자기 이해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자기들의 문제에서 우리 민족현실의 총체성을 드러내어 그 모순에 대항해 나가는 집단적 노력을 형상화할 때, 민족문학은 비로소 그 부분들의 완전한 확보를 이룰 수 있으며, 그로부터 진정한 전일적 총체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민중문학은 민중속에 있어야 하고 민중 스스로의 것이어야 한다. 민중 속에서 새로이 고개들기 시작한 문학운동을 돕는 것은, 그들 민중문학인을 민중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민중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민중문학은 문학자로서의 민중이 아니라 생활인으로서의 민중이 자기의 일상적 생활에서 자기 삶을 표출하는 힘을 다같이 갖기에 이르렀을 때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 채 만 식 論

채만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 제 21차 국제펜클럽, 서울대회의 주제가 「동서문학의 해학」이었던 것이 중대한 계기가 되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70년대 연구의 두 흐름은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반기에는 긍정적인 재평가 작업이 주된 경향으로써, 그 관점이 사회·역사의식이나 풍자적 기법에 치중되어 있으며 풍자적 특성의 몇몇 작품에 연구가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 1975년을 전후해서는 총체적 연구가 시도되었다. 후반기에는 보다 깊이있게 채만식 문학세계의 다양한 면모가 다루어져 전통성 계승으로까지 관심이 확대되어감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채만식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을 지양하고 세 부분으로 축소시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그의 문체적 특성, 둘째 채만식이 어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어떻게 문학화했는가를 고찰하고, 아울러 일제치하라는 암울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현실참여적인 의식의 반영인 풍자문학의 가치, 셋째 ‘소년’의 motif를 중심으로 작가 채만식의 세계관과 다양한 삶의 양상을 통한 정신사적인 궤적을 해명해 보기로 하겠다.

한국문학에 있어 1930년대는 내면화의 과정으로 특징화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채만식은 소박하나마 ‘소년’을 통해 내면화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본다. 여기서 ‘소년’은 작품 속에 작가정신의 실현과 현실비판의 소도구로써 내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레디메이드인생」에서 지식인 P가 이르는 결론은 왜곡된 사회에서의 훼손된 교육은 무력감만 줄 뿐이라는 사실이

다. 그러기에 아들 창선이를 인쇄소 직공으로 취직시키게 된다. 채만식이 있어 ‘소년’은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에 ‘소년’만큼은 적어도 왜곡된 교육으로 인한 무기력한 삶의 희생자로 만들 수 없다는 자각에서이다. ‘소년’을 취직전선에 임하게 함으로써 소극적이거나, 무기력한 지식인과는 다른 인간, 그리고 훼손된 교육보다는 오히려 건전한 노동을 택하는 산 인간을 지향하는 것이다.

채만식은 해방 전후의 작품을 통해 ‘소년’을 등장시켜, 작품의 결말에 반전을 이루도록 모색해 보았으나, 그 모색이 시도으로써 끝나고 미래의 전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음은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부분적인 한계성은 <탁류>로 대변되는 한 가닥과 <민족의 죄인>을 거쳐 <소년은 자란다>에서 비로소 극복이 가능해진다.

<민족의 죄인>은 채만식의 작가정신의 분수령에 해당하는 작품으로써 자기 비판적인 성향을 보여 준다. 친일행위를 한 지식인이 자신의 친일행위에 대한 변명의 구실을 찾으려 하지만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정직한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한 결단의 순간에 비로소 죄의식에서 해방되는 후련함을 느끼며 구원된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되었다. 극도의 허무주의적 상태에서도 ‘소년’을 지탱해 온 그였기에, 여기서 다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소년’이 등장한다.

채만식 소설 가운데 <레디메이드인생>을 중심으로 대체적으로 파악되는 그의 문체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길.” P는 혼자 투덜거리며 지금까지 있던 기념비각 옆을 떠났다. P는 자기 자신이고 세상의 모든 일이고 모두 짜증이 나고 원수스러웠다.

이 예문은 <레디메이드인생>에서의 주인공 P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다. 고유한 이름이 없고 P라는 기호를 갖고 등장한 이 인물은 이른바 <레

디메이드인생 >으로 정의되는 장본인으로 시대가 낳은 새롭고 생소한 인물 유형이다. 발판을 얻지 못한 인간, 이미 자기한계를 의식하고 좌절과 자조 속에서 주체적 자아를 상실한 인간을 풍자적으로 그려주고 있다.

“흥! 망할 자식들!” P는 혼잣말로 이렇게 투덜거리며 C와 작별도 아니하고 밖으로 나와 버렸다.

“양반? 흥! 누구는 발이 하나길래 너희만 양반이라느냐?”

그리하여 <부르조아지>는 가보를 잡고 공부한 일부의 지식군은 진주를 잡았다.

그러나 노동자와 농민은 무대를 잡았다.

“편지를 뜯어 읽고난 P는 말가웃(一斗半)이나 되게 한숨을 푸 내쉬었다.”

대체적으로 채만식의 문체를 貫流하는 어조는 다분히 냉소적이고 풍자적이며 해학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위에 든 몇 토막의 예문에서도 잘 나타나는 바와 같다. ‘흥’하는 코웃음은 특히 냉소적인 표현으로써 여러군데서 풍자와 해학을 겸한 표현으로 그 뉘앙스가 확대되어 쓰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채만식의 풍자와 냉소의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당시의 사회와 지식인을 위시한 이른바 부르조아지쪽에 있었다고 볼 때 이는 채만식의 작가 의식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한편으로는 한 행세거리로 또 한편으로는 구직군 격퇴의 수단으로 자롱이 현창 쓰듯 썼을 뿐이지—”

“대원군은 한말의 <돈키호테>였다. 그는 바가지를 쓰고 벼락을 막으려 하였다.”

“<부르조아지>의 모든 기관이 포화상태가 되어 더 수요가 아니 느니 그들은 결국 피임을 받아 나무에 올라갔다가 흔들리는 셈이다. 개밥의 도토리다.”

“그 나머지는 모두 어깨가 축 처진 무직 <인텔리>요 무력한 문화 예비군 속에서 푸른 한숨만 쉬는 초상집의 주인 없는 개들이다.”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속담 또는 욕설의 인용은 채만식 문체의 토운을 한층 餘裕 있고 해학적인 것으로 채색해 주고 있다.

이처럼 채만식의 풍자는 그의 사회의식이나 비판적인 정신과 또한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사회의식이나 비판적인 정신은 일단 낙관적이기보다는 비판적이며,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쪽과 연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때 채만식의 문체소로써 ‘아니’와 같은 부정어사의 步貢用은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K씨의 힘 아니 드는 한 마디의 거절에도 새삼스럽게 실망도 아니한다.”  
 P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고개를 숙였다.  
 “K사장은 P가 낙심해 하는 것을 보고 밀천이 들지 아니 하는 일이라서 알뜰히 걱정을 나누어 준다.”

다음은 당시 <레디메이드인생>으로 정의된 ‘인텔리’의 내면의식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언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P는 포켓 속에 손을 넣고 잔돈과 지폐를 섞어 삼원 남은 돈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면서 왼편 손으로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삼원은 곱셈이져 보았다. (中略) 삼원의 열여덟 곱셈이가 일백 오십만원이니 꽤 쉬운 일이다. 그놈만 있으면 백만원을 들여서 오십전짜리 십육 페이지 신문을 하나 했으면 우선 K사장이 엉엉 우는 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대로 십오원만 있어도 우선 방세와 전등삿을 주고 한 달은 살아가겠다. P는 한숨을 내쉬었다. 한 달? 한 달만 살고나면 그 답은 어떻게 하나?…… 그대로 몇 백원은 있어야지. 아니 몇 천원은 아니 몇 만원은 P는 늘 하는 버릇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공상을 되풀이하였다.

위의 예문에서와 같은 사실은 물론 극히 한 단면에 불과한 것이나, 당시의 이른바 <인텔리>가 얼마나 허망한 공상에 젖어 있었느냐는 그 때의 시대상이나 분위기와 더불어 잘 설명해주고 있는 좋은 예이다.

풍자소설의 본질과 역사의식을 다음에서 살펴보겠다.

“무엇에 빗대어 비유하는 뜻으로 욕함”, “돌려서 슬며시 사회, 인물의

결합, 최악 같은 것을 말함” 등이 풍자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풍자문학에 이르면 이 사전적인 어의만으로는 족할 수 없다. 풍자문학의 본질을 보면, 풍자문학은 예술성과 함께 사회참여의 기능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성과 善良을 억누르는 흉악함과 비열함을 극복하려는 挑戰이 문학의 풍자성이 갖는 목적이라 할 것이다.

풍자문학의 경우 비판은 반드시 혼돈된 질서의 矯正, 새로운 질서의 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풍자문학은 기법상의 특성으로 간접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회에 가공할 힘이 나타나 그에 준한 질서를 강제로 확립하고 복종을 강요할 때 문학인은 크게 두 가지 태도로 이에 대처한다. 하나는 순종적 태도요, 다른 하나는 불복적인 것이다. 후자는 강압적인 支配體制에 맞서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저항문학이다. 강제된 모순투성이의 질서에 불복하면서도 정면에 나서서 성토했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그 질서의 모순성, 비열함을 공박하는 이 태도는 풍자문학의 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최재서는 그의 〈풍자문학론〉에서 고래로 많은 풍자작가는 이 성질을 이용하여 그 시대의 최악을 정면으로부터 공격하지 않고 측면 혹은 이면으로부터 공격하였다. 그것은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통쾌미는 있을망정 사람을 찌르고 질식시킬 만한 심각미가 있다. 또한 최재서는 1930년대 한국문학을 논하면서 “위기에 처한 조선이 나아갈 길은 풍자문학의 길 밖에 없다”고 했다. 이는 당시 일제의 단말마적인 압박 속에서 현실을 그나마 비판할 수 있는 여지는 풍자문학 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곧 풍자문학의 기능을 표출한 말이다.

이러한 풍자문학의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풍자문학의 작가는 먼저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곧 작가가 현실 파악의 거점을 단순히 현상에만 치우치지 않고 그 주변을 꿰뚫어 보는 역사의식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이다.

채만식의 풍자소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비판대상의 다양

성이다. 그의 풍자소설을 분석해 보면, 그가 사회곳곳에서 일어나는 비리·홍포·저열을 발견하고 좌충우돌 공격과 비판을 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밥 해결을 못해 빈털터리로 직장을 찾아 헤매는 <레디메이드인생>의 P, 있는 땅마지기를 모두 팔아 머리에다 학문만 채웠을 뿐 아무짝에도 써먹지를 못하는 인간이 되어버린 ‘明日’의 범수를 등장시켜 교육정책에 나타난 일제의 흉계를 폭로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이러한 우민교육을 받은 인텔리를 조롱했다. 다시 말하면 채만식은 일제의 우민교육정책, 한민족의 맹목적 순응, 인텔리의 무능·무기력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그의 비판, 攻擊이 시공과 상황의 변화를 초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제시대 그는 사육에 눈 먼 阿世者들을 맹렬히 공격했다. 尹直眞은 벌레같은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이 인물을 통해 당시의 사회풍조를 비판하고 있다. 이 일면만 보면 채만식이 항일문학가에 그치고 만다. 만일 그가 단순히 항일문학가였을 뿐이라면, 그는 해방과 함께 풍자의 붓을 거두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사회를 보아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해방 이후에도 비판의 붓을 들었다. 어제까지 일본의 종 노릇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던 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우국충정에 피끓는 志士로 둔갑하는 꼴을 그는 보아 넘길 수 없었다. 「도야지」, 「孟巡査」 등은 이러한 채만식의 참을 수 없는 분노에서 쓰여진 것이다.

이러한 시공이나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끊임없는 풍자를 계속한 근거는 앞서 서술한 풍자문학과 역사의식과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셋째, 인물들의 성격에서 엿볼 수 있다. 그의 풍자소설에는 매력적인 인물이란 찾을 수 없다. 즉, 그가 창조한 등장인물들은 그 풍모에서, 사고에서, 행동에서 영웅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일말의 호감도 가질 수 없다. 「태평천하」의 尹直眞은 물욕에 눈이 어두운 백치, 「미스터 方」의 方은 가련한 노예근성의 소유자 痴叔의 아저씨는 중증 결핵환자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풍자소설에 등장하는 단역들마저 거의 추악한 꼴을 하고 있다.

이는 풍자소설의 본질과 풍자작가의 상관성을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문학사에 있어서 암흑시대를 거쳐왔던 한 작가의 정신사적 측면에 입각하여 나타난 문학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세태묘사에 많은 신생어, 그리고 외래어 심지어 “P”와 같은 기호인간이 작중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인간의 본래성 즉, 주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새로운 인간형을 냉소적인 시각으로 포착하여 풍자적인 어조로 그려주고 있다.

둘째, 그의 풍자소설에 나타난 공격대상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우민교육을 공격할 때도 그러한 모순된 교육정책을 수행하는 일제와 함께 피교육자인 한민족의 맹목적인 순응을 비판했다. 또한 그의 풍자소설의 비판과 공격은 시공과 상황의 변화를 초월하고 있다. 이는 역사란 진리추구이며 그 과정에서는 언제나 모순과 비리가 있다는 그의 역사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풍자소설에는 he-ro가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작가 채만식의 작품이 보여주는 다양한 삶의 양상은 시대의 질곡을 견디다 못해 작가적 삶의 진정한 모습을 포기해버린 패배적 삶의 모습과 진정한 가치를 이 땅에 실현시켜 보겠다는 강한 의지의 소산인 비극적 삶의 양상, 그리고 발전적인 미래의 전망도 아울러 보여 준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삶의 양상은 일관되게 〈소년〉에 연결되어 작품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소년〉이란 것이 단순한 의미 영역을 벗어나서 작가 세계관의 핵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힘겨운 시대적 질곡을 ‘소년’과 함께 열어나간 ‘눈물겨운 진보주의자’이다.

## 참 고 문 헌

- 李東熙, 「채만식 소설의 문체양상」 대구교육대학 국어교육 논지 9.
- 李相甲, 「채만식 연구」 경남대학교 어문논집 2회.
- 李美羅, 「채만식의 장편소설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9.
- 張良守, 「채만식 풍자소설에 나타난 역사의식」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 15집.
- 尹柄魯, 「현대작가론」 二友출판사.
- 鄭漢淑, 「현대 한국작가론」 고려대학교출판부.

## 노래문화에 대하여

### I. 머 리 말

노래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사오년이 되어가건만 해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거듭 드는 것은,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문화·노래문화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하려 하는 조직운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노래운동·음악운동이 틀에 잡힌 조직운동으로 성장하고 이 사회의 노래문화·음악문화를 변화시킬 실질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중음악과 고급음악의 문제를 모두 포괄하여 생각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실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 사회의 각 부분에서 노래문화·음악문화에 대해 건강한 문제 제기를 하는 여러 초보적인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기존의 노래문화의 특성과 그 문제점, 그리고 그것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노래문화의 움직임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노래문화·음악문화를 위한 움직임과 인식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II. 몸 말

#### 1. 대중가요의 문제점

대중가요는 예술작품이기에 앞서서 하나의 상품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

에서 상품의 형태를 띠고 있는 예술작품은 비단 대중예술 뿐만은 아니다. 따라서 대중가요는 본질적으로 상업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가지며, 경제적 지배집단의 이익에 봉사한다. 또, 한편으로 대중예술은 공개된 매체에 의해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 대중적 확산력이 크므로 정치적 간섭 내지는 통제를 받게 된다. 심의 및 여타 정치적 규제에 의해 걸러지고 또 오랜 규제에 의해 창작자들 스스로 심의와 규제를 의식하여 별 문제가 없도록 만든 대중예술은 당연히 정치적 지배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체제유지·체제순응의 이데올로기이다. 대중가요에 있어서 이러한 정치적 특성은 대중가요의 획일성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는 대부분이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다. 그리고 건전가요는 모두 기쁜 감정만을 노래한다. 다시 말해서 슬픈 감정의 건전가요는 없으며 슬픈노래는 모두 사랑과 이별에 대한 노래일 뿐이다. 남녀간의 사랑이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중에서도 매우 높은 감정상태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노래와 같은 예술로 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 대중가요의 내용에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중가요의 대부분이 그리고 슬픈 대중가요의 전부가 사랑과 이별의 노래라는 점에 있다.

일제시대로부터 이러한 사랑타령은 덜 사회적이고 덜 정치적이 될 수 있는 매우 개인적인 주제였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의식을 정치적인 방향 혹은 여타 일상의 삶에 대한 여러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사랑타령으로 획일화된 대중가요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생겨나는 다양한 이야기거리, 감정, 사상 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슬픔과 불만족의 배출 통로를 단일화시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입막음하며, 나아가 남녀 간의 사랑 그 자체조차 진실되게 그려내지 못하는 것이다.

건전가요류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모습은 일반인의 눈에 떨 정도로 적

나라하게 노출되어 왔다. 그것도 여러 생활감정이 복합된 슬픔이 아니라, 슬픔이나 절망, 불만족 등의 감정이 일방적으로 거세된 극단적인 기쁨의 감정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다. 기쁨이나 희망 등은 현실의 어려움과 좌절, 슬픔 등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로서만 가능하며 또, 기쁨이나 슬픔 중에서도 양자택일이 아니라 그다지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잔잔히 그려나갈 수도 있다.

일제시대에도 역시 이러한 건전가요는 있었다. 1939년에 발표된 ‘감격시대’도 이러한 건전가요의 맥 안에 있다. ‘거리는 부른다/환희에 빛나는/숨쉬는 거리다/미풍은 속삭인다/불타는 눈동자/불러라 불러라 불러라 불러라/거리의 사랑아/휘파람을 불며가자/내일의 청춘아’ 이러한 노래는 이 암담한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던 노래이다라는 식의 변명을 해왔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 대한 파악이 결여된 희망이므로 무망한 것이며, 게다가 그러한 희망찬 시대를 현재가 그러하다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었으므로 체제순응적이며 나아가서 친일적인 작품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일제말기에 이르면 모든 예술인이 그러했듯이 가요계도 친일에 앞장서게 되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게 된다. 당시 일본어로 혹은 우리나라말로 불리웠던 이러한 노래들은 가요계로서도 부끄러운 흔적이기 때문에 현재 일반인들에게까지 알려져 있지는 않다.

해방 후, 이러한 노래는 해방의 감격을 노래하거나 씩씩한 군인아저씨, 살기좋은 우리 사회를 노래함으로써 건전가요의 맥을 이어왔다. ‘우리 마을, 육군 김일병, 서울의 찬가, 빨간 마후라’ 등의 건전가요는 80년대 들어서면서 ‘아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슬픈 사랑과 기쁜 건전가요로 구별되는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는 현실, 사회, 삶 등의 것에는 찬양할 자유만이 주어지고 슬픈 감정은 오직 사랑과 이별에만 국한한다는 억압적인 통제원칙을 드러내고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일제시대의 대중가요는 일제의 식민지정착을 찬양 내지 방조하였다. 악곡에 있어서는 일본의 소화시대의 유행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다. 아직도 애창되고 있는 뽕짝이라 불리우는 가요형태는 트로트풍의 외색가요를 지칭하는 말로 ‘뽕짝짝 뽕짝’ 하는 리듬에서 이름을 만들었다. 뽕짝가요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음계와는 전혀 다른 ‘라시도미파’의 단조 5음계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많이 쓰였던 2박자, 4박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뽕짝의 원류가 한국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애수의 소야곡’ 뿐만 아니라, ‘눈물젖은 두만강, 알뜰한 당신, 나그네 설움’ 등 상당수 인기곡들이 된다.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요만은/눈물로 달래 보는 구슬픈 이 밤/고요히 창을 열고 별빛을 보면/그 누가 불러 주나 휘파람 소리’ 해방 후에도 일본식의 가요는 계속 남아 있었다. 이미 40년 동안 감수성이 변화하였고 이를 유지시키는 방송국 음반업계의 재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물밀 듯 들어 오는 또 다른 외국문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의 대중문화이다. 미국의 대중가요 등 팝문화는 우리의 감수성을 파고 들었고 60년대 이르러서는 미국의 영향이 한국의 대중문화 속에 토착화되는 모습이 드러난다. 트위스트 리듬의 노래들이 인기를 끌고 미군 부대 밤무대 출신들에 의해 발라드풍의 가요가 만들어져 불리웠다.

70년대 들어서서는 해방 후 세대들의 등장으로 미국적 감수성은 완전히 토착화 되었으며 음반수입을 통한 팝송의 수용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대중문화는 우리나라 문화보다 우월한 문화로 군림하면서 일방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대중가요의 미국 의존성은 일차적으로 미국 음반산업의 이익을 보장하여 준다. 미국식 대중문화는 우리의 생활감각을 미국식으로 변화시켜 소비패턴을 미국식으로 바꾸어 넣음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한다.

대중가요는 이처럼 모두 체제순응주의와 문화제국주의라는 두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공생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특성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의 반영임과 동시에 그러한 문제의 제반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 2. 새로운 노래문화의 움직임

우리 사회의 노래문화가 이러한 모순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노래문화의 움직임이 생겨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노래문화의 모순이 사회전반의 모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이러한 움직임은 여타 사회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전체 사회운동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나타난다. 따라서 80년대에 들어서서 생겨난 노래운동은 80년대에 들어 갑작스레 생겨난 현상이 아니며, 전반적인 사회 변혁운동 속에서 배태되어 온 노래문화의 변화의 싹이 운동으로 조직화되어 나타난 것이라 보아야 한다.

80년대 노래운동을 가능케 한 70년대 이래의 노래문화는 크게 몇 갈래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70년대 초 통기타 붐을 일으켰던 미국 포크류이다. 70년대 포크송의 붐은 미국의 히피문화와는 달리 반문화적인 것이 아니었다. 즉, 본질적인 것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감수성만이 달라진 대중가요, 즉 약간 새로운 상품이 선보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존의 대중가요 보다는 의미있는 노래를 부르려는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한대수나 양병집, 서유석, 김민기 등이 그들인데, 이들은 사랑타령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 김민기는 70년대 초반까지는 이러한 포크송 가수 즉, 대중가요 가수였다. 그러나 김민기의 노래들은 이들 여타 포크송 가수들의 노래들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70년대 후반 이후 포크송의 한계를 가장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가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아침이슬’은 70년대 후반에 들어와 학생운동이 질적인 심화를 이룩하면서 사람들이 구체적인 고난을 앞에 두고 구체적인 결단을 내리는 모습으로 재해석되었으며 ‘친구’의 경우도 많은 학생들에게 애창되었다.

김민기의 작품은 포크류의 작품 중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심도있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재해석을 통해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민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조심

스런 접근을 시도하면서 초기 작품에서 보였던 지식인적인 관념성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후기 작품인 ‘가뭄, 기지촌, 소금땀 흘리흘리, 늙은 군인의 노래, 식구생각’ 등의 그 이전의 작품과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굴뚝에 빗대면 줄음이 올라와/온 몸 흔들며 밤바람 쐬는데/오늘 하루 흘린 땀 쉴 만한가/큰 숨 들이쉬고 두 팔로 치켜들고/흘리 땀 흘리 소금땀 흘리흘리/행여 죽어도 행여나 살아도/흘리 소금땀 흘리흘리/행여 살아도 행여나 죽어도.’ 그리고 동일방직 사건을 모델로 한 노래로 ‘공장의 불꽃’은 70년대 그의 민중지향이 절정에 다다른 작품이다.

두번째 갈래는 여러 사회운동 과정에서 불리워졌던 데모노래류이다. 운동 경기를 볼 때에는 응원가가 따르듯이, 시위를 할 때 데모노래가 수반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현재까지 불리우고 있는 노래 중 60년대의 데모노래도 상당수가 있다. ‘바람이 분다, 탄아탄아, 해방가, 농민가’ 등은 60년대부터 부르던 노래들이다.

70년대에 ‘우리의 소원, 홀라송, 흔들리지 않게, 우리 승리하리라’ 등이 첨가되었고, 80년대 들어와서는 엄청난 양의 운동가요가 만들어져 데모노래를 풍성하게 하였다.

70년대에는 후반의 데모노래의 상당수를 차지하던 것은 기독교 복음송가였다. 교회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흑인영가’이거나 미국의 교회운동, 민권운동 과정에서 불리웠던 것으로 ‘오 자유, 가라모세,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등 상당수가 있다. ‘미칠 것 같은 이 세상/미칠 것 같은 이 세상/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세상 어딜 가나 슬픔 뿐이오/먹고 자고 애써 일할 뿐/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주여 나는 무엇하리까.’

80년대 전반의 데모노래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선봉에서 서서’ 등이 가사에 있어서 나뭇대로 짜임새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작품 전체가 80년대의 패배의 경험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 절망과 고충을 극복하는 의지 등을 표현하는 비장미를 드러내고 있다.

그밖의 노래들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노래들과 82년부터

85년까지 전성기를 이루었던 개사곡들이 있다. 개사곡은 대학가에서 풍자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노동자·농민 중에서는 노동자·농민들이 부를만한 노래가 많지 않음으로 단순한 곡을 차용하는 식으로 많이 불리웠다. ‘어찌다 빌려온 양키놈 돈에/우리공장 문 닫아 버렸네/어찌다 빌려온 쪽발이 돈에/우리들은 갈 곳이 없네/사장님께 할 말이 있는데/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월급은 안 줘도 수출은 안돼도/원리금 상환 꼬박꼬박/개판개판 한국경제 개판인가 봐.’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노래문화는 자본에 의해 혹은 상업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진 바 크며, 따라서 노래들도 대중가요처럼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한 생활 감정들을 다양하게 형상화해 내고 있다. 바로 그러한 다양성은 새로운 노래문화가 대중가요보다 건강한 형태의 문화이며 대중가요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좋은 증거이다.

### Ⅲ. 꼬 리 트 말

그러나, 아직도 이 새로운 노래문화가 대중가요를 완전히 극복할 만한 힘을 가지기에는 너무 모자란 점이 많고 힘이 약하다. 이들 노래문화가 학교를 중심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몇몇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대중가요를 부르지도 않고 이들 노래만 불러도 아무런 불편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만 그 내용이나 감수성이 학생 취향이므로 다양한 계층에게 보급되기에는 한계가 많다. 사무직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노래가 농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가정주부들에게, 또 중년층에게, 고등학생들에게, 아동들에게 각각 그들에 맞는 노래가 만들어져 그들이 표현하고 싶은 바를 그 노래들을 통해 마음껏 표현하고, 그것이 그들의 생활과 우리 민족의 발전에 작은 밑거름이 될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들은 물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장 속에서 기존의 노래문화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문학과 시인 박노해  
—「노동의 새벽」을 중심으로—

I. 서 언

실로 1980년대는 사회변혁운동의 새로운 장이 마련된 시대였다. 사회의 각계각층 사람들이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변혁운동의 주도적 역할들을 해냈다. 특히 한국문학에 있어서의 새로운 변혁은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새로운 양식에 담고자 노력하였던 노동문학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80년대에 들어서 전면적으로 부상한 노동문학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노동자들을 문예실천의 주체자로 내세우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그들의 거침없는 목소리는 어느 누구의 접근도 허락치 않을 기세의 강렬한 것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한 노동자의 계급적 성장을 통해 노동자가 창작의 주체로서 예술적인 성취면에서 질적 성장을 가져왔던 박노해의 등장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커다란 문학의 변화였다. 그렇기에 80년대의 문학을 발함에 있어서 노동문학을 얘기하는데 박노해를 가버이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노동문학을 이루는 많은 물줄기 중에서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하였던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을 중심으로 그가 노동문학에 끼쳤던 영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Ⅱ. 본 론

### (1) 노동문학의 형성과 박노해의 등장

1945년 일제가 물러가고 한반도는 강대국의 이익에 의하여 두 개의 국가로 나뉘게 된다. 그로부터 한국 민중들은 자주적인 민주정부수립을 향해 가열찬 대중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1953년 휴전협정을 기점으로 대리정권의 승리로 끝났을 때 애국민중세력의 품에 축적된 물질적 재부와 정신적 재부는 송두리째 민중의 품을 떠나게 된다. 그것이 문학에서 드러난 현상은 온통 외래문학만 난무하게 되는 망국적 사태였다. 그 결과 4·19가 있기까지 한국문학은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인다. 외국에서 유행하는 문예사조를 가장 빨리 수입해 들어오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문예이론가나 평론가가 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때에 들어온 외국문학이라는게 한결같이 변화·개조세력이 낳은 진보적 신흥예술가보다는 보수·정치세력의 낡은 예술이었다는데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4·19가 나고 그를 통해 문학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게 된다. 이때에 시민문학론이 제출되고 그것은 이내 변화·개조세력의 전진에 따라 신동엽·김지하·황석영 등의 창작적 결실을 맞이하여 민족문학론을 정립시킨다. 이는 우리민족문학사를 일으켜 세우는 일대 경사였다. 민족에 따라 사회적·자연적·역사적 환경과 경험내용, 언어, 인종 등이 다르듯이 문학도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기 마련이다.

197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이러한 의미의 민족문학이 내걸리게 된다. 이로써 민족적 긍지를 값아먹는 외래문예사조들의 실험의 장이었던 곳에서 우리문학의 단당주체와 성격이 밝혀지면서 민족문학이 세워졌다. 이후 1980년대에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고 개혁하려는 기층민중들의 노력과 아울러 노동자들의 자각이 이루어지면서 민족문학사의 민족문학의 주체가 노동계급으로 변모되었다. 이는 곧 노동문학의 태동을 의미하는데 이로써 노동계급의 진출·성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노동문학이란 것은 창작의 주체를 축으로 포착한다면 우선 노동계급의 자주성 실현에 복무하는 문학이고, 다음으로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 노동자들의 예술 생산물으로써 정의될 수 있다. 그 노동문학의 대열에 박노해가 선두로 있었다.

### ‘노동문학의 기수’

박노해가 1980 년대에 차지했던 위치는 실로 대단했다. 그의 문학적 특징은 노동계급의 ‘귀’이자 ‘눈’이요 ‘감각기관’이고자 하는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문학은 또한 노동계급의 숨결, 호흡, 체질 속에서 생겨난 것이다. 한 사회의 중심에 선 문학권에 노동계급의 진출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회의 문학은 내용이나 사상만이 변모를 갖는 게 아니라, 담담주체, 주요양식, 형상내용, 예술형식 전반에 걸쳐 거의 체질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식민지사회의 노동계급이 민족해방운동을 자신의 제일가는 임무로 삼는 만큼 그러한 사회의 노동문학은 민족해방에 관한 내용을 중심에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계급의 숨결, 호흡, 체질 속에서 생겨난 문학을 노동문학이라 불렀을 때 민족문학과는 결코 대립되지 않는다. 이는 서로 류(類)와 종(種)으로, 주체의 범위가 다를 뿐이다.

한국사회의 모순된 현실을 가장 절실하게 체험한 계급의 손에 의해 쓰여짐으로 인해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고서는 바라 볼 수 없는 삶의 모습들을 담아낸다. 그래서 그의 의의는 사상 최초로 생산계급의 문학이 진도문학의 새로운 원동력이 됨으로써 민족문학의 새시대를 열고 노동계급의 자주성 실현에 이바지 하였으며, 창작자와 수용자를 통일시켜낸 문학이라는데 있다. 이런 노동문학이 한국에서 현재 세 단계의 소시기를 거치면서 형성·발전되었다. 1970 년대의 맹아기는 수기·생활글 등의 단순한 형태로 노동현실을 내용에 담았으며 1980 년대 상반기에는 서정적 양식을 중심으로 계급투쟁의 정당성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하반기는 성장기로서 나름대로 전망·제시 속에서 계급투쟁을 고무·충동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각도에서 바라보

면 박노해는 한국노동계급의 성장을 바탕으로 노동문학의 발전경로를 따라 변모한 시인이다.

## (2) 「노동의 새벽」에 대해

1980년대 후반기의 노동문학의 전면적 부상이 있기 전에는 노동문학이 단순히 노동자의 고통을 호소하는 수기나 수필 등 편린적 문학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박노해의 등장과 더불어 이 땅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현실을 극복하고 계급사회를 끝장낼 힘을 기르는 문학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고립·분산적이고 미자각 상태에 있던 근로 대중들이 주체적 자각과 단결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이를 막는 현실 간의 대립·갈등의 기본모순을 타파하려는 노력의 결실인 것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성과는 구체적 현장성과 실천적 운동성의 통합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모든 시들은 어떤 관념의 눈으로 밖에서 들여다 보는 식의 남의 삶이 아니라, 자기가 뿌리박고 살아가는 작가 자신의 삶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생생하고 절실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구체적인 현장성이 담보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 자신의 고통스러운 면을 감상적으로 호소하고 만다면 이는 단순한 고발 이상의 효과가 없다. 그런데 여기 실린 시들은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표출되는 대립·갈등의 구조 속에서 자기를 각성하고 주체적·실천적으로 참여하고 움직이는 운동의 흐름에서 출발함으로써 실천적인 운동성을 획득하고 있다. 즉 단순한 고발차원의 문학을 벗어나 구체적 현장성에 실천적 운동성을 결합시킴으로써 민중해방의 정서와 의지로 발돋움하였다.

물론 개개의 시들을 살펴보면 감상이나 고발의 차원에 머문 것도 있고 현장성과 운동성의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적인 짜임새가 있는 시들도 간혹 보인다. 전자는 감상적 자기 위안이 되기 쉽고, 후자의 경우는 구체적 현장성으로부터 실천적 운동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급하게 짜맞춤으

로써 문학에서 필수적인 형상화가 되지 못한 경우다. 실천적 운동성을 너무 앞세운 나머지 민중해방의 정서가 아니라 관념적 과격성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되었든 전체를 통해 볼 때 이러한 결합이 노동현장의 살아 움직이는 모습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쓴 것처럼 보일 만큼 개개의 시가 흩어진 독립체로 있으면서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통하는 서사적인 장시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노동현장의 대립·갈등은 ‘(시대의 꿈)’과 ‘(평온한 저녁을 위한)’ 근로자의 염원과 저임금·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사이의 대립·갈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구조적 모순 속에서 주체적 자각도 되어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더욱 ‘저임금 포승줄(줄음)’에 묶이고 ‘폐가 찰룩거리고(어쩔수 없지)’ ‘시커먼 무우짠지(줄음)’가 된다. 그러나 육체적 정신적 파손을 견디며 ‘아득바득 조출철야 매달려도/돌아오는 건 쉼새알만(진짜 노동자)’하고 자신들의 얼룩진 피와 땀으로 만든 고급제품들은 그림의 떡(가리봉 시장)이고, 날로 치솟는 물가와 세대에 아내는 울상이 되어간다.(모를 이야기들) 게다가 실업의 위기마저 느껴야하는 노동자들의 정서는 ‘명에 쓴 짐승(어쩌면)’의 슬픔과 절망이 분노가 되어 누적된 원한의 눈동자를 치켜든다.(손무덤) 주체적 자각과 단결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성취하려는 노력은 더욱 확대되고 자본의 기본적 욕구와 맞부딪치게 되면서 첫번째의 대립·갈등보다 더욱 첨예한 대립·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에 고립분자적이던 노동자들이 더욱 단결하고 자각함에 따라 이들은 그 모순구조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가열찬 투쟁의 전개가 시작된다.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을 속속들이 가지고 있는 ‘손무덤’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1)

제1연…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말미암아 손목이 잘린 비극적 산업재해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절망스럽고 서글픈 노동현실을 드러냄(절망, 슬픔)

제2연...이 사건에 대한 사용자측의 부당한 처리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자본의  
끝없는~이윤추구를 드러냄.(원한, 분노)

제3연...동료의 잘린 손목을 가족에게 전해주러 갔으나 차마 그러지 못하고  
되돌아 나오는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비극적 노동현실을 드러냄.(슬픔, 절망)

제4연...변화가의 대형서점을 찾아도 산더미처럼 쌓인 책중에 산업재해 관계서  
적 등 노동자용 서적이 전혀 없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노동현실을 외면하는  
사회구조 드러냄.(원한, 분노)

제5연...외국 상가와도 같은 거리와 화사하고 세련된 남녀들과 작업화 차림의  
마치 탈출한 죄수같은 근로자의 대비를 통해 사회 현실의 모순구조를 드러냄.  
(슬픔, 절망, 원한, 분노)

제6연...제5연보다 더욱 적나라한 대비를 통해 사회 현실의 모순구조를 드러냄.  
(슬픔, 절망, 원한, 분노)

제7연...잘린 손목을 공장 담벼락 밑에 매장하는 행위, 또는 의식과 적극적으로  
일치·전환시킴으로써 노동행위와 사회적 현실의 모순구조를 주체적·실천적으  
로 극복하려는 일어섬을 극적으로 일치·전환시킴.(슬픔, 절망, 원한, 분노가  
녹아들어 통일된 민중해방의 정서를 이룸)

위에서 보다시피 마지막 연에서 극적전환을 이룸과 함께 이제 노동은 단순  
한 절망과 슬픔의 행위, 원한과 분노의 행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어우러  
져 노동의 해방이 이루어지기까지 질적 전환으로 들어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3) 박노해문학에 대한 평가

박노해 그는 실천하는 시인으로 실천하는 시인을 기르고 가르친다. 그는  
창작실천에의 자유주의적 태도를 긍정하는 법이 없이 계급투쟁 앞에 단호하  
게 서 있으며 또, 서정적 주인공을 선택하여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문  
학적 가공을 통해 형상화하여 드러낸다.

「노동의 새벽」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영역은 한 개인이 34 세  
의 연륜을 통해서 직접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그는 장르의 틀  
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믿지 않으며 역사적 의의가 큰 소재만을 취하고 일상

---

1) 채광석: '노동현장의 눈동자', 「노동의 새벽」, 1984, 풀빛.

적 소재를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격동기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시인으로서 이는 참으로 훌륭한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급변하는 정세와 상황의 요구에 조용하는 글을 쓴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그의 예술 생산량은 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실적이 크다. 시류에 낙후됨이 없이, 또한 시가 되고 안되고에 얽매이지 않고 노동계급에 필요하니까 써나가는 식이다. 갈수록 급박해지는 시대의 예술적 성취를 위해서 이런 훈련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왔다. 노동자의 일상과 노동계급의 운명에서 타계급·타계층의 운명으로, 그리고 조국통일에 대한 견해까지를 예술형상으로 제출하였다. 이는 계급적으로 각성된 선진노동자의 삶이 사실적으로 형상화되었으며 나름대로의 노선과 정책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Ⅲ. 결 언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문학은 사고의 폭을 참으로 넓고 방대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의 변화되어가는 의식과 시대의 요구에 부흥해나가는 그의 문예실천활동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문학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그의 ‘창작자인식의 과정’이 창작과정 밖으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사유가 개입되어 있지 못하고, 서정적 주인공의 자기성찰이 모자라는 점이다. 즉, 계속적인 상황에 부흥해가는 시인의 방식은 긍정적이지만 시적 방식에서는 아직도 확립되지 못하고 방황하는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그의 계속적인 변모는 보다 체계적으로 굳어져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그의 시적 방식 또한 발전시킬 것이다. 그러한 변모에 발맞추어 본 연구회는 박노해연구를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연구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노동 해방문학」, 11월호, 1989.
- 「사상문예운동」, 겨울호, 1989.
- 시집「노동의 새벽」, 별빛, 1984.

## 濟州語에서의 日本語系 外來語

### I. 序

한 民族의 文化的 個性이나 主體性을 가장 잘 상징하는 文化內容 중에 代表的인 것은 바로 그 民族 高유의 言語일 것이다. 人間은 言語的으로 思考하고 言語를 통해서 世界와 事物을 理解할 수 있는 言語的 動物이다. 그러므로 言語의 繼承은 곧 文化的 同質性과 主體性的 繼承이라는 意味와 公用語로서의 國語를 使用해야 할 一種의 義務를 갖는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外來語와 外國語가 지나치게 犯濫하고 있다. 특히 外來語의 濫用은 우리들로 하여금 文化的 主體性을 상실케 하고 있고 長期的으로는 自主性的 포기라는 結果를 낳게 하고 있다. 특히 日帝·36年의 영향은 解放 44年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의 言語를 크게 侵蝕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言語現象만 가지고 볼 때에 우리 文化的 主體性은 얼마나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가 놀라울 정도이다.

우리의 言語가 外來語에 의해 本格的으로 오염되기 始作한 것은 日帝의 言語抹殺政策이 그 시초이지만 解放以後 오늘날까지 日本語系 外來語가 우리 言語生活 속에 많은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 自身の 責任이라고 反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問題意識을 유념하여 우리 國어에 있어서 日本語系 外來語의 借用에 있어 濟州道語詞의 特性을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 II. 本

外來語는 外國에서 들어 온 말이 國語 語彙體系 內에 끌려들어와 國語와 同等하게 쓰이는 말이다. 外來語란 文化接變의 必然的 所產物이지만 國語生活에 外來語가 많다는 것은 다른 文化와 섞이면서 自己 本來의 性質을 잊어버리고 남의 文化의 영향만을 받는 것, 즉 文化의 主體性을 상실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과거 우리 國語에서의 外來語는 그 範圍가 극히 한정된 것이어서 漢語·몽고어·만주어에 불과하며 例外的인 現象으로 日本語가 있을 뿐이었다. 우리나라에 日本語系 外來語의 本格的인 流入은 韓末(1876~1910)부터라 할 수 있다. 1910年 韓日合邦이 되면서부터 本格的인 植民地 支配政策의 일환으로 韓國의 民族精神을 말살하기 위한 “皇國臣民化 運動”을 強行했고 言語를 擯壓하기 위하여 韓國語로 된 新聞 등은 廢刊시켰다. 植民地統治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問題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言語問題이다. 왜냐하면 言語는 民族意識과 깊은 關係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日本은 식민지 통치를 위해 먼저 言語政策에 관심을 가졌고 이의 效果的인 實踐에 부심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日本語系 外來語는 우리 言語生活 속에 그대로 借用되었고, 日常生活과 比較的 密接한 關係를 맺는 業종의 言語가 아직도 많이 使用되게 된 것이다.

日本語系 外來語의 使用實態를 보면 技術用語가 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技術用語 自體의 특이성 때문에 번역이 곤란하여 그대로 使用하는 理由 때문에도 그렇지만 技術者들이 現行의 制度的인 教育을 통해 技術과 技術用語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맨투맨(man to man) 方法에 의한 徒第教育式의 技術傳授로서 日帝의 영향 아래서 技術을 배운 이들이 다음 世代에게 그대로 技術과 技術용어를 되물려 주는 절차를 答습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를테면 理·美容의 外來語 使用實態를 보면 그 使用

層이 日帝의 영향과 관련이 깊은 40代 이상의 연령층이 代表的인 경우이다. 使用頻度가 높은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고 데	ユデ	머리인두
니부가리	ニブカリ	이부깍기
소도마끼	ソトマキ	바깥말이
우찌마끼	ウチマキ	안쪽말이
후 까 시	フカツ	부풀머리

특히 土建・木工・電氣工事・鐵工・自動車整備 같은 직종에 관계되는 日本語系 外來語가 무척 많으며 그것들이 現場에서 技術者들 사이에 아무런 불편없이 使用되고 있다.

○技能職工들과 기구에 대한 例

도끼다시	トギダツ	갈아내기
와 꾸	ワリ	틀
사 깡	サカソ	미장이
도 란 스	ドラソス	변압기
네지마와시	ネヂマワツ	나사돌리계

縫裁와 洋靴에 관련하여 볼 때 色彩語에 관계되는 일본어계 외래어는 모두 混種外來語이다. 「곤색」이라는 말은 外來語라는 意識조차 없고 그냥 우리말이려니 하고 쓰고 있다. 연보라 ‘감(紺)’字의 검색을 日本語로 ‘곤이로(コソイロ)’라 하는데 이 ‘곤(フソ)’에 ‘色’이 붙어「곤색」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다.

一般用語로서 日本語系 外來語는 現在 中・高等學校에서 정상적인 教育을 받고 있는 學生들에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생들이 간식으로 즐겨 찾는 음식 중의 하나로 ‘오뎅’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꾸앙’이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별 저항없이 日帝에서 使用되고 있다. ‘꼬치’ 또는 ‘꼬치백반’이란, 오뎅을 우리말로 바꾸어 새로 붙인 이름인데 ‘다구앙’을 단무지로 바꾸어 이르는 것과 같다.

이 꼬치의 옛말은 ‘곶’이었는데 용비어천가에는 :

암림관(暗林串) 암림곶(菴- 36)

이라 하였고 15세기 信眉가 번역한 四法語에는 :

흔 고재 다 꿰며(一串都穿)

이라 하여 「곶」으로 표기한 것을 보여 준다. 건시를 ‘곶감’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곶’이 남아 쓰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固有語가 있으면서도 一般用語에는 日本語系 外來語를 使用하는 것이 눈에 많이 뜨인다. 예를 들면 ‘요우지’ 같은 경우이다. 영조때 만들어진 「漢淸文鑑」에도 ‘니쑤시개’라 쓰여 있어, 우리도 일찍부터 이것을 使用했음을 보여준다. 우리에게 없는 말이라면 몰라도 일찍부터 버젓이 있는 것이고 보면 ‘요우지’란 外來語 대신 ‘이쑤시개’라는 우리말을 씀이 더욱 자연스러울 것이다.

一般用語중에서 食生活과 관계된 例

하 시	ハシ	젓가락
사 라	サラ	접 시
다 시	ダシ	맛국물
이루꾸	イロク	멸 치
오 봉	オボソ	쟁 반

借用에서 日本語를 소리 그대로 빌어 쓰는 것들이 많다. 가령 가마(カマ) - 큰술, 곤로(ユソロ) - 풍로, 구루마(リルマ) - 수레, 단수(タソス) - 옷장 등이다. 그러나 외국어를 소리 그대로 빌어 쓰는 것보다 번역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우리 國語가 혼란을 빚지 않을 것이며,

또한 語彙를 늘려 훌륭한 국어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濟州道를 一種의 2個國語 並用主義가 난무하고 있는 지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본어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렇듯 일본어가 제주도 에 압도적인 勢力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理由로 金完鎭님은 첫째, 해방 전의 제주도 地瘠民貧의 사정으로 活動力이 강한 여자들이 새로 열린 生活 무대 즉, 日本으로 품팔이를 나갔는데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라는데서 온 것이라 본다. 言語上으로 女子는 家庭的의기에 대개 保守的인 것인데 그 여성들이 나서서 日本語를 攝取하였다는 점에 그것이 뿌리 깊어 스며들 契機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거기에 이 섬의 文化程度가 낮았다는 것도 絶海孤島로서의 地理的 條件때문에 言語上의 植民地가 되기에 極히 適合하였을 것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둘째, 제주도 사람은 일본어로 말할 때에는 일본식으로 정확한 發音을 하나 借用語로 國語 안에 들어 오면 國語試으로 고쳐 발음하고 있다.

濟州道方言의 日本語의 借用語 중에서 現在까지 빈번하게 使用하는 용어는 대략 30여 개로 간추려 진다.

- ① adaruhwnda : 「맞는다」 〈うダル〉
- ② assari : 「깨끗이」 〈うシサリ〉
- ③ syaku : 「국자」 〈シセワ〉
- ④ Čubor : 「양복바지」 〈ズボン〉
- ⑤ haikara : 「멋쟁이」 〈ハイカラ〉
- ⑥ hasi : 「箸」 〈ハシ〉
- ⑦ ida : 「板子」 〈板〉
- ⑧ ippai : 「가득한 잔」 〈イシペイ〉
- ⑨ iriku : 「멸치」 〈イリコ〉
- ⑩ Kaŋt<sup>h</sup>or : 「깡통」
- ⑪ karasi : 「유리」 〈カラス〉

- ⑫ kawari : 「交替」 〈替刀〉  
 ⑬ koŋjo : 「심보」 〈根性〉  
 ⑭ koŋno : 「風爐」 〈コソロ〉  
 ⑮ kuč̣i : 「( 좋은 ) 수」 〈口〉  
 ⑯ narabi : 「줄선다」 〈並ブ〉  
 ⑰ nogada : 「토역꾼」 〈土方〉  
 ⑱ nokaŋ : 「노강」 〈土管〉  
 ⑲ otsuri : 「거스름돈」 〈オソリ〉  
 ㉑ ot-kiŋi : 「웃감」  
 ㉒ paŋ : 「빵」 〈ペソ〉  
 ㉓ penida : 「베니아 板」 〈パニイタ〉  
 ㉔ pento : 「도시락」  
 ㉕ rengai : 「벽돌」  
 ㉖ sara : 「접시」 〈サラ〉  
 ㉗ tadami : 「돛자리」  
 ㉘ tempura : 「튀김」  
 ㉙ todaŋ : 「합석」 〈トダソ〉  
 ㉚ toranukaŋ : 「durm」 〈ドラム〉  
 ㉛ uki : 「tire tube」  
 ㉜ udoŋ : 「국수」 〈ウイソ〉  
 ㉝ uwagi : 「웃웃」 〈上着〉  
 ㉞ waribasi : 「消毒箸」

특히 ①의 adaru-hwnda와 같은 제주 방언의 일본어 語詞 차용에 대한 특이한 현상을 보여 준다. 借用語가 동사일 경우에는 ‘-hwnda’, 형용사일 경우에는 ‘-hwda’라는 접미사를 붙여서 現在를 나타내는 것이 제주도 방언의 특징이다. ‘형용사+-hwda’의 예로는 ‘baŋkai-hwda(バシカ

イ)'가 있다.

또한 특수한 母音 W(•)가 借用語에 使用된 是 흥미있는 일로 지적이 된다.

이밖에 濟州道 方言의 특유한 여러가지 音韻的인 사정으로 借用語에서 다 음과 같은 특유한 現象이 발견된다.

1. t > d 혹은 k > g 현상

geta > keda

konĵo > gonĵo

renka > renga

※(有聲音과 無聲音 구별이 無觀)

2. d > n 현상

dogato > nogada

deŋwa > neŋwa

3. r > n 현상

rijaka > nijake

rampu > nampu

4. Z > Č의 현상

Zuboŋ > Čuboŋ

kanzume > kanĵime

5. ts > s 현상

natsu - mikanĵ > nasi - mikan

6. - g - > - ŋ 현상

tamanegi > tamanenĵi

7. S > Č의 현상

Saku > Čaku

특히 흥미로운 것은 畧과 관계되는 어휘는 거의 모두 日本語系 外來語이며 그것들은 다른 어느 것보다 濟州도의 語詞體系 속에 完全히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나스미깡	ナシバカソ	하 굴
온 쥬	オソシユウ	온주굴
와 세	ワセ	조 생
고 미 깡	ユバカソ	작은굴
깡 깡	キソカソ	금 굴

이와 같은 현상은 60年代 경제발달에 따라 제주도 지역의 특수산업으로 감귤사업이 정책적인 育成事業의 結果에서 감귤에 대한 일본어가 우리 語詞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이유로 mikang-nang 같은 것은 일본어계 외래어인 미깡(バカソ)과 나무(木)의 제주도 방언 「낭」과 어울려 만들어진 제주도 특유의 借用語로 使用되고 있다.

### Ⅲ. 結

제주도 語詞를 中心으로 일본어계 외래어의 使用實態를 살펴보았다.

제주도 어사체계 속에 完全히 安定된 자리를 잡은 日本語系 외래어도 적지는 않았지만 앞서 살펴본 40여 개 정도의 言彙는 이용빈도가 우리말보다 그 語勢가 높았다. 이와 같은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요망된다. 첫째, 국민 각자는 言語生活의 明朗化와 自覺的인 實踐을 통하여 일본어계 외래어를 遜出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둘째, 學界에서는 국어속의 언어자원을 開發 活用하여 外來語로 인한 우리 국어의 侵蝕과 濫用을 시급히 대체시켜 나아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各業所別 技能工 계층에서는 外來語가 순국어인 것처럼 日常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기능공 연수 등 기타 방법을 통하여 試案語 普及策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媒介機關인 新聞·放送 그리고 教育界에서는 모든 매개적인 要所를 積極的으로 동원하여 本運動이 擴散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첫째, 政府는 국어정책 기구와 연수기관을 設立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試案語 普及에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올바르게 國語를 理解하려는 努力은 外來語의 올바른 使用과 無觀할 수 없다. 이러한 理由로 제주도 방언에 나타난 외래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외래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가능할 때 우리 언어생활의 귀중한 교훈적 指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80년대 여성문학 고찰

### I. 서 언

작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यो, 사회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특히 여성작가들이 여성의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 없다는 대전제 앞에 우리는 극복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처지이다.

지금껏 문단에서는 대다수의 남성작가와 남성위주의 작품이 쓰여져서 오히려 여성의 문학적 지위가 불모지로 인식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대투쟁 이후 분출되어 온 각계 각층의 요구들 속에서 여성 스스로가 한 인간으로서의 각성이 돋보이는 가운데 문학부문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문학 역시 사회운동과 결합하면서 전체 사회의 변혁을 위해 복무하는 것으로 뚜렷이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여성작가에 의해 창작된 여성문학을 검토한다는 것은 민족문학의 하위범주로서 여성문학의 전개과정을 검토하는 것인 동시에, 역사적 개인으로서 이 시대의 작가들이 바라본 여성문제에 대한 수준을 함께 살펴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제 1980년대 발표된 다섯 작품을 통해 작가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해결점 등을 함께 찾아보기로 하자.

## II. 본 론

### 1. 이해숙의 < 송년잔치 >

집안이 불우한 농촌이라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상경하게 된 순옥은 김 사장네 가정부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잇권이 얽혀있는 일을 따내기 위해 김사장 부부는 가정부인 순옥을 이용해 오사장에게 몸을 더럽히게 만든다. 여기서 주인공 순옥이 자책하게 되는데, 지금껏 대부분의 여성의 모습이 그렇듯 자신의 부주의 혹은 암묵적 동의로 인한 결과라 생각한다. 그리고 김사장 부부나 자신의 성적 쾌락만을 즐기는 오사장을 단지 원망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순옥은 그 뒤 공장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정되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눈을 뜨게 된다.

“어휴, 답답해, 언니는 윤숙언니한테 교육을 좀 받아야겠어. 윤숙언니말에 따르면 언니의 그런 사고방식은 바로 노예근성이라는 거래. 왜 언니는 우리가 사장 기분에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만 생각하고 사장 역시 우리에게 일을 시키려면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 못해?”

“그럼 사장하고 우리같은 고용인들 하고 같니? 남의 밑에서 밥을 먹자면 아니 푼고 서러운 일도 참아야지.”

여기서 설정된 인물인 명화·윤숙은 계급의식이 투철한 건강한 여성상을 그리고 있으며 자신의 처지에 안주하지 않고 개척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사장이 사탕발림으로 벌이는 송년잔치의 허구성은 곧 이 사회의 축소판으로써 기업가와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의 참 땀가를 왜곡하고 가진 자의 착취와 억압을 비교적 잘 묘사하고 있다.

이 점에서 '60~'70년대 소설과는 대조적이다.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한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끝끝내 일어서는 모습이 돋보인다. 여성으로서의 이종고를 무릅쓰고,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곳곳이 살아가는 진실된 모습을 잘 그린 작품이라 하겠다.

## 2. 이경자〈목숨앗이〉

'70년대 해외 인력수출의 붐을 타고 중동으로 간 남편은 폐인이 되어 돌아오고 남편과 자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주인공 수미 엄마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빈민여성의 삶 그 자체를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사노동과 가족부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수미엄마!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수미엄마의 고통의 주된 원인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벅찬 노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국 이국땅에서 동성연애자들로부터 받은 성폭행으로 폐인이 된 남편도 불운한 탓이고, 자신의 생활고도 개인의 고난 정도의 얘기로 전락하기 쉽다.

그보다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녀가 노력해도 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지, 이국땅까지 가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남편이 왜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 필연적 과정들을 보여주었으면 더 나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래야만 많은 빈민여성들의 문제에 더욱 접근하기 때문이다.

다만 박완서의 소설〈흑과부〉가 중산층여성의 의식을 깨는데, 빈민여성의 삶을 다룬 것이라면, 이 작품은 남편에게 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의존하는 여성들의 경우, 남편이 부재하거나 더 이상 가족의 수입원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여성이 짊어져야 되는 힘겨운 삶의 모양을 풍부하게 묘사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수미엄마와 같은 대부분의 빈민여성의 문제를 단순히 하게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 3. 김인숙의 〈함께 걷는 길〉

작가 김인숙은 신인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유명해 버린 작가이다. 그의 작품소재는 제한된 개인이 아니라, 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널리 깔려있는 모든 제반문제가 그의 작품 세계에 들어있다.

〈함께 걷는 길〉도 파업농성을 하는 남편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처음에는 남편이 하는 일의 정당함보다는 개인에게 끼치는 불편함과 다소간의 고통에 짜증내는 아내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남편과 같은 많은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파업투쟁이 단순한 임금인상 투쟁이 아님을 깨닫고 기업주까지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아내로서가 된다. 그녀는 노동자가 악덕 기업주를 만난 것이 아니라, 자본가의 속성을 깨닫게 된다. 결국 파업이 사용자와 고용자 간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피할 수 없는 대립이며, 이는 노동자 가족 전체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한 가정의 주부로서, 아내로서 내조라는 이름의 방관자로 남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엿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게끔 해 주는 것이다.

농성현장에서 보는 믿음직한 노동자 남편과 더 이상 투쟁만을 부리는 아내로서가 아니라, 남편과의 동지적 결합을 통해 함께 걷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작품 〈함께 걷는 길〉은 작품 제목에서 보여주듯 노동자의 문제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집단의 문제로서 파업투쟁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산업역군이란 미명하에 온갖 기득권을 자본가가 챙기고 빈 몸뚱아리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자신의 계급적 자각과 동시에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최소한의 요구가 그들을 더 이상 물러서게 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 아내의 고정적인 인식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더 이상 남편의 종속물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느끼는 감정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함으로써 생기는 신경질적 증세가 아니라 남편과의 동지적 결합을 통해 함께 하는 기쁨인 것이다.

#### 4. 김향숙의 〈유리파수꾼〉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중산층 부부·출세가도를 달리는 남편과 그에 맞도록 교양있게 행동하기 위해 언제나 위선적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받는 실장처!

따라서 그녀는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목젓과 식도의 통증까지 느끼게 된다. 철저히 남편의 삶에 종속당함으로써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일들이 전개된다.

이 작품은 앞에 나온 김인숙의 〈함께 걷는 길〉의 아내와는 대조적이다.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아내의 지위가 결정되고, 남편의 안정적인 출세를 위해 아내의 역할을 규정짓고 만다. 결국 이 작품은 가족관계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해명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는 곧 소시민적 삶을 살아가는 중산층 가정의 한계이기도 하다.

“진영이 어머니는 훌륭한 내조자라는 최면에 걸려 사실을 바로 보려하지 않는군요. 좀더 솔직히 말해 진영이 아버지의 꼭두각시인 셈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녀는 가정의 철저한 유리파수꾼으로 안주하고 만다.

#### 5. 한무숙의 〈송곳〉

가부장적 삶의 봉건윤리가 삶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작품이 바로 한무숙의 〈송곳〉이다.

이 작품은 삼대째 초년 과부로 지내야 했던 한 집안의 여성들의 삶을 통

해 봉건적 윤리으로써 여성들에게 강요되었던 수절의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우연히 과부가 된 며느리가 외간 남자와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집안의 내력과 과부로서 지켜야 할 덕목으로 강조되어 온 수절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아울러 그것의 부당성을 깨닫게 된다. 즉 많은 여성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하는 수절이란 것이 그만큼 가부장적 사회의 유습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적 욕구를 억압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되는 이야기의 초점을 그러한 봉건윤리를 강조한 사회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여성에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훌륭한 어머니, 장한 아내라는 허울 속에서 무자각적으로 그런 가치관을 내면화시키고 있었던 여성 자신에 대한 반성의 이야기인 것이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송곳이 바로 인간의 건강한 욕구를 억압케 하는 윤리적 규제자로서 기능하고 있고, 그것은 세 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자신을 억압하는 도구이기도 했었다는 주인공의 깨달음은 더 이상 구시대의 가치를 용납할 수 없게 한 현실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부유한 계층 다시 말해 몇 대째 과부가 생활을 꾸려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여성을 중심으로 수절의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결국 본능적 욕구 충족의 차원 이상으로 개가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 Ⅲ. 결 언

앞에 서술한 작품은 여성작가가 쓴 여성문제 소설 모음 중 '80년대 발표된 다섯 작품을 통해 살펴 본 것이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여러가지 환경의 지배에 스스로 길들여지고, 종속적인 관계로 규정짓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여성의 모습

을 그려준 것이다.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는 조건에서 뒤늦게나마 잘 못된 삶을 극복하기 위해 힘겨이 새출발하는 과정들을 묘사했는데, 〈함께 걷는 길〉과 〈송년잔치〉는 비교적 여성문학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한 작품이다. 그러나 〈복숭아씨〉, 〈유리파숫꾼〉, 〈송곳〉 등은 단순히 문제제기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여성 작가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데 소홀한 편이고 관심의 영역도 협소한 편이다. 삶의 폭·경험의 폭을 반영하는 것이 문학이라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될수록 그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여성문학의 창작이 여성작가에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여성의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문제는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더불어 보다 많이 그리고 풍부해질 수 있으리라 본다.

끝으로 '80년대 사회변혁의 과정 속에서 여성작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